

인천사회복지

“**나는자주**”

SSN



인천시회복지

인천시회복지
인천시회복지

목차

04 시대별 변천사

10 법인 변천사	1980년대
1950년대	
12 성춘재단	120 원진재단
18 보라매	126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24 청풍복지재단	134 나눔 의사人们
30 신명재단	138 백암한마음봉사회
36 일현	1990년대
42 송암복지재단	144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48 성원	150 가산
54 광명복지재단	154 풍성하게
60 초도원	158 네트워크
66 대원복지재단	164 대한복지협회
72 인천다비다원	2000년대
1960년대	
78 손과손	168 모퉁이복지재단
84 명성복지회	172 아담
90 서천재단	176 예닮
96 응신원	180 색동원
1970년대	
102 인정재단	184 예원
108 은광복지재단	188 미선
114 목민원	192 한길재단
	196 정도원
	200 더모닝
	2010년대
	204 한원복지재단
	208 신성재단

인터뷰 · 원로에게 듣다

- | | |
|---------------------------|-----|
| 214 前 신명재단 대표이사 | 허 돈 |
| 218 성촌재단 대표이사 | 김영주 |
| 222 前 신명재단 대표이사 | 김병호 |
| 226 송암복지재단 대표이사 | 김득린 |
| 230 손과손 대표이사 | 장영순 |
| 234 보라매 대표이사 | 우원근 |
| | 이계순 |
| 238 일현 대표이사 | 김영길 |
| 242 前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유필우 |
| 246 백암한마음봉사회 대표이사 | 윤국진 |
| 250 성동원 원장 | 정 현 |
| 254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 명선목 |
| 258 명성복지회 대표이사 | 김광용 |

인사말

- 263**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창원

- 264**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현황

- 269** 추진경과 및 도움을 주신 분들

일러두기

‘시대별 변천사’는 시대별 연도를 중심으로 상단에는 ’법인 변천사‘의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관들의 주요 연혁과 원로 인터뷰 등을 통해 조사된 시설/기관의 생성과 폐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하단에는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입법을 제시함.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한 정보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인천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법인 변천사‘에 제시되어 있는 기관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해당 연도를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시대별
변천사



1950년-1970년 시대별변천사

- 1894. 제물포 고이원
- 1949. 인천기독교사회관

- 1951. 계명원
- 1951. 보라매보육원
- 1951. 성린보육원
- 1951. 해운보육원영종작약도분원
- 1951. 성심고아원(現경기도오산이전)
- 1951. 연평성육원(폐지_자료부자)
- 1952. 신명보육원
- 1952. 인천보육원
- 1953. 성동원
- 1953. 시운육아원
- 1956. 기독맹아원
- 1956. 동진보육원
- 1956. 인천사회복지관(1977 시설폐지)
- 1956. 그리스도원(폐지_자료부자)
- 1957. 모지시설
- 1957. 초도보육원
- 1957. 향진원
- 1957. 해정보육원(1976 폐지)
- 1957. 인천양로원(現경기도고양이전)
- 1958. 선한사마리아원(현경기도용인이전)
- 1958. 연백성모원(1978 폐지)

| 1950 이전

- 1914. 은사이재구조기금관리규칙(조선총독부령 제35조)
- 1917. 행려병인구호자금규칙, 군시원호법
- 1929. 구호법
- 44.03.01. 조선구호령
- 46.01.12. 후생국보제3호
- 46.01.14. 후생국보제3A호
- 46.02.07. 후생국보제3C호
- 46.09.18. 아동노동법규
- 47.05.16. 미성년자노동보호법

| 1950

- 50.02.27. 후생시설 설치령
- 52.10.04. 후생시설 운영 요령
- 53.05.10. 근로기준법

| 1955

6 · 인천사회복지 발자취



청풍복지재단



신명보육원



대원복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2. 협성여자기술교도원 • 1964. 우리보육원 • 1964. 행복의집(1969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4. 명성원 • 1968. 용신모자원 • 1968. 부령인수용시설 • 1969. 성요셉직업보도원(1979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 이씨보육원 • 1973. 은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 목민어린이유치원
1960	1965	1970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1.01. 공무원연금법 • 61.09.30. 갱생보호법 • 61.11.01. 군사원호보상법 • 61.11.09. 윤락행위등방지법 • 61.12.30. 아동복리법 • 61.12.30. 생활보호법 • 62.01.10. 선원보호법 • 62.03.30. 재해구호법 • 62.04.16.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 63.01.28. 군인연금법 • 63.11.05. 산입재해보상보험법 • 63.11.05. 사회보장에관한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8.07.23. 자활지도사업임시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1.01. 사회복지사업법 • 70.08.24. 재해 구제로인 한의사상자 구호법 • 73.12.20.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73.12.24. 국민복지연금법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6.12.22. 개정의료보호법 • 76.12.31. 입양특례법 • 77.12.3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법 • 77.12.31. 의료보험법 • 77.12.31. 특수교육진흥법



1980년-2010년 시대별변천사

• 1984. 강화정신요양원

- 1985. 방산복지재단
- 1985. 인천지할시사회복지협의회
- 1988. 백암한마음봉사회

| 1980

- 80.12.31. 사회복지사업기금법
- 81.06.05. 심신장애인복지법
- 81.06.05. 노인복지법
- 82.12.31. 유아교육진흥법
- 84.08.02.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 1985

- 86.12.31. 최저임금법
- 88.01.01. 최저임금제 시행
- 88.01.01. 국민연금법 시행
- 88.01.01.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시행
- 88.12.31. 보호관찰법
- 89.04.01. 모자복지법
- 89.07.01. 도시지역의료보험 시행
- 89.12.16.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1990

- 91.01.14. 영유아보호법
- 91.08.10.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91.12.31. 청소년기본법
- 91.12.31. 고령자고용촉진법
- 93.12.27. 고용보험법
- 93.06.11. 일제 하일 본군 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
- 94.01.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1995. 해동학원
- 1996. 효실천운동본부
- 1997. 한국사랑밭회
- 1999. 대한복지협회
- 1999. 오선복지재단

| 1995

- 95.01.05.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 95.12.30. 정신보건법
- 95.12.30. 사회보장기본법
- 97.03.07. 청소년보호법
- 97.03.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97.04.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97.12.3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97.12.31. 국민의료보험법
- 99.02.08. 국민건강보험법
- 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원진재단



백암한마음봉사회



예닮

- 2002. 모퉁이복지재단
- 2003. 한성복지회

- 2005. 한국지엠한마음재단
- 2006. 실트리온복지재단
- 2007. 예닮
- 2007. 아담채
- 2008. 색동원
- 2008. 예원
- 2008. 정도원
- 2008. 한길재단
- 2008. 미선
- 2008. 더모닝

- 2011. 한원복지재단
- 2012. 신성재단

| 2000

- 00.01.1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01.05.24. 의료급여법
- 02.12.18. 모·부자복지법
- 02.01.1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03.12.30. 청소년복지지원법
- 13.12.30. 청소년활동진흥법
- 04.01.29.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04.01.29.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04.02.09. 건강가정기본법
- 04.03.22.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2005

- 05.07.2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05.08.0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05.12.23. 긴급복지지원법
- 06.03.24.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 06.12.28. 고령친화산업진흥법
- 07.01.03. 사회적기업육성법
- 07.04.10.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07.04.25. 기초노령연금법
- 07.04.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 07.12.14.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 08.03.21. 다문화가족지원법
- 08.03.21. 고용상연령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 08.09.2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 2010

- 10.04.12. 장애인연금법
- 11.01.04.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 11.06.07.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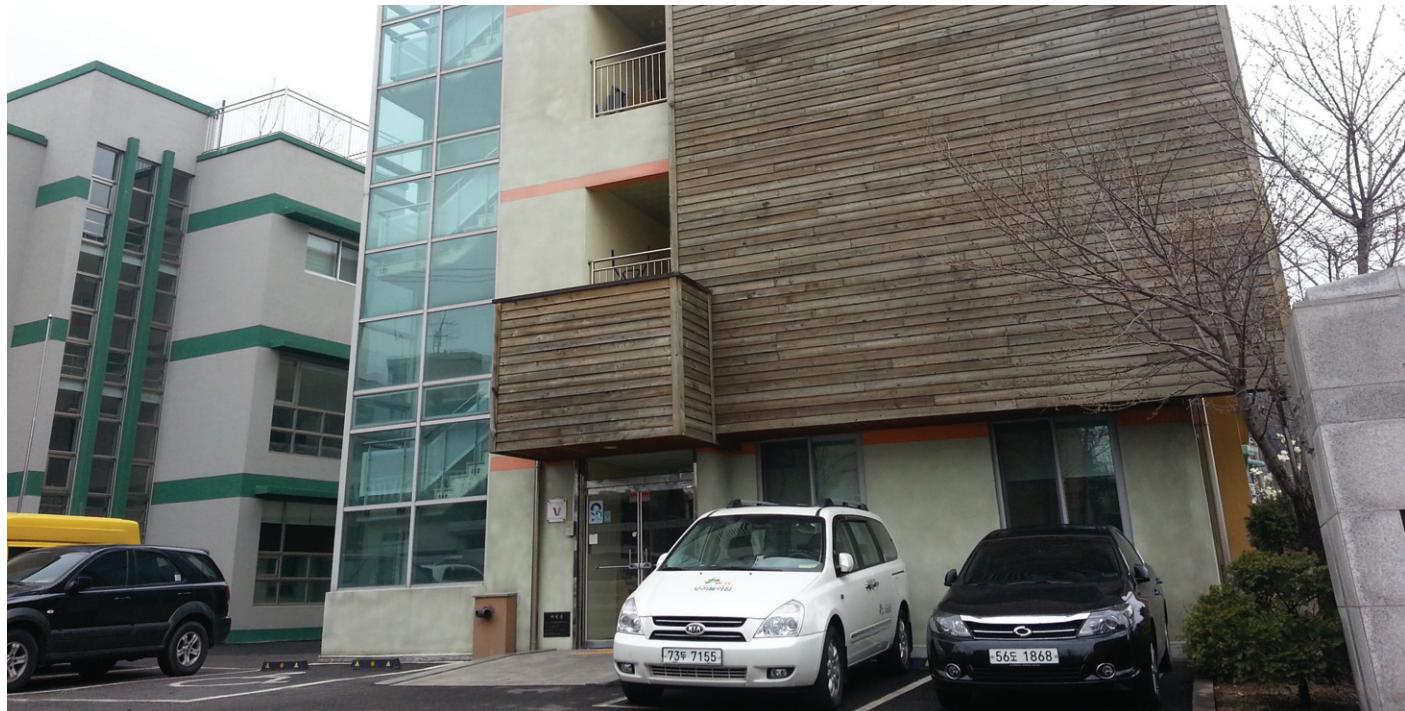
일러두기

‘법인 변천사’ 자료는 인천의 사회복지법인(2014년 12월 기준)을 중심으로 인천의 사회복지역사 자료를 구축한 것으로, 모태 시설에서 법인으로 변화, 법인 대표자의 변화, 산하 시설의 생성과 변천 그리고 소멸 과정 등을 조사하여 정리함. 순서는 해당 법인들의 최초 시설의 설립일 순으로 배열함. 기관의 사정, 자료 소실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법인들에 대한 추후 보완이 필요함. 일차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인천의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법인
변천사

성촌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01번길 26		
홈페이지	www.sungchon.or.kr		
전화번호	032-422-0573	F A X	032-433-2572



| 1950-60

- 51. 02. 02. 김용해 대표이사 가옥 일동 32평에 인천시로부터 부랑아동50명을 인수 양육
- 52. 02. 01. 김용해 대표이사 성린보육원 설립 및 초대원장 취임
- 57. 04. 제1대 김용해 대표이사 취임
- 57. 06. 17. 보사부장관 보허 제255호 재단법인 인가 및 정관 제정
- 65. 05. 01. 성린보육원 제2대 김영주 원장 취임
- 69. 11. 재산대체이전(인천시 남구 옥련동 산 85번지에서 북구 심정2동 586-2)

| 1970

- 71. 02. 23. 보사부장관 보허 제973호, 제974호 기본재산 대체 허가
- 71. 05. 21. 법인변경(재단법인 성린보육원→사회복지법인 성린재활원)
시설 변경(보육시설 성린보육원→자체부자유 직업체활시설 성린아동직입재활원)
- 71. 06. 07. 육아시설에서 자체부자유 보사부장관 보허 037호 사업목적변경 직업체활시설로 사업목적변경 인가
- 72. 02. 01. 사회복지법인 성린아동직업체활원 개원

| 1980

- 87. 07. 25. 북구청 복지31420-9255 정관변경 허가(보육→신체장애인 보호 육성으로 목적 변경 등)
- 87. 08. 시설명 변경(성린아동직업체활원→성린직입재활원)
- 87. 12. 자립작업장 111평 신축

법인 계보



| 1990

- 96. 09. 11. 인천광역시 복지65140-980호 정관변경 승인(장애인 수용보호육성으로 목적 변경 등)
- 99. 10. 자립작업장→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성보호작업시설 인가

| 2000

- 00. 12. 15. 시설명 변경(성린직업재활원→성린원)
- 00. 12. 해성보호작업시설 초대원장 신대식 취임
- 01. 04. 사회복지법인 성린재활원 제2대 김영주 대표이사 취임
- 02. 10. 해성보호작업시설 제2대 정성기 시설장 취임

| 2005

- 05. 02. 법인명 변경(성린재활원→성촌재단) 시설명 변경(성린원→성촌의집, 해성보호작업시설→굿프랜드)
- 07. 01. 01. 우리들의 집 김영주 초대원장 취임
- 08. 08. 01. 굿프랜드 보호작업장 제3대 윤창호 원장 취임
- 08. 11. 01. 우리들의 집 제2대 이은주 원장 취임, 성촌연수원 김영주 초대원장 취임
- 12. 10. 01. 성촌의집 제3대 이은주 원장 취임, 우리들의 집 제3대 노혜원 원장 취임

대표이사 이력



김 용 해
1대 대표이사(1951-2001)

■ 1대 대표이사 : 김 용 해(金龍海), Kim Yong Hae(1924.01.17~2001.11)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42. 12 일본 성기상업학교 졸업
- 1949. 12 국민학교 교사시험 합격
- 1954. 03 홍익대학 법정학부 정치과 3년 수업

경력

- 1943. 02~1944. 01 황해도 문무수리조합 근무
- 1944. 02~1945. 08 황해도 산업부 경지과 근무
- 1947. 03~1948. 08 보건후생부 후생국 후생관 임명
- 1949. 09 인천학익국민학교 근무
- 1950. 08 대한기독교 구국회 중앙집행위원 겸 총무부장
- 1951. 02 신흥산업주식회사 총무과장 임명
- 1952. 02 사회사업 성린보육원 설립 초대원장 취임
- 1952. 05 인천 신흥국민학교 근무
- 1954. 06 한국사회사업 인천시 연합회 부회장 피임
- 1955. 07 한국사회사업 경기도 연합회 이사 피임
- 1956. 12 대한아마추어 레스링 경기도협회 회장 피임
- 1957. 04 재단법인 성린보육원 대표이사 피임
- 1958. 10 송도 유원주식회사 취체역 피임
- 1959. 03 사단법인 대한소년단 인천지구연합회 지구위원 피임
- 1960. 03 인천송도국민학교 사친회 부회장 피임
- 1963. 03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이사 총무부장
- 1964. 08 인천상공회의소 상임위원
- 1965. 03 사단법인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중앙이사
- 1972. 07 월드라이온스 클럽 회장
- 1981. 12 한국 사진작가협회 인천시 지부장
- 1982. 06 국제라이온스 클럽 316F 지구 부총재

상훈

- 1961. 09 경기도지사 경기도 모범사회사업가 공로표창
- 1968. 05 보이스카우트 운동 기여 공로표창(무궁화 금장)
- 1968. 08 내무부 장관 반공체제확립 및 치안행정기여 공로표창
- 1972. 12 경기도지사 경기도 문화상수상
- 1975. 11 문교부 장관 상공업 발전기여 공로 표창
- 1975. 12 문교부 장관 사회교육 기여 공로 표창



김 영 주
2대 대표이사(2001-현재)

② 2대 대표이사 : 김영주(金永周), Kim Young Joo(1934. 01. 25-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60. 09 단국대학교 문학부 영어 영문과 3년 졸퇴

경력

- 1963. 01~1965. 04 재단법인 국민후생회 상광보린원 총무 겸 부회장
- 1965. 05~2012. 09 성린보육원, 성린아동직업재활원, 성린직업재활원, 성린원, 성촌의집 원장
- 1981~1984 인천직할시 사회복지시설협회 회장
- 1981~1984 전국 사회복지시설협회 이사
- 1981~1984 인천직할시 사회사업가협회 회장
- 1982~1984 인천직할시 정책자문위원회(사회복지분과)
- 1982~2001 인천지방검찰청 소년 선도위원
- 1988~1996 인천직할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
- 1989~199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사
- 1989~1992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인천직할시 선수단장
- 1990~1999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사
- 1991~1996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 부회장
- 1991~1995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문위원
- 1992~1997 법무부 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2001. 04~현재 사회복지법인 성촌재단 대표이사
- 2002. 06~2006. 0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상훈

- 1981. 04. 20 경기도지사 표창
- 1985. 02. 04 인천직할시장 표창
- 1986. 04. 21 대통령 표창
- 1988. 07. 05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 1991. 07. 01 인천직할시 시민상
- 1991. 12. 26 검찰총장 감사장
- 2003. 02. 21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04. 04. 20 국민훈장 동백장
- 2005. 10. 28 제1회 자랑스러운 사회복지인상
- 2008. 12. 12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감사장
- 2008. 12. 16 제3회 인천사회복지상 대상
- 2012. 09. 07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

주요저서/논문

- 1984. 11. 17 직업재활교육 발행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성린아동 직업 재활원 개축(1983)



성린 직업 재활원 전경(1987)



우리들의 집 개원(2006)



성춘의 집 본관동 증축(2012)



성린재활원 개원식(1987)



굿 브랜드 증축(2005)

2) 법인사업



성린소년대(1961)



성린아동직업재활원 단체사진(1974)



자매부대 3군지사 사단장과 면담(2005)



성린아동직업재활원 개원 기념(1972)

보라매

주 소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26
홈페이지	boramae21.org
전화번호	032-772-4450

F A X

032-765-6587



| 1950

- 51. 03. 01. 보라매보육원 설립 제1대 원장 김보경
(소재지 : 경기도 부천군 영종면 운북리 797)
- 57. 07. 12. 재단법인 인가(제1대 대표이사 김보경)

| 1960

- 66. 10. 09. 소재지 변경
(소재지 : 인천시 동구 화수동 140)

| 1970

- 72. 09. 19. 명칭 변경 (재단법인 보라매보육원
→사회복지법인 보라매보육원)

법인 계보

법인대표자(이사장)	법 인	시 설
1951~1981 1대 대표이사 김보경	1957~1972 재단법인 보라매보육원	1951~현재 보라매보육원
1981~2008 2대 대표이사 우원근	1972~2007 사회복지법인 보라매보육원	
2008~현재 3대 대표이사 이계순	2007~현재 사회복지법인 보라매	2007~현재 인천보라매아동센터

| 1980

- 81. 08. 20. 보라매보육원 제2대 원장 우원근 취임
- 82. 03. 15. 제2대 우원근 대표이사 취임

| 1990

- 92. 05. 01. 국공립 화도어린이집 위탁 운영(원장 이계순)
- 99. 04. 30. 국공립 화도어린이집 위탁 종료

| 2000

- 04. 12. 10. 아동일시보호시설 인천보라매아동센터 건축허가(인천 중구 운북동 797)
- 07. 04. 11. 아동일시보호시설 인천보라매아동센터 개원(제3대 원장 이계순)
- 08. 05. 13. 제3대 이계순 대표이사 취임
- 07. 10. 24. 명칭 변경 (사회복지법인 보라매보육원→사회복지법인 보라매)
- 08. 06. 03. 보라매보육원 제3대 원장 우치호 취임
- 08. 11. 18. 보라매보육원 재건축 준공
- 10. 07. 15. 교육청 산하 대안학교 교육기관으로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지정
- 14. 01. 01.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제2대 원장 하재옥 취임

대표이사 이력

[1] 1대 대표이사 : 김 보 경



우 원 근
2대 대표이사(1981~2009)

[2] 2대 대표이사 : 우 원 근(禹元根), Woo Won Keun(1942.01.07~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63. 12 대한신학대학교 졸업
- 1998. 02 대한신학대학교대학원 졸업
- 1988. 08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경력

- 1968. 04~1972. 03 육군 군복으로 재직
- 1973. 01~1976. 08 성서드라마사 대표
- 1976. 10~1977. 01 월문교회 당회장 재직
- 1977. 02~2009. 10 진광전원교회 당회장 재직
- 1981. 08~2008. 05 보라매보육원 원장 재직
- 1982. 03~2008. 05 사회복지법인 보라매 대표이사 재직
- 1980~1982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총회장 역임
- 1999~현재 기독교 TV CTS 이사
- 2001~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군선교후원회 회장

상훈

- 1988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2003 대통령 표창



이 계 순
3대 대표이사(2008-현재)

[3] 3대 대표이사 : 이 계 순(李啓順), Lee Kye Soon(1947.02.04-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67. 02 춘천교육대학 졸업

경력

- 1967. 03~1982. 09 초등학교(대룡, 양평, 부천동, 화접) 교사로 재직
- 1983. 05~1991. 12 서울 성동구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 1983. 11~1991. 12 서울 성동구 진광새마을유아원 원감 재직
- 1992. 05~1999. 04 인천 동구 국공립 화도어린이집 원장 재직
- 1999. 11~2007. 03 보라매보육원 부원장 재직
- 2007. 04~2013. 12 아동일시보호시설 인천보라매아동센터 원장 재직
- 2007. 11~현재 인천 중구 사회복지대표 협의체 이사
- 2008. 05~현재 사회복지법인보라매 대표이사
- 2010. 07~2013. 12 인천교육청 산하 대안교육기관장 재직

상훈

- 1968 모범교사 표창
- 1972 지도교사 표창
- 1981 모범교사 표창
- 2005 인천광역시장 표창
- 2011 대통령 표창
- 2012 제7회 인천사회복지 상 공로패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영종도에 설립된 최초의 보라매(1951)



신하기관 인천보라매아동센터(2007~현재)

2) 법인사업



인천 동구 화수동으로 이전 예배(1966)



보라매아동센터 개원(2007)



인천시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정(2010)



보라매보육원 재건축 철거 전(2007)

청풍복지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518번길 6-41		
홈페이지	www.ekmw.or.kr		
전화번호	032-937-1755	F A X	032-937-1988



| 1950

- 51. 11. 20. 재단법인 계명원 설립(양계식 원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7번지
- 57. 08. 23. 재단법인 인가(보건사회부)

| 1970

- 77. 01. 28. 재단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명
칭 변경

| 1980

- 89. 07. 30. 양계식 원장 별세
- 89. 08. 10. 시설 원장 양성수 취임
- 89. 08. 23. 법인 대표이사 임순례 취임

법인 계보



| 1990

- 96. 10. 21. 시설이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조산리 23번지)
- 97. 02. 28. 아동복지시설 인가(이전: 강화군수)

| 2000

- 01. 10. 31. 2001년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1등급)시설 선정
- 04. 02. 23. 아동전용시설 개원(계명수련원)
- 04. 10. 31. 2004년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시설 선정
- 06. 12. 14. 법인 대표이사 양성수 원장 취임
- 07. 04. 05. 임순례 대표이사 별세
- 07. 10. 31. 2007년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시설 선정
- 07. 11. 29. 법인명칭 변경(사회복지법인 계명원 → 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 08. 10. 20. 故 양계석 원장 “아이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출간

| 2010

- 10. 06. 10. 계명원 아동숙사 리모델공사 완료
- 10. 12. 06. 2010년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시설 선정
- 12. 06. 05. 계명원 60년사 “그 이듬다음 삶”출간
- 13. 07. 30. 계명원 소방시설 개보수공사 완료
- 14. 02. 27. 2013년 전국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시설 선정

대표이사 이력

□ 1대 대표이사 : 양 계 석(梁啓石), Yang Gye Seok(1923~1989.07.30)



양 계석
1대 대표이사(1951~1989)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37. 03. 20 평안북도 운산군 온정공립보통학교 졸업
- 1940. 03. 03 평양시 평양 요한 중·고등학교 졸업
- 1948. 05. 05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 1960. 03. 02 서울국제대학 경제과 졸업

경력

- 1945. 09. 01~1946. 10. 01 덕적 공립고등학교 교사
- 1951. 11. 20~1989. 07. 30 계명원 설립, 원장겸 재단이사장
- 1960. 01. 11~1964. 12. 30 한국사회사업 경기도연합회장
- 1961. 07. 05~1962. 07. 10 재건국민운동 경기도 자문위원
- 1967. 07. 15~1970. 07. 15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장
- 1973. 04. 24~1976. 05. 05 한국사회사업 연합회 부회장
- 1980. 10. 24~1983. 10. 24 국무총리실 행정개혁 위원
- 1980. 10. 27~1985. 10. 27 한국 BBS 경기도연맹 이사
- 1980. 10. 29~1984. 10. 30 인천 간호전문대학 이사회 감사
- 1982. 06. 01~1986. 05. 30 CCF 한국연합회 회장
- 1980~1989 인천 기독병원 이사

상훈

- 1962. 08. 15 대한민국 공의훈장
- 1968. 08. 15 내무부장관 감사장
- 1974. 12. 31 인천 시동구청장 감사장
- 1980. 09. 05 내무부장관 표창장
- 1985. 06. 19 인천 직할시 장한 인천시민상 수상
- 1985. 06. 19 기독교아동복지회 한국연합회 감사패 수상
- 1985. 10. 23 한국사회복지대회 공로상
- 1986. 05. 05 대통령 표창



임 순례
2대 대표이사(1989-2006)



양 성 수
3대 대표이사(2006-현재)

[2] 2대 대표이사 : 임 순례(任順禮), Lim Sunrye(1923-2009.04.05)

학력(졸업년도 기준)

- 덕적공립보통학교 졸업
- 덕적고등공민학교 졸업

경력

- 1989. 08. 23 ~ 2006. 12. 13 2대 법인이사장

[3] 3대 대표이사 : 양 성수(梁聖洙), Yang Seongsu(1953.07.04-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2. 08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 2001. 05 사우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 사회사업대학원 석사졸업
- 2007. 08 평택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 박사 수료

경력

- 1990. 03 ~ 1995. 12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선도 위원
- 1997. 03 ~ 2009. 02 전국아동복지연합회 정책위원회 위원
- 2007. 08 ~ 2009. 02 인천시아동복지협회 부회장
- 2006. 12. 14 (現)사회복지법인 청풍복지재단 이사장
- 1989. 08. 10 (現)계명원 원장

상훈

- 1996. 05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09. 03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공로상

주요저서/논문

- 아이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 계명원 60년사 “그 아름다운 삶”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계명원(1951-1960)



계명원(1970-1980)



계명원(1990)



계명원(현재)

2) 법인사업



계명원 가족사진(1960)



한가한 오후(1960)



아트드림 페스티벌 화관무 공연(2012)



계명원 직원단체 사진(2013)



계명 연주회(1967)



CCF 한국연합회 33차 총회 회장 취임(1985)

신명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49(십정동)
홈페이지	sm1952.org
전화번호	070-4991-3904

F A X

032-521-4514



| 1950

- 52. 05. 25. (故)한하운 선생 외 수명이 신명보 육원 설립, 초대 원장 한하운 취임
- 57. 07. 24. 초대 대표이사 한하운 취임
- 57. 11. 26. 보사부장관 (보허 제211호) 재단법인 인가

| 1960

- 63. 12. 01. 컴페숀 가입(외원단체)

| 1970

- 71. 12. 16. 정관목적 및 명칭 변경(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신명보육원)
- 78. 02. 02. 제2~4대 대표이사 박종은 취임
- 79. 11. 10. 정관 목적 변경(제2조 임대사업) 보허제32-4호

법인 계보



| 1980

- 87. 11. 23. 제5대 이사장 허돈 취임

| 1990

- 90. 09. 19. 정관목적 변경(보호 제132-5호)
- 90. 11. 23. 제6~7대 대표이사 정경수 취임
- 91. 01. 01. 장학사업 개시
- 92. 03. 01. 제3대 원장 정해득 취임
- 93. 03. 31. 컵페순 원조 마감
- 96. 10. 14. 정관변경(목적,노인복지사업 추가)
- 96. 11. 23. 제8~9대 대표이사 허돈 취임
- 99. 05. 07. 정관변경(사회복지법인 신명보육원 → 사회복지법인 신명재단)

| 2000

- 01. 10. 26. 신명요양원 기공식
- 02. 09. 09. 노인 무료요양원 준공허가(지하, 지상1,23층 1,458.68m)
- 02. 09. 09.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허가(정원50명)
- 02. 10. 01. 소식지발행 신명 50년사 발간
- 03. 11. 나눔의 집 시작(대외후원)
- 04. 02. 07. 제10대 이계성 대표이사 취임
- 08. 11. 23. 제11대 대표이사 김병호 취임
- 12. 05. 25. 신명재단 윤리경영 선언
- 14. 11. 24. 제13대 대표이사 이석우 취임

대표이사 이력



한 하 운
초대 이사장



허 돈
5·8·9대 대표이사(1928-현재)



김 병 호
11·12대 대표이사(2008-2014)



이 석 우
13대 대표이사(2014-현재)

① 초대 대표이사 : 한 하 운

② 1-4대 대표이사 : 박 종 응

③ 5대/8-9대 대표이사 : 허 돈,(1928-현재)

④ 6-7대 대표이사 : 정 경 수

⑤ 10대 대표이사 : 이 계 성(1929-현재)

⑥ 11-12대 대표이사 : 김 병 호(金丙鎬),(1935-현재)

⑦ 13대 대표이사 : 이 석 우(李錫雨),(1943-현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신명보육원(1960)



신명보육원(1970)



신명보육원(1990)



신명요양원(2000)



식당신축(1983)



아동숙사 신축(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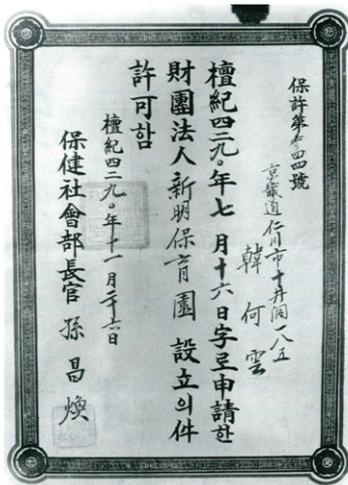
2) 법인사업



신명보육원 가족사진(1960)



경기도 지사 방문 기념(1960)



최초 신명보육원 설립 허가증(1957)



대통령 하사품 지급 기념(1980)



이동복지시설 체육행사 참가(1980)



성탄절 물품 후원(1990)



신명보육원 설립51주년 기념(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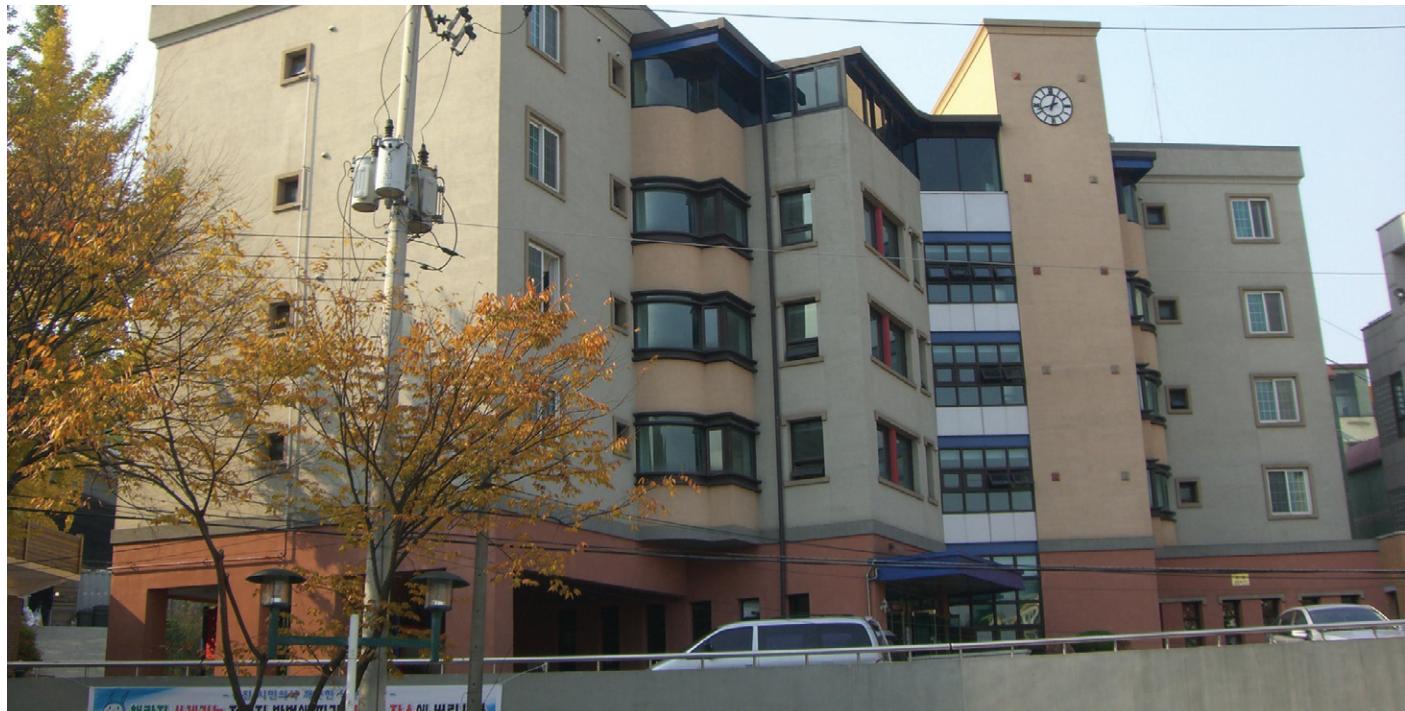
신명요양원 준공 기념(2002)



컴파손 원조 마감 유공자표창(1993)

일현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446번길 50
홈페이지	www.icch.or.kr
전화번호	032-875-2443



| 1950

- 52. 08. 01. 이종만 목사 시설설립(인천시 남구 학익동 377번지)
- 58. 01. 21. 법인설립인가(보건사회부장관), 이종만 1대 대표이사 취임

| 1970

- 77. 08. 학익동 99-1번지로 이전

| 1980

- 81. 05. 12. 이월덕 7대 대표이사 취임
- 84. 09. 28. 인천후원회 발족

법인 계보



| 1990

- 93. 01. 19. 서울후원회 빌족
- 94. 11. 01. 개별후원회 빌족

| 2000

- 01. 03. 10. 사회복지법인 명칭 변경
(사회복지법인 인천보육원 ⇒ 사회복지법인 일현)
- 01. 03. 19.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미추홀어린이집 위탁 운영체결 (남구청/5년)
- 02. 05. 01. 인천보육원 부설 아동상담치료센터 개소
- 02. 06. 05. 김영길 14대 대표이사 취임
- 03. 11. 인천보육원 아동숙사 증축공사 착공
- 04. 06. 푸른마을지역아동센터 신축공사 착공
- 04. 07. 26. 연수구 느티나무 어린이집 위탁 운영체결(2년)
- 05. 02. 24. 인천보육원 아동숙사 및 푸른마을 아동센터 준공
- 05. 04. 19.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 개원(아동상담치료센터 사업 확장)
- 08. 01. 01.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 사설 설치

| 2010

- 10. 01. 01.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체결(3년)
- 10. 03. 01. 미추홀어린이집 재위탁운영 체결(3년)
- 12. 03. 19. 미추홀복지관 재위탁운영 체결(3년)
- 12. 07. 26. 느티나무어린이집 재위탁운영 체결(5년)
- 13. 01. 01.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체결(3년)
- 13. 03. 01. 미추홀어린이집 재위탁운영 체결(3년)

대표이사 이력

[1] 1~6대 대표이사 : 이 종 만(李鍾萬), (1917~2008)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48. 06 서울중앙신학교 졸업
- 1950. 03 서울 그리스도의교회 신학교 졸업

경력

- 1950. 06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 부임
- 1952. 08 인천보육원 설립
- 1954. 04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선교회 이사 취임
- 1959. 08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연합회장 취임
- 1960. 04 운천 영광농곡기술학교 이사장 선임
- 1961. 01 사회사업 인천시연합회 회장 취임
- 1964. 02 인천시 기독교연합회 부회장 취임
- 1965. 04 대한기독교신학교 이사 선임



이 원 덕
7-13대 대표이사(1981-2002)

[2] 7~13대 대표이사 : 이 원 덕(李原德), (194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8. 02 중동중학교 졸업
- 1961. 02 중앙고등학교 졸업



김 영 길
14-18대 대표이사(2002-현재)

③ 14~18대 대표이사 : 김 영 길(金永吉), (1943-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8. 02 용문중학교 졸업
- 1961. 02 선인고등학교 졸업
- 1965. 0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

- 1968. 05 계명원 입사(총무)
- 1980~2013 인천보육원 원장
- 1991~1999 인천시아동복지시설연합회 회장
- 2002~현재 사회복지법인 일현 대표이사
- 2004~2006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상임이사
- 2003~2006 한국아동복지협회 정책위원장
- 2006~2009 한국아동복지협회 수석부회장

상훈

- 2003. 05. 05 국민포장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인천보육원(1981)



인천보육원(1985)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2008)



인천보육원(2002)



인천보육원(2003)

2) 법인사업



인천보육원 아동숙사 증축 기념식(2005)



푸른 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 개관식(2005)



인천보육원 합주단 정기연주회(1999)



김영길 대표이사 국민포장(2003)



인천후원회 후원회사무실 개소(1986)

송암복지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로 29
홈페이지	www.pinetree.or.kr
전화번호	032-515-8808

F A X

032-513-1430



| 1950

- 53. 09. 군산시청 임시수용전쟁고아 및 부랑아 인수 양육시작 (대표이사 김창인 / 원장 이옥순)
- 54. 05. 기독교 아동복지회 가입
- 57. 07. 경기도 인천시 북구 일신동 62번지로 이전
- 58. 01. 재단법인 시온애육원 인가(대표이사 이옥순)

| 1960

- 64. 04. 아동복지시설 인가(경기도지사)

| 1970

- 70. 07. 재단법인 시온원 김득린 대표이사 취임
- 72. 11. 사회복지법인 시온육아원 인가
- 75. 03. 김득린 대표이사 취임

법인 계보



| 1990

| 2000

| 2010

• 98. 08. 살롬에덴어린이집 인가

- 03. 02. 사회복지법인 송암복지재단 변경 인가
- 04. 04. 법인산하 부평장애인복지관 신고
- 06. 11. 법인산하 송암작업활동시설 신고
- 09. 06. 법인산하 송암노인요양원 신고

- 10. 12. 송암작업활동시설 송암보호작업장으로 명칭변경
- 11. 06. 시온육아원 파인트리홈으로 명칭변경

대표이사 이력



이 옥 순
1대 대표이사(1953-1970)

■ 1대 대표이사 : 이 옥 순(李玉筍), Lee Ok Sun(1910.01.03-1975.02.15)

학력(졸업년도 기준)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경력

- 군산시청 사회과장
- 충현교회 권사
- 전국권사협의회장

상훈

- 경기도지사상
- 사회부장관상



김 득 린
2대 대표이사(1970-현재)

■ 2대 대표이사 : 김 득 린(金得麟), Kim Deuk Lin(1936.10.16-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4. 02 대광고등학교 졸업
- 1958. 0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6. 0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95. 02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서대학원 수료
- 2007. 10 숭실대학교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경력

- 복지활동

- 1970~현재 사회복지법인 송암복지재단 대표이사
- 1978~1990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 1988~2002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1990~199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 1991~2002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회장
- 1992~1999 중앙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1993~200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1995~2008 기독교아동복지리회한국연합회 회장
- 1999~2002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2001~2002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
- 2003 한국사회복지유권자연맹 상임고문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 2003~20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2011~현재 복지미래포럼 회장
- **사회활동**
 - 1960 제7대 국회 의원 보좌관(3급 1호봉)
 - 1991.~20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1994.~2000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
 - 2003. 07~2005. 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사회복지위원장) 대통령임명
 - 2003. 10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대통령위촉)
 - 2004. 10 사회복지시설 발전위원회 부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
 - 2005. 02.~2007. 04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상임대표
 - 2007. 04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명예회장
 - 2014. 0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상훈

- 인천광역시 장표창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 법무부장관표창
- 통일원장관표창
- 국무총리표창
- 대통령표창
- 1986. 05 국민포장
- 2002. 05 국민훈장 목련장
- 사회복지대상(2011 사회복지의날)

주요저서/논문

- 2007 「사랑의 바다로, 복지의 나라로!」
- 2010 사회복지종합가이드북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시온육아원



시온육아원



산하기관 살롬 에덴 어린이집



산하기관 송암노인요양원



산하기관 파인트리홈



산하기관 부평장애인 종합복지관

2) 법인사업



프로그램 활동사진(1950)



드라마 자이언트 촬영(2010)



파인트리홈 준공식(2012)



파인트리홈 VS 신명보 육원 친선축구대회(2013)



한일교류 프로그램(2010)



송암복지재단 사무식(2012)

성원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880
홈페이지	sdcenter.or.kr
전화번호	032-522-2984

F A X

032-515-8340



| 1950

- 53. 09. 21. 성동원 개원(인천 중구 도원동 50 번지/설립자 정규순)
- 55. 08. 01. 인천 맹농아학교 설립 개교
- 55. 12. 30. 육아시설 허가
- 56. 10. 16.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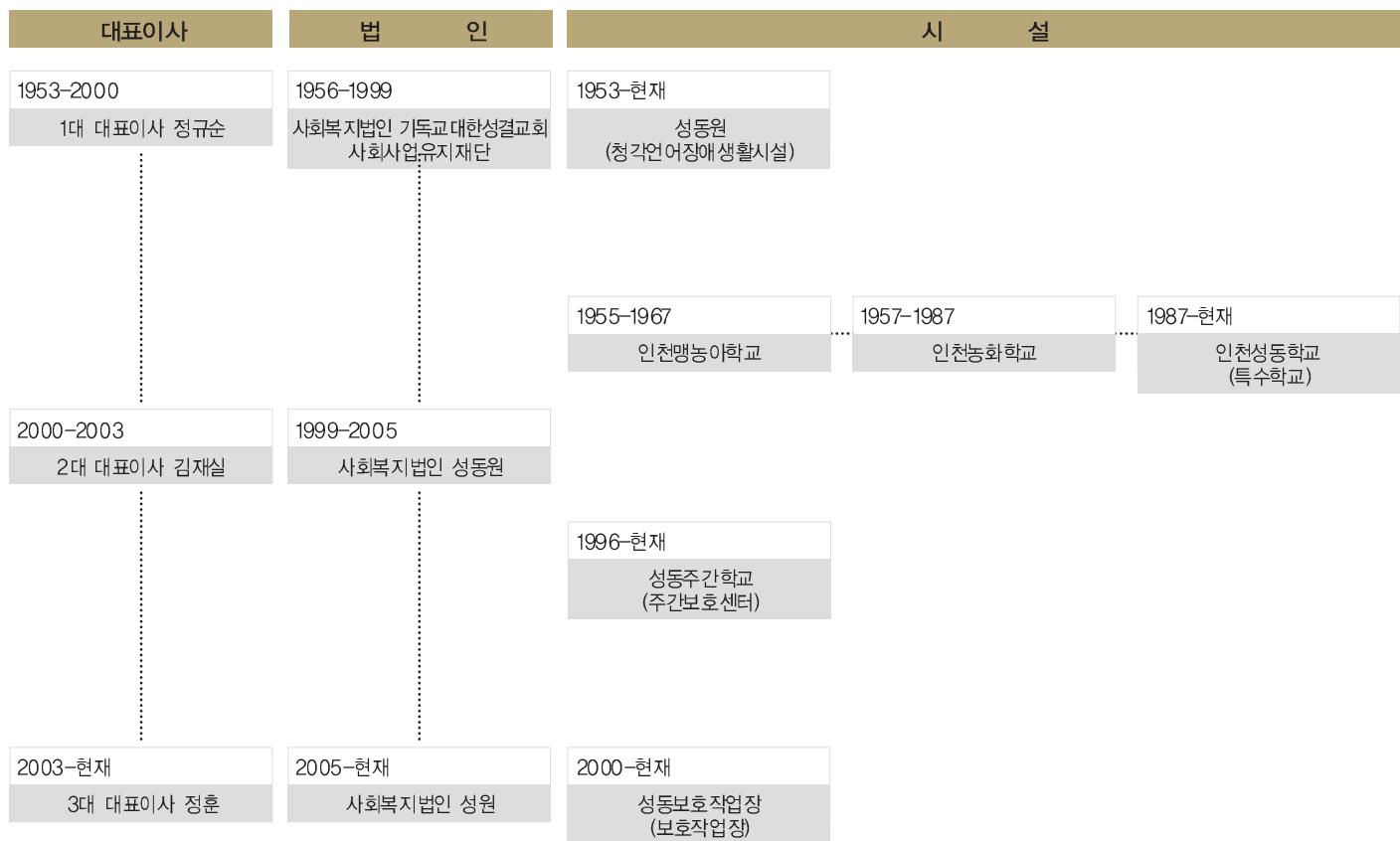
| 1960

- 61. 12. 14. 육아시설에서 청각장애인시설변경
- 67. 05. 12. 인천맹농아학교에서 인천농화학교로 개명

| 1970

- 70. 03. 01. 성동원 부설 직업보도소 목공부 개설
- 70. 11. 07. 성동원 시설 이전
- 77. 01. 01. 직업보도소 양화부, 인쇄부 신설

법인 계보



| 1980

- 81. 07. 08. 종합직업 보도반 신축(226평)
- 87. 05. 01. 인천농화학교에서 인천 성동학교로 개명
- 88. 11. 10. 성동원 제2대 정현 원장 취임
- 88. 03. 29. 자립작업장 신축(250평)

| 1990

- 94. 04. 30. 직업보도부 폐쇄(목공, 인쇄, 양화)
- 96. 10. 01. 주간보호시설 개원(장애인 조기교실)
- 97. 03. 24. 자립작업장 폐업(인쇄)
- 99. 12. 15. 법인명칭 변경(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사회복지법인 성동원)

| 2000

- 00. 07. 09. 법인대표변경(김재실 대표이사 취임)
- 00. 12. 15. 청각언어장애시설 신고(정원50명)
- 00. 12. 22. 성동보호작업장 신고(정원40명)
- 00. 12. 28. 성동주간보호시설 신고(정원21명)
- 03. 04. 16. 법인대표 변경(정훈 대표이사 취임)
- 05. 04. 13. 법인명칭 변경(사회복지법인 성원)

대표이사 이력



정 규 순
1대 대표이사(1953-2000)

■ 1대 대표이사 : 정 규 순(鄭奎淳), Jeong Kyu Sun(1919.05.23-2001.06.24)

학력(졸업년도 기준)

- 평양승인 상업학교
- 중앙신학 대학교 (사회사업, 석사)

경력

- 사회복지법인 성동원 대표이사
- 인천농화학교장

상훈

- 1981. 12. 05 교육부분 대통령상 수상
- 1983. 04. 20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사회부분)



김재실
2대 대표이사(2000-2003)

② 2대 대표이사 : 김 재 실(金在實), Kim Je Sil(1920.01.19~2006.04.10)

경력

- 2000. 07. 09~2003. 04. 16 사회복지법인 성동원 대표이사



정훈
3대 대표이사(2003-현재)

③ 3대 대표이사 : 정 훈(鄭勳), Jeoung Hun(1942.12.13~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60. 02 인천고등학교 졸업
- 1965. 02 경희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

- 1967. 09. 10~1986. 10. 15 인천성동학교 교사
- 1986. 10. 15~2003. 02. 28 인천성동학교 교장
- 2003. 04. 16~현재 사회복지법인 성동원 대표이사

상훈

- 1984. 12. 05 문교부장관 표창
- 1986. 12. 19 인천교육대상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성원(2013)



성동학교(2013)



성동원(2013)



성동보호작업장(2013)

2) 법인사업



요리활동(2014)



시설 자체 체육대회(2014)



하계캠프(2014)



눈썰매장(2015)



이용인 건강검진(2014)



인천문화관광나들이(2014)

광명복지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69번지27
홈페이지	http://jongsori.org
전화번호	032-522-8345

F A X

032-516-2516



| 1950

- 56. 12. 27. 임경삼 목사가 인천시 송월3가 3번지 자택에서 6명의 실명 어린이 양육
- 58. 08. 19. 기독맹아원 설립인가 (초대원장 송보애 취임)

| 1960

- 61. 04. 03. 경기맹학교 설립인가 (초대교장 임경삼 취임)
- 66. 04. 19. 경기맹학교 사증창단 미국, 캐나다 순회 공연(35개주 110일간) 학급증설인가
- 69. 12. 10. 경기맹학교 초등 각 학년 3학급, 중등 각 학년 3학급. 계 27학급

| 1980

- 81. 03. 01. 경기맹학교 교사 준공
- 81. 12. 26. 경기맹학교 2대 교장 김봉산 취임
- 82. 05. 14. 인천혜광학교로 교명 변경
- 83. 05. 01. 법인 설립자 명의 변경 (명선복 이사장 취임)
- 83. 09. 16. 인천혜광학교 3대 교장 오영복 취임
- 85. 12. 09. 인천혜광학교 고등학교 설립인가

법인 계보



| 1990

- 94. 03. 10. 인천혜광학교 4대교장 김정대 취임
- 96. 03. 01. 인천광명원 임남숙 원장 취임 (4대)
- 98. 03. 01. 인천혜광학교 유치부 설립 인가
- 98. 04. 29. 인천혜광학교 5대 교장 명선목 취임

| 2000

- 02. 07. 22. 인천혜광학교 RCY 소록도 봉사활동 개시
- 04. 04. 06.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으로 법인명 변경
- 04. 05. 01. 인천장애인복지관 및 해내기보호작 ~09. 05. 01. 입장 위탁운영
- 08. 11. 01. 인천장애인복지관 전국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08. 03. 01. 인천혜광학교 이료전공과 설립인가

| 2010

- 10. 01. 01. 장애인재활시설 아이드림 개원
- 10. 12. 07. 인천광명원 2010년 전국장애인생활시설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10. 12. 16. 인천광명원 사회복지자원봉사 우수관리 센터 선정
- 12. 04. 30. 아이드림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지정
- 14. 03. 04. 인천광명원 전국장애인거주시실평가 최우수기관 선정(2회연속, 보건복지부·한사협)
- 14. 04. 30. 인천혜광학교 신문 -눈빛- 창간호 발행

대표이사 이력



임 경 삼
1대 대표이사(1956-1983)

■ 1대 대표이사 : 임 경 삼(林敬三), Lim Kyung Sam (1919.01.26-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34. 03 평남오신보통학교 졸업
- 1939. 03 함흥 영생중학교 졸업
- 1961. 03 중앙신학교 사회사업과 졸업

경력

- 1939. 04 유동초등학교 교사
- 1942. 04 평양보린원 서무
- 1945. 08 진남포제련소 사무원
- 1948. 03 초리초등학교 교사
- 1953. 08 인천동양철공소 경영
- 1954. 10 해운보육원 총무
- 1956. 12 재단법인 인천광명원 창설 이사장에 피선
- 1961. 04 경기맹학교 교장 취임
- 1961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위원 위촉
- 1962 특수교육교과과정 제정위원 위촉
- 1966 경기맹학교 사중창단 미국, 캐나다 순회공연 인솔
- 1979 미국 이주



명 선 목
2·4대 대표이사(1983-1997)

■ 2대 대표이사 : 명 선 목(明善牧), Myung Sun Mok(1947.08.13-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9. 02 창영초등학교 졸업
- 1962. 02 동산중학교 졸업
- 1968. 02 선인고등학교 졸업
- 1974. 02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1985. 08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2010. 01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

- 1974~1979 대건중학교 교사
- 1979~1982 경일실업고등학교 교사
- 1982~1986 영진상업고등학교 교사
- 1991~현재 사회복지법인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 1998~현재 인천혜광학교 교장
- 2002~2012 전국사립특수학교협의회 회장
- 2002~2012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2005~2013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자문위원장
- 2007~2010 인천특수교육연합회 회장
- 2007~현재 인천장애인체육회 이사
- 2011~현재 인천혜광 Biind Orchestra 단장
- 2013~현재 인천인성교육법국민실천연합 이사
- 2014~현재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주요저서/논문

- 우리나라 중등교사의 수행 책무부담에 관한 조사 연구(1983)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2010)

상훈

- 2010. 02. 24 특수체육 공로 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 2012. 12. 28 제31회 인천교육대상(유아교육 및 특수교육)부문 표창



임 남 숙
3대 대표이사(1997-2001)

③ 3대 대표이사 : 임 남 숙(林南淑), Lim Nam Suk(1954.07.07-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2. 02 송의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6. 02 숭실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 2001. 08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경력

- 1977. 05. 14 인천혜광학교(경기맹학교) 교사
- 1984. 06. 11 인천광명원장
- 1997. 10. 22 사회복지법인광명학원 대표이사
- 2001. 11. 13. 인천광명원장
- 2004. 01 인천광역시장애인시설협회장

주요저서/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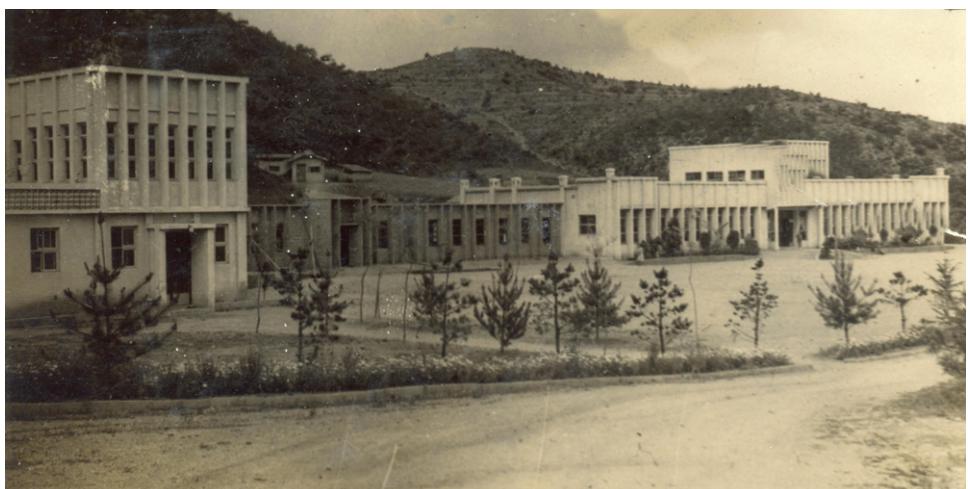
- 2001 시각장애학교 중등 교사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송월동 3가 설립당시 모습



화제로 소실된 옛건물(1979)



완공된 본관(1981)



현재모습

2) 법인사업



혜광학교 초등부 제1회 졸업사진(1961)



혜광학교 중학부 25회 졸업사진(1988)



혜광학교 지역사회 안마봉사(1995)



광명복지재단 구호 “나는 할 수 있다”



광명원 햇살한줌 바자회(2008)



혜광학교 교직원 태안기름 유출 지원봉사(2008)

초도원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739번길 19로		
홈페이지	www.chodo.net		
전화번호	032-461-3777	F A X	032-463-7773



| 1950

- 57. 03. 초도보육원 대표이사 김두희 취임
- 57. 03. 28. 사회복지법인 초도원 설립인가

| 1970

- 77. 01. 28. 간식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인가

| 1980

- 82. 02. 28. 간식 새마을 유아원 명칭 변경

법인 계보



1990	2000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 10. 10. 남부어린이집 명칭변경 보육시설 인가 • 93. 12. 27. 공립 남동어린이집 위탁운영(1회) • 94. 11. 01. 남부어린이집 야간탁아 시범운영 인가 • 96. 12. 27. 공립 남동어린이집 재위탁 운영(2회) • 97. 12. 27. 공립 남동어린이집 재위탁 운영(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 05. 22. 초도노인요양원 건축허가 • 02. 08. 02. 초도노인요양원 기공식 • 03. 02. 26. 초도원 2대 대표이사 김 동완 취임 • 03. 06. 23. 초도노인요양원 시설 허가 • 03. 06. 24. 초도노인요양원 개원식 • 04. 02. 공립 남동어린이집 재위탁 운영(4회) • 05. 08. 초도노인요양원 다목적실 준공 • 06. 02. 공립 남동어린이집 재위탁 운영(5회) • 08. 02. 공립 남동어린이집 재위탁 운영(6회) • 08. 07. 초도재가센터 개원(병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02. 초도노인요양원 증축(72명)설치 허가 • 10. 12. 공립 남동어린이집 재위탁 운영(7회) • 12. 06. 남부어린이집 한남운 원장 퇴임 • 12. 07. 남부어린이집 원장 취임(최선미)

대표이사 이력



김 두 희
1대 대표이사(1957-2003)



김 동 완
2대 대표이사(2003-현재)

[1] 1대 대표이사 : 김 두 희(金斗熙), Kim Doo Hee(1928-2004)

[2] 2대 대표이사 : 김 동 완(金東玩), Kim Dong Wan(1964-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91.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경력

- 1991. 01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입사.
- 1992. 12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퇴사.
- 1993. 01 사랑의 전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입사(간사).
- 1995. 03 사랑의 전화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퇴사(과장).
- 1995. 04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입사(부장).
- 2003. 02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퇴사(부장).
- 2003. 02 사회복지법인 초도원 2대 대표이사 취임.
- 2003. 06 초도노인요양원 원장.
- 1997. (前)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 위원.
- 2003. 08 (前)인천 남동구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위원.
- 2003. 09 (現)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 2003. 12 (現)인천 경실련 집행위원.
- 2004. 12 (現)인천광역시 노인학대예방 센터 사례판정위원.
- 2004. (前)성산효도대학교 캐어복지 겸임 교수.
- 2005. 05 (前)인천 성리초등학교 학교사회사업 학부모 지원단장.
- 2005. 05 (前)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2007. 08 (現)남동구청 지역사회복지 대표 협의체 위원.
- 2007. 10 (現)남동구청 긴급복지 상임위원회 위원.
- 2008. 01 (現)인천광역시 배구협회 감사.
- 2008. 02 (前)금곡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 2008. 02 (前)서구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 2011. 03 (現)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 2011. 04 (現)이야기원격평생교육원 운영교수.
- 2012. (現)만수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위원.

상훈

- 2010. 06 대한노인회 인천남동지회 자문위원 표창
- 2010. 10 인천광역시장 표창.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초도보육원(1957)



초도노인요양원(2003)



남부어린이집(1682)

2)법인사업



보육원아동들 나들이(1956)



주한미군 위문 결연(1957)



주한미군 위문(1957)



보육원 아동들 나들이(1963)



보육원 아동들 졸업식(1965)



주한미군 보육원 시설보수(1969)

대원복지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329번길 32
홈페이지	http://www.hyangjin.net
전화번호	032-875-5607

F A X

032-876-5804



| 1950

- 57. 04. 23. 재단법인 향진원 설립. 초대 송성준 원장 취임
- 57. 08. 20. 법인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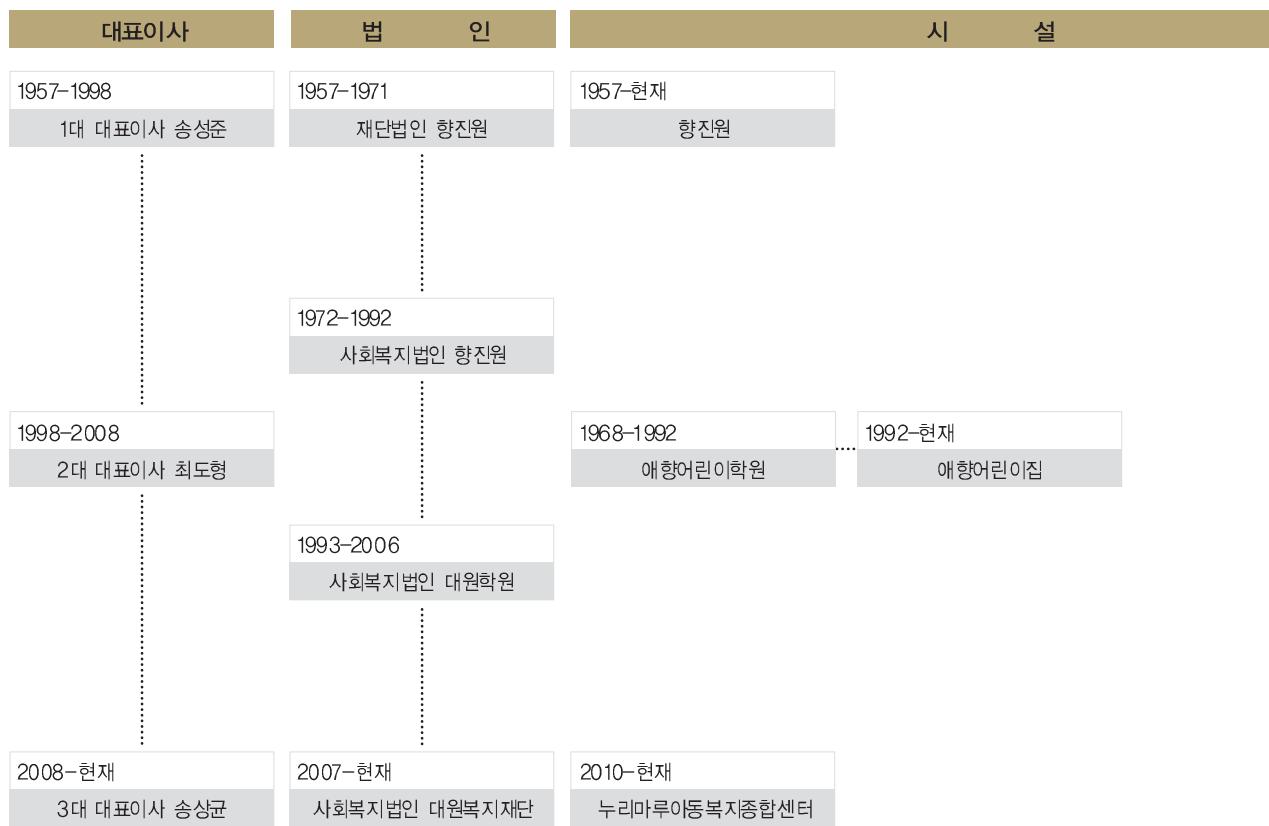
| 1960

- 67. 10. 10. 아동복리시설 수용정원 인가(100명)
- 67. 11. 02. 정관변경 및 탁아소설립(후생시설→ 육아시설, 탁아시설 삽입)
- 68. 02. 23. 애향어린이학원 개원

| 1970

- 75. 03. 05. 컴패션 가정복지사업 인천지부 설립

법인 계보



| 1980

- 85. 05. 05.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송성준 원장)
- 85. 12. 27. 사무실 등(사무실, 강당 외) 410.09m² 완공
- 88. 12. 04. 생활관 등(지하, 식당, 도서실, 예술실) 566.19m² 완공

| 1990

- 92. 03. 25. 애향어린이집 265.2m² 증축(국고 지원)
- 92. 09. 22. 아동숙소 190.08m² 증축
- 94. 08. 01. 향진원 제2대 송상균 원장 취임
- 98. 03. 02. 애향어린이집 제2대 장명숙 원장 취임
- 98. 06. 04. 대원학원 제2대 최도형 대표이사 취임
- 99. 09. 11. 향진원 원회 창립총회(후 원회장 한창원 선출)

| 2000

- 04. 01. 02. 24시, 특수연장형 보육시설 지정(애향어린이집)
- 07. 10. 22. 정관변경(법인명칭변경: 대원학원 → 대원복지재단)
- 08. 12. 17. 대원복지재단 제3대 송상균 대표이사 취임
- 10. 05. 05. 대통령 표창(한창원 후 원회장)
- 10. 10. 20. 향진원 숙소 준공식 및 누리마루 아동복지종합센터 개원
- 11. 02. 15. 향진원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아동시설 선정

대표이사 이력



송성준
1대 대표이사(1957~1998)

■ 1대 대표이사 : 송 성 준(宋成俊), Song Seong Jun(1917.06.20~2001.01.26)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33. 03 평양 고등 보통학교 졸업
- 1941. 03 평양 신학학교 졸업
- 1955. 03 서울 감리교 신학과 수료
- 1961. 04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경력

- 1941~1945 연백군 농회 서기
- 1946~1952 연백수리조합
- 1953~1994 사회복지법인 향진원 원장
- 1961~1965 인천직할시 사회복지시설장 동우회 초대 회장
- 1975~1997 김파순 가정복지사업 한국시설연합회장 및 인천지부장
- 1977~1981 인천아동복지시설 연합회장
- 1983~1987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부회장
- 1957~1998 사회복지법인 대원학원 대표이사

상훈

- 1977. 09. 30 김파순 표창장
- 1985. 05. 05 대통령 국민훈장 석류장



최도형
2대 대표이사(1998~2008)

■ 2대 대표이사 : 최 도 형(崔度亨), Choe Do Hyeong(1954.03.25~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8. 02 인하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1980. 07 순복음신학교 신학과 졸업
- 1987. 02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1996. 05 미국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목회신학박사

경력

- 1998~2008 사회복지법인 대원복지재단 이사장
- 1994~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1994~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강남지방회장

주요저서/논문

- 2005. 04. 30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15가지 (엘맨)
- 2008. 05. 05 내 아이를 위한 31일 기도 (태인문화사)
- 2010. 04. 05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태인문화사)



송상균
3대 대표이사(2008~현재)

[3] 3대 대표이사/대표자 : 송 상 균(宋相均), Song Sang Gyun(1946.11.08-현재)**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9. 02 학익국민학교
- 1962. 02 성광중학교
- 1965. 02 송도고등학교 졸업
- 1973. 02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경력

- 1971. 06. 01~1974. 12. 30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아동복지회 춘천분실
- 1975. 01. 05~1987. 01. 05 사회복지법인 컴패션 가정복지 인천지부
- 1975. 01. 05~1994. 07. 30 사회복지법인 향진원 부원장
- 2000. 01. 01~2008. 12. 31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연합회장
- 1994. 08. 01~현재 사회복지법인 향진원 원장

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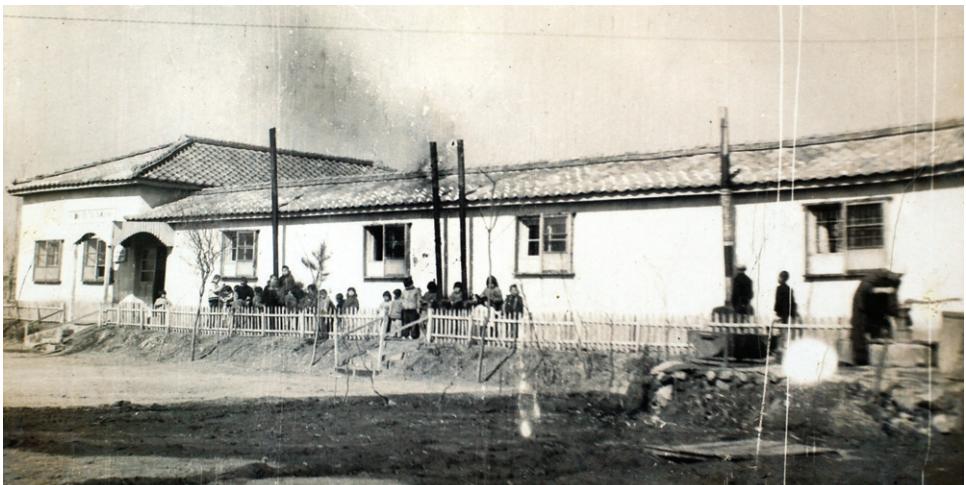
- 1999. 05. 22 보건복지부 장관상
- 2006. 05. 05 대통령 국민포장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향진원(1950)



향진원(1960)



누리마루아동복지종합센터(2013)



애항어린이집(2013)



향진원(1990)



향진원(2000)

2) 법인사업



향진원 놀이터 완공(1957)



향진원 야외활동(1962)



향진원 준공식(2010)



선생님 초대행사(2012)



인천 시설아동 체육대회(1975)



송성준 이사장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1985)

인천다비다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68
홈페이지	www.ms1957.com
전화번호	032-817-2070

F A X

032-818-0011



| 1950

- 57. 12. 12. 법인설립허가
- 57~73. 모자시설 운영(중구 송학동)

| 1970

- 74~76. 휴지
- 77~83. 탁아시설 운영(중구 송학동)

| 1980

- 83~91. 정신요양시설 운영(남구 주안동, 동춘동)
- 87. 03. 06. 윤호중 대표이사 취임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	1957-현재 사회복지법인 인천다비다원	1957-1973 모자시설
1대 대표이사		1977-1983 탁아시설
1975-1984		1983-1991 정신요양시설
2대 대표이사 이기혁		1991-2014 명심원 (중증장애인생활시설)
1984-1987		2001-현재 동심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3대 대표이사 주인정		2007-현재 주인해피타운 (노인요양시설)
1987-2008		2012-현재 주안노인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4대 대표이사 윤호중		2013-현재 강화실버빌 (노인요양시설)
2008-2011		
5대 대표이사 장순분		
2011-현재		
6대 대표이사 윤옥선		

| 1990

- 91. 06. 08.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명심원 개원

| 2000

- 01. 02. 06. 장애영유아시설 동심원 개원
- 07. 12. 05. 노인요양시설 주인해피타운개원
- 08. 11. 25. 장순분 대표이사 취임

| 2010

- 11. 03. 01. 윤옥선 대표이사 취임
- 12. 01. 11. 주안노인복지센터 개원(방문요양, 주야간, 단기)
- 13. 03. 19. 노인요양시설 강화실버빌 개원
- 14. 02. 01. 기관명칭변경(명심원→밝은마음)

대표이사 이력

[1] 1대 대표이사 : 확인불가

[2] 2대 대표이사 : 이기혁(李基赫), (1898-타계)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03. 03 평양신학교 졸업
- 1917. 03 평북 선천 신성중 졸업

경력

- 1917. 04 평북 선천 명신국민학교 교사
- 1935. 03 평북 용암포 구세학교 설립 동기 이사장 취임
- 1947. 09 인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취임
- 1975. 08. 20 인천다비다원 대표이사 취임

[3] 3대 대표이사 : 주 인 정(周寅楨), (1939-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68. 02 한국외국어대학 졸
- 1965. 02 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 1978. 미국 휘튼대학 대학원(목회학)

경력

- 1984. 08. 20 인천다비다원 대표이사 취임

[4] 4대 대표이사 : 윤 호 중(尹虎重), Yun Ho Jung(1934-2008)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8. 03 서울중앙신학교 신학부 졸업
- 1968. 03 서울중앙신학교 사회사업학부 졸업
- 1992. 08 인하대학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

- 1963. 04~1968. 08 인천시 아동복지 지도원
- 1968. 08~1987. 09 캐나다 유니테리안 한국봉사회(인천, 목포, 영등포사회복지관 관장)
- 1978. 08 인천다비다원 이사취임
- 1991. 08~1999. 02 명심원 원장
- 1999. 03~2001. 02 연수구노인복지회관 관장
- 1987. 03 인천다비다원 대표이사 취임



윤호중
4대 대표이사(1987-2008)



장순분
5대 대표이사(2008~2011)

⑤ 5대 대표이사 : 장 순 분(張順分), Jang Sun Bun(1938~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8. 03 신광여자고등학교 졸업
- 1960. 07 서울중앙신학교 중퇴

경력

- 1970. 06~1975. 02 성자어린이집 원장
- 1975. 03~1978. 02 인천주안어린이집 원장
- 1978. 03~1991. 12 인천다비다어린이집 원장
- 1992. 01~1995. 03 명심원 원장
- 1995. 04~1998. 06 가화원 원장
- 1998. 07~2001. 01 명심원 원장
- 2001. 02~2011. 03 동심원 원장
- 2008. 11. 25~2011. 02. 28 인천다비다원 대표이사



윤옥선
6대 대표이사(2011~현재)

⑥ 6대 대표이사 : 윤 옥 선(尹玉善), Yun Ok Seon(196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1. 02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1985. 02 연세대학교 졸업
- 1989. 06 비엔나 Stadt Conservatorium 수료
- 1992. 12 네델란드 Rotterdam's Conservatorium 졸업
- 1998. 02 강남대학교 대학원(석사) 졸업

경력

- 1997. 12. 27~2003. 04. 16 명심원장
- 2009. 08. 01~2011. 02. 28 동심원 재직
- 2011. 03. 01~2014. 11. 30 밝은마음(구 명심원)원장
- 2011. 03. 01~현재 인천다비다원 대표이사

주요저서/논문

- 사회보험에서의 장애등급판정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인천다비다원 동춘동 시작(1988)



인천다비다원 동춘동(1989)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밝은마음(2013)



장애인영유아 중심원(2013)



노인요양시설 강화실버빌(2013)

2) 법인사업



주안해피타운 개원식(2007)



주안해피타운 성탄행사 연극공연(2010)



후원자 및 봉사자 초청동행 감사잔치(2014)



밝은마음 인방사 자원봉사(2014)



2014 강화실버빌 희망나눔 송년회(2014)



알콩달콩 동심원 준공 및 입주 감사잔치(2012)

손과손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87
홈페이지	www.yerim.or.kr
전화번호	032-525-6043

F A X

032-525-6044



| 1980

- 82. 02. 01. 장영순 대표이사 취임
- 82. 02. 01. 승희학교 1,2학급 증설
- 82. 12. 30. 식당 60평 신축, 기숙사 전면 재보수
- 83. 02. 22. 사회복지법인 우리보육원을 예림원, 승희학교를 인천예림학교로 명칭변경
- 84. 08. 30. 예림원 작업치료실 60평 증축
- 84. 08. 30. 예림원 생활관 300평 증축
- 84. 10. 30. 인천예림학교 중학부 6학급 인가
- 86. 03. 08. 인천예림학교 유치부 인가
- 87. 12. 30. 예림원 생활관 459.97m² 증축
- 87. 12. 30. 예림원 자립작업장 330.58m² 신축, 강당 200m² 증축
- 89. 11. 30. 예림원 생활관 및 자립작업장 1,058.93m² 증축

| 1990

- 91. 08. 24. 예림원 식당 330m² 개축
- 93. 11. 24. 예림원 기숙사 1,458.8m² 증개축
- 96. 12. 01. 인천예림학교 고등부 인가
- 97. 02. 25. 인천예림학교 교육실 174.95m² 증축
- 97. 08. 01. 지역사회이용시설 공동생활가정 제1호 설치
- 98. 09. 21. 사회복지법인 예림원을 손과손으로 명칭변경
- 98. 10. 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핸인핸 인가
- 98. 12. 30. 핸인핸 증건축
- 99. 10. 28. 핸인핸을 근로시설로 변경

법인 계보



- 01. 07. 21. 공동생활가정 제2호 설치
- 02. 03. 08. 공동생활가정 제3호 설치
- 02. 09. 13.장애인직입재활시설 예림작업활동시설 신고
- 03. 02. 28. 공동생활가정 제4호 설치
- 03. 03. 11. 예림작업활동시설을 예림일터로 명칭 변경
- 03. 03. 31. 공동생활가정 제5호 설치
- 03. 08. 16. 인천예림학교 강당 621.9m² 및 외벽공사 증축
- 04. 02. 27. 공동생활가정 제6호 설치
- 06. 01. 04. 인천예림학교 직보실 및 주차타워 증개축
- 06. 12. 31. 공동가정 제5호 자립가정으로 전환
- 07. 10. 29. 핸인핸 사회적기업 인증
- 09. 03. 24. 핸인핸 카트리지사업부 빌족
- 09. 06. 08. 예림원 생활관 2층 증축
- 09. 11. 02. 인천예림학교 전공과 2학급 인가

- 10. 02. 08. 예림원 체험홈 2개소 설치 (부개동)
- 11. 01. 25. 예림일터 주안동으로 이전
- 11. 06. 15. 법인 송림동에 토지 991.9m² 및 건물 1,126.8m² 구입
- 11. 10. 25. 핸인핸 송림동 486m² 증축
- 12. 01. 01. 핸인핸 치솔사업부 송림동으로 이전
- 12. 02. 02. 예림원 체험홈 3개소 설치 (만수동)
- 12. 05. 21. 예림원 식당동 80.63m² 증개축
- 13. 03. 04. 인천예림학교 제5대 노회원 교장취임(현)
- 13. 04. 01. 예림원 손소회 원장 취임(현)
- 13. 12. 24. 핸인핸 승강기 설치

대표이사 이력



장 영 순
1대 대표이사(1982-현재)

■ 1대 대표이사 : 장 영 순(張永順), Chan Young Soon(1938-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8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3. 02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

- 1982~현재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취임
- 1983~1999 장애인생활시설 예림원 원장
- 1990~199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
- 1989~1996 대한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인천직할시지부장
- 1996~1999 한국장애인생활시설 인천직할시지부장
- 2000~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핸인핸 원장
- 2006~현재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상훈

- 1983 인천광역시장상 수상
- 1987. 04. 20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1988. 04. 21 대한정신지체인애호협회 애호대상 수상
- 1989. 04. 20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2004. 09. 07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장수상
- 2009. 09. 0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 2011. 09. 07 대한민국 국민포장 수상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손과손(2013)



예림원(2013)



한인한(2013)



인천예림학교(20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인한 개원 및 준공(1999)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이해원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자립작업장 현판식(1986)



메그미엔후산센터 자매결연단 방문(1991)

2) 법인사업



일본 메그미후생센터 국제교류 20주년 기념방문(2008)



제12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2011)



법인설립 30주년 기념식(2012)

명성복지회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17
홈페이지	www.gywel.or.kr
전화번호	032-552-9090

F A X

032-552-9092



| 1960

- 64. 12. 05. 재단법인 명성원 설립허가 (보사 제 682호)
- 65. 02. 01. 혼혈아 육아시설 명성원 시설인가
- 65. 02. 01. 초대 법인 대표이사 안봉근 취임
초대 시설 원장에 안봉근 취임
- 65. 11. 26. 제2대 법인 대표이사 김진원 취임
제2대 시설 대표이사 이말가리다 취임
- 67. 03. 05. 혼혈아동의 미국입양 목적의 명성
한국고전무용단 빌족

| 1970

- 71. 10. 01. 만 3년간에 혼혈고아 175명 미국,
호주, 프랑스로 입양
- 72. 04. 12. 정관 변경. 혼혈아 육아시설을 연장
고아 직업훈련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원으로 목적 변경
- 72. 05. 27. 직업보도 시설 명성직업훈련원 자
동차과 인가 (부아64호)
- 72. 09. 01. 직업보도원생 53명을 수용 직업훈
련을 개시
- 72. 12. 13.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소 인가 (노조
201호)
- 73. 12. 21. 제1기 44명 수료 (자동차과)
- 77. 01. 28.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로 명칭
변경

| 1980

- 81. 01. 18. 제3대 법인 대표이사 이말가리다 취임
제3대 명성원 원장 김광용 취임
- 85. 05. 25. 명성영아원 설립허가
- 86. 09. 30. 인천북공업고등학교 설립 (전 인천
북제일학교)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1964~1965 1대 대표이사 안봉근	1964~1976 재단법인 명성원	1964~1972 명성원(훈열아육아시설) 1972~1993 직업보도원(명성직업훈련원)
1965~1981 2대 대표이사 김진원		1985~1991 명성영아원 1986~1999 인천북공업고등학교 1997~현재 계양종합사회복지관
1981~1990 3대 대표이사 이밀가리다		1999~현재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999~현재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1990~현재 4대 대표이사 김광용	1977~현재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2006~현재 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2007~현재 계양노인전문요양원

| 1990

- 91. 06. 30. 명성영아원 폐원
- 93. 09. 20. 명성직업훈련원 휴지 신고처리
- 90. 07. 12. 제4대 법인 대표이사 김광용 취임
- 97. 08. 20.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복지사업 및 사회교육사업 시작
- 99. 02. 15. 인천북공업고등학교 폐교
- 99. 06. 04. 계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요양보호사 파견사업) 개원
- 99. 09. 01.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소

| 2000

- 06. 08. 31. 계양푸른솔지역아동센터 신고 설치
- 07. 01. 04. 계양노인전문요양원 개원
- 07. 09. 0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노인아쿠아치료교실 시작
- 09. 06. 24. 꿈꾸는세상 아동학습멘토링사업 청년사업단 실시

대표이사 이력



김 진 원
2대 대표이사(1965-1981)



이 말 가 리 다
3대 대표이사(1981-1990)



김 광 용
4대 대표이사(1990-현재)

① 1대 대표이사 : 안 봉 근

② 2대 대표이사 : 김 진 원(金鎮元), Kim Jin Won(1924-2014)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43 인천북상업학교 졸업

경력

- 1943~1963 인천시청 근무
- 1965. 11. 26~1981. 01. 07 명성원 대표이사

③ 3대 대표이사 : 이말가리다(李末加利多), Lee Margallita(1930-1997)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46 박문여자중학교 졸업

경력

- 1965. 11. 26~1981. 01. 07 명성원 원장
- 1981. 01. 08~1990. 07. 11 명성복지회 대표이사

④ 4대 대표이사 : 김 광 용(金光溶), Kim Kwang Yong(1949-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90. 08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 석사)
- 2008. 02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

- 1973. 09 사회복지법인 명성복지회 명성직업훈련원 총무
- 1984. 03 명성직업훈련원 원장
- 1990. 07 명성복지회 이사장 취임
- 1995. 03 인천북공업고등학교 교장
- 2007. 01 계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 2007. 02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상임이사
- 2012. 02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12. 02 인천광역시아기낳기좋은세상본부 운영위원
- 2012. 02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 2012. 02 계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 2012. 02 인천광역시의료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 2012. 02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 2014. 01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상훈

- 2012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주요저서/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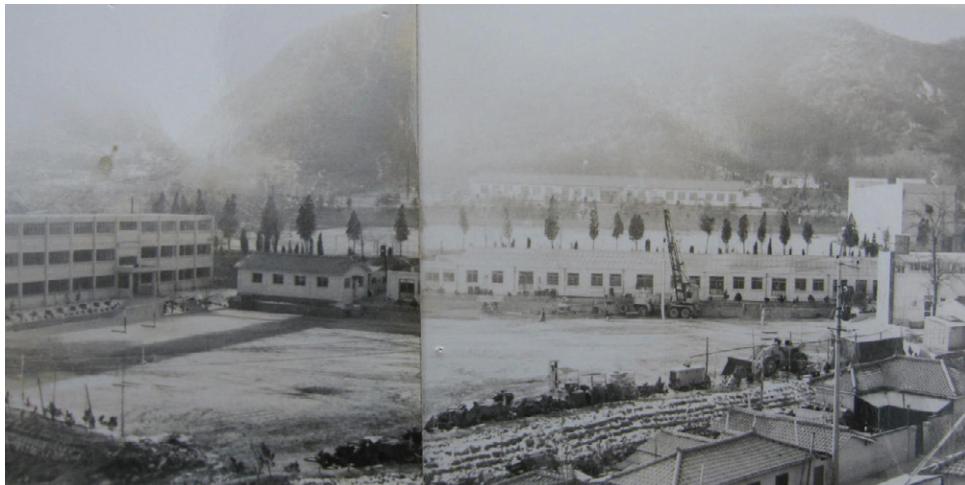
- 1990. 07 ME기술혁신이 노동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 석사논문)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명성원(1964)



명성원(1975)



계양종합사회복지관(1997)



계양전문노인요양원(2007)



명성원 전경(1988)



인천북공업고등학교(1992)

2) 법인사업



훈혈아 육아시설 명성원(1969)



명성원(1969)



인천북공업고등학교 실습실(1986)



계양 송년의 밤(2008)



미8군 클럽과 함께(1976)



인천북공업고등학교(1985)

서천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32번길 22
홈페이지	www.eunhye.or.kr
전화번호	032-562-5101



| 1960

- 68. 09. 02. 인천광역시 남구 옥련동에서 부랑 인 수용시설로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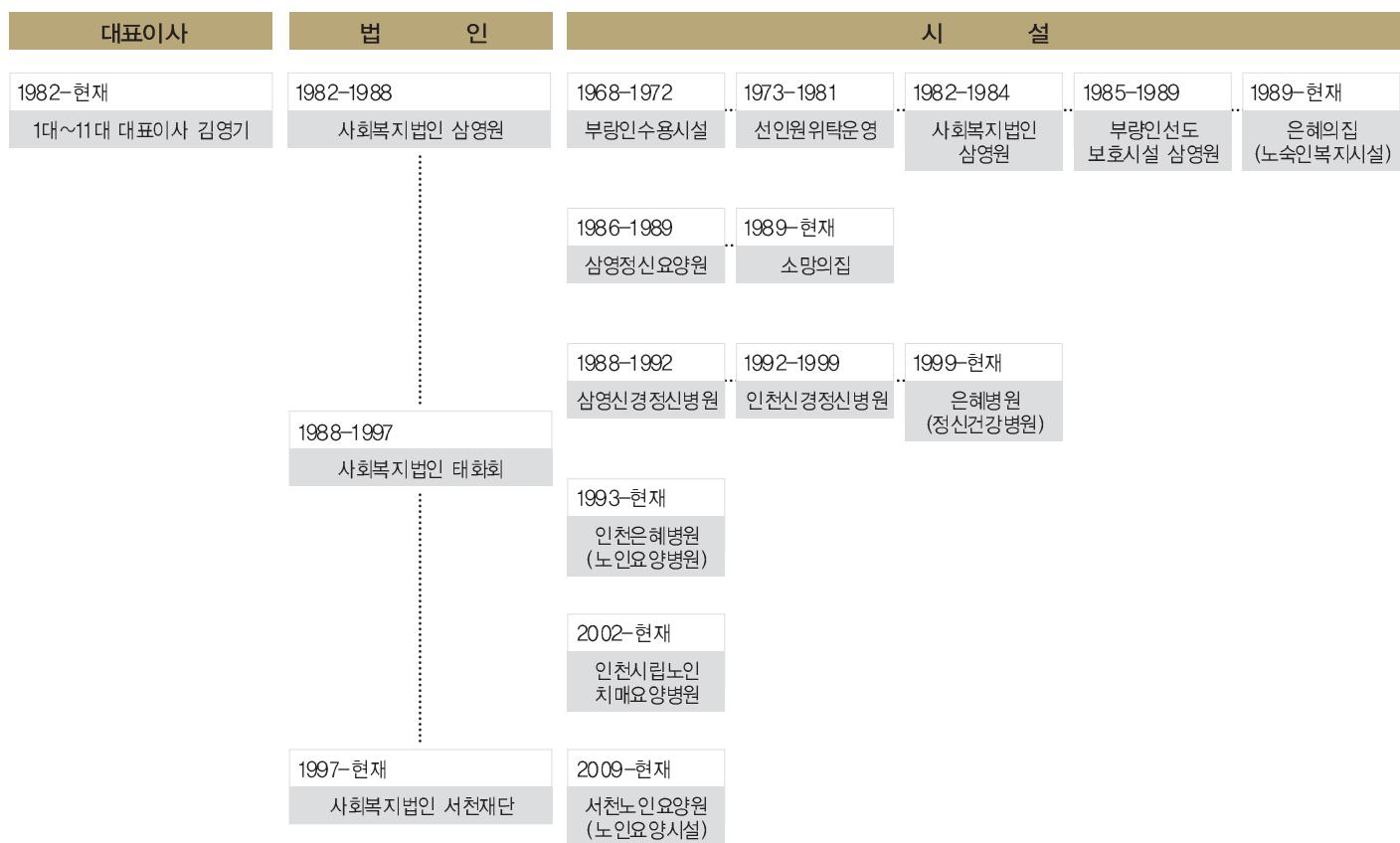
| 1970

- 71. 08. 08. 인천광역시 남구 옥련동에서 구월동 산1-14로 시설이전.
- 73. 01. 10. 인천시립 선인원 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시작.

| 1980

- 82. 09. 25. 사회복지법인 삼영원 인가.
- 85. 11. 06. 부랑인선도 보호시설 삼영원 시설 허가.
- 86. 04. 17. 삼영정신요양원 시설 허가.
- 86. 01.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동 산1-4에서 서구 심곡동 산27-2번지로 이전.
- 88. 04. 16. 삼영신경정신병원 개원.
- 88. 12. 19. 법인명칭 변경 – 사회복지법인 태화회.
- 89. 03. 10. 삼영정신요양원 명칭 변경→소망의집 (정신요양시설)
- 89. 03. 16. 삼영원 명칭 변경→은혜의집 (노숙인복지시설)

법인 계보



| 1990

| 2000

- 92. 08. 22 삼영신경정신병원 명칭 변경→인천신경정신병원.
- 93. 07. 30. 인천은혜병원 개원 (노인요양병원)
- 97. 03. 15. 법인명칭 변경 – 사회복지법인 서천재단.
- 99. 08. 05. 인천신경정신병원 명칭 변경→은혜병원 (정신건강병원)

- 02. 07. 18.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개원
- 09. 09. 14. 서천노인요양원 (노인요양시설) 개원

대표이사 이력



윤화선
초대원장(1968-1972)



김영기
1대 대표이사(1982-현재)

① 초대원장 : 윤 화 선(尹華善), (1913-1972)

② 1대 대표이사 : 김 영 기(金榮起), Kim Young ki(1936-2013)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7 춘천고등학교
- 1961 고려대학교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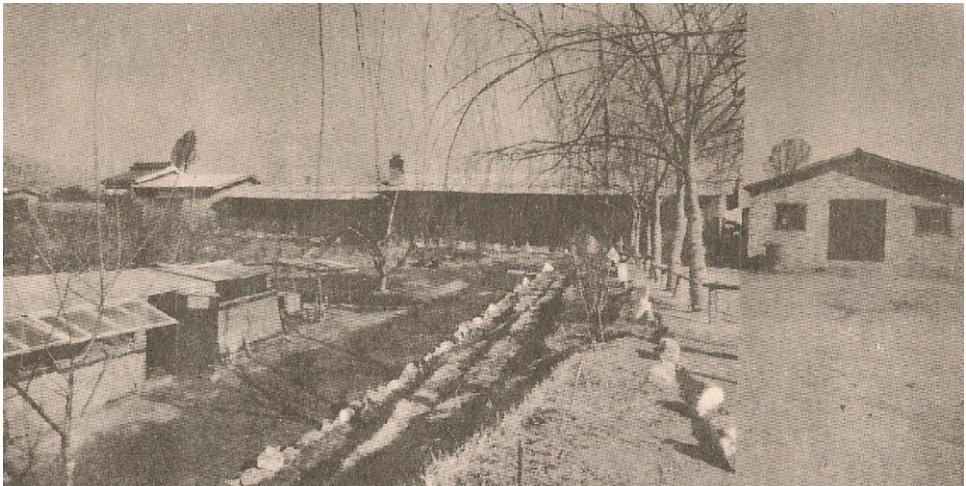
- 1987~1989, 1991~1996 사단법인 한국부랑인 · 아복지시 설연합회
(현)한국노숙인복지시설연합회 (2·3·4대)
- 1987 사단법인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의원 겸 이사

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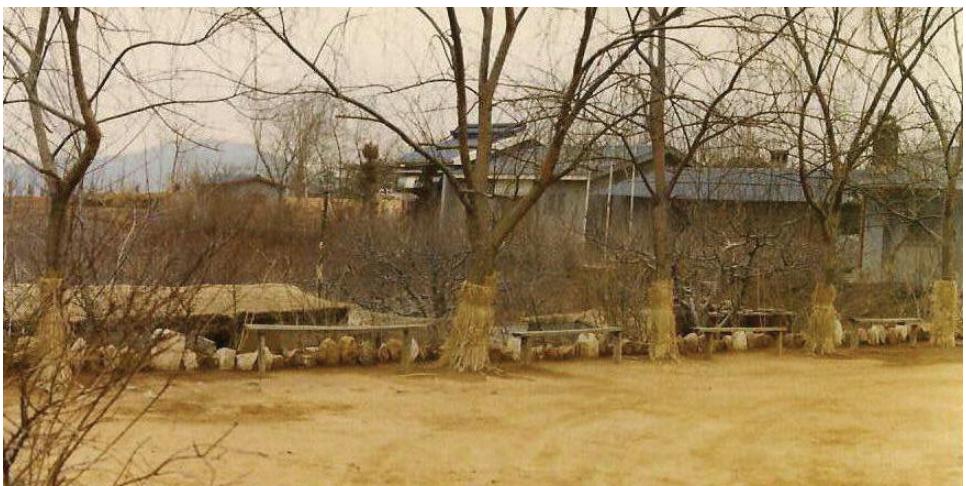
- 1978 인천시장 표창
- 1978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장 표창
- 1981 인천시장 표창
- 1981 대통령 표창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부랑인수용시설(1971)



선인원(1980)



은혜의집(2000)



소망의집(1986)



서천재단(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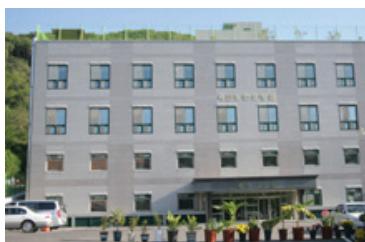
은혜의집(1989)



은혜병원(1992)



인천은혜병원(1993)



소망의집(2008)



서천노인요양원(2009)



은혜 병원(2009)



인천시립노인치매요양원(2002)

2) 법인사업



시설생활인 합동 결혼식(1970)



시설생활인 지역사회봉사—농가돕기(1970)



한국부랑인복 지시설 회장기 체육대회-2위(1985)



직원해외연수—일본사회복지법인(1990)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1996)



태화 대 봉사상 제정(1989)

용신원

주 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청솔로 51 (443-19)
홈페이지	http://www.yoongsin.org
전화번호	032-833-1468

F A X

032-833-0393



| 1960

- 67. 12. 01. 인천 남구 주안동 69-35 대지 70 평동 소69-33 전 22평 매입
- 68. 05. 21. 월사 32.24평 완공
- 68. 12. 19. 보건사회부로부터 재단법인 인천용애 모자원(대표이사 : 유창복) 설립허가
- 68. 12. 25. 인천시 주안동 개원 (원장 : 유창복)
- 69. 09. 15. 월사 32.24평 철거
- 69. 09. 30. 월사 건축부지로 인천 남구 청학동 65-5 전 171평 매입

| 1970

- 70. 05. 16.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설 실립인가
- 76. 04. 24. 사회복지법인 인천용신모자원 정관 변경허가 및 명칭변경
- 77. 11. 21. 수산장입무(봉제 임기공) 개시

| 1980

- 81. 04. 01. 인천 남구 청학동 산46-1에 월사 270.55평 신축이전
- 84. 03. 05. 산46-1, 44-6 지상에 월사 173.49 평형 증축
- 84. 08. 10. 국유지 1,706.6평 매입
- 87. 11. 17. 이강부 법인 대표이사 취임
- 88. 12. 08. 시설 응벽공사 및 공동목욕탕, 창고 (보일러실) 설치
- 89. 11. 11. 시설 상수도 세대별 인입

법인 계보



| 1990

- 92. 02. 20. 수익사업변경 (봉제 임가공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
- 92. 03. 11.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
- 94. 11. 19. 시설 전세대 연탄보일러에서 LNG 보일러 교체
- 96. 09. 01. 시설보수 및 방범시설(방범창외), 안전시설(가스/화재경보기) 공사

| 2000

- 01. 10. 01. 연수구청어린이집 위탁운영 법인체로 선정
- 07. 01. 10. 융신모자원 부지 산46-1지번에서 443-18, 443-19 지번으로 등록전환
- 07. 10. 17. 이선민 시설장 취임
- 08. 02. 16. 대표이사 변경(이강우→이선민)
- 08. 12. 18. 시설 명칭 푸르뫼Mom&Kids로 변경 이사회 의결
- 09. 03. 31. 시설 신축 건물 푸르뫼Mom&Kids (연면적 : 1,721.25m²/ 3층건물) 준공
- 09. 08. 28. 시설부지 443-18, 19 2개 지번을 443-19지번 토지이동 합병

| 2010

- 10. 06. 25. 푸르뫼Mom&Kids 로고명칭 업무 표장등록 특허청 등록
- 12. 05. 29. 푸르뫼Mom&Kids 증축공사 착공
- 12. 10. 10. 푸르뫼Mom&Kids 시설 증축 준공
- 12. 12. 14. 입소정원 30세대 80명 조정
- 12. 12. 21. 법인45주년 기념식 및 시설증축 준공식 행사
- 13. 12. 24. 시설증축 건축사용승인허가
- 13. 05. 09.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

대표이사 이력



유 창 복
1대 대표이사(1968-1987)



이 강 부
2대 대표이사(1987-2008)

■ 1대 대표이사 : 유 창 복(柳昌福), Yu Chang Bok(1916.03.17-2002.04.05)

경력

- 1968. 1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보건사회부)

상훈

- 1982. 05. 05 대통령 훈장증 수여

■ 2대 대표이사 : 이 강 부(李康夫), Lee Gang Bok(1941.03.0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49. 02 서울 동국 무선고등학교 졸업

경력

- 1988 인천시 연수구 옥련파출소 방범위원 역임
- 1994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 역임
- 1994. 10. 12 인천시 연수구 옥련파출소 방범자문위원회 부회장 역임
- 1995. 10. 22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초대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 1996. 02. 16 사회복지법인 용신원 대표이사 취임
- 1996. 03. 14 인천 신한국당 연수구 지구당 청학동 협의회 회장 역임
- 1996. 09. 1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회 위원 역임
- 1997. 07. 22 인천시 남부경찰서 방범위원회 위원 및 부위원장 역임
- 1997. 09. 28 인천시 연수구 체육회 이사 위촉
- 1997. 10. 21 인천시 연수구 옥련파출소 자율방범대장 역임
- 1998. 10. 21 인천 연수경찰서 방범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1999. 02. 12 인천 청학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이 선 민
3대 대표이사(2008-現)

③ 3대 대표이사 : 이 선 민(李先敏), Lee Seon Min(1970.08.1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9. 02 인천인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1993. 02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2006. 08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석사 졸업

경력

- 1992. 09~1993. 09 인천중앙길병원 사회사업사
- 1996. 04~1999. 12 대한어머니회 인천시연합회 재가노인복지센타 시설장
- 1999. 12~2001. 09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동구재가노인복지센타 시설장
- 2001. 10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푸르뫼 Mom&Kids 시설장
- 2008. 02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대표이사
- 2009. 02. 29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적자원개발위원 위촉
- 2009. 11. 04 인천시 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 2011. 04. 01 인천 연수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 2011. 04. 01 (사)한국여성복지연합회 인천지부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취임
- 2011. 04. 01 인천 연수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 2011. 05. 01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행정 서비스현장 심의위원 위촉

상훈

- 2010. 07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표창 수상
- 2014. 11 연수구 국회의원 표창 수상

주요저서/논문

- 모자보호시설 종사자의 수퍼비전 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2006.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사례연구】성폭력이 의심되는 여아의 위기개입 - James & Gilliland의 위기개입 6단계 모델적용. 2006.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 푸르뫼 Mom&Kids(2012)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 푸르뫼 Mom&Kids(2012)



사회복지법인 융신원 – 푸르뫼 Mom&Kids(2012)

2) 법인사업



모자복지시설 융신모자원 '푸르뫼 Mom&Kids'로 바꿔 재개관(2009)



청와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복지시설 방문(201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협약' 운영 업무협약 체결(2011)



푸르뫼Mom&Kids(옛 융신모자원) 박근혜 방문(1980)

인정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23번안길 24		
홈페이지	http://injung.org		
전화번호	032)574-0250	F A X	032)574-0255



| 1970-1990

- 70. 06. 재단법인 이씨 보육원 설립인가 (영아시설)
- 72. 06. 모자보호시설로 사업목적변경 (이씨모자원)
- 80. 06. 정신지체시설로 사업목적변경
- 90. 12. 사회복지법인 이씨원을 명화원으로 법인명칭변경

| 2000

- 02. 12. 홍인식 대표이사 취임
- 03. 04. 명화원을 인정재단 인정재활원으로 법인 및 시설명칭변경
- 04. 03. 인정재활원 홍인식 원장 취임

법인 계보



| 2005

- 06. 03. 인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인가
- 06. 10. 인정장애인작업활동시설 설립인가
- 06. 10. 사업자등록증 간신 (업태: 제조업/ 종목: 조명기구)
- 06. 12.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형광등기구) 발급
- 07. 01. ISO9001 인증 취득 (국제기술품질인증원)
- 07. 02. 인천효행원 신축사업 준공
- 07. 03. 공장등록증 교부 (인천광역시 서구청)
- 07. 04. 인정장애인작업활동시설에서 인정재활관으로 명칭 변경
- 07. 04. 조명등기구 제조판매 수의사업 인가
- 07. 05. 인정효행원 설립 인가
- 07. 05. KS인증 취득 (한국표준협회)
- 07. 05.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 07. 06. 조밀형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 07. 08. 형광등기구 외 5종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 08. 10. 장애인생산품인증서 (형광등기구/ 경관조명) 발급
- 08. 12.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배선용 꽂음집속기) 발급
- 09. 01.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서 (형광등기구/ 경관조명) 발급

| 2010

- 10. 04. 대지코(DAIJICO) 상표등록증 등록 (특허청)
- 10. 07. 디자인등록증 등록 (특허청)
- 10. 12. 인정재활원 체험홀 1호, 2호 설치
- 11. 01. 인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 3호, 5호 설치
- 11. 09. 직접생산확인신청 증명서 취득 (중소기업중앙회)
- 12. 07. 품질보증(Q-MARK)지정서 취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2. 09. 인정재활원 체험홀 3호 설치

대표이사 이력

□ 1대 대표이사 : 홍 인 식(洪仁植), Hong In Sik(1962.03.04-현재)



홍 인 식
1대 대표이사(200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2008. 02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

- 1998. 07~2002. 0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 1999~현재 새얼문화재단 운영위원회 위원
- 2003~현재 인천광역시서구노인대학 강사
- 2003. 01~현재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대표이사
- 2003. 03~현재 인정재활원 원장
- 2004~현재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보수교육 등 강의경력 다수
- 2004~06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2004. 06~2006. 05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 2007 인천지점 구속심사위원회 위원
- 2007. 02~2012. 01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 2008~09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상임이사
- 2008~현재 재능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외래교수
- 2008. 03~2009. 03 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 2009. 03~11 인천복지포럼 위원장
- 2011. 07~현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주요저서/논문

- 장애인의 직업 재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인정재활원/ 인정재활관 전



인정재활원/ 인정재활관 후



인정체험홀 건물



인정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건물



인정효행원 전



인정효행원 후

2)법인사업



홍인식 원장님 취임식(2004)



46주년 및 준공기념식(2006)



인정재활관 작업장(2007)



인정효행원 금별 준공(2008)



인정효행원 건강검진(2012)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2013)

은광복지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분로 8		
홈페이지	http://www.ekw.or.kr		
전화번호	032)503-8932	F A X	032)501-5617



| 1970

- 73. 03. 30. 사회복지법인 은광원 설립정관 허가
- 75. 12. 01. 제1대 이은수 대표이사 취임
- 75. 12. 24. 지체부자유아 시설 정관허가
- 76. 06. 01. 은광원 시설인가, 원아 6명 수용
- 79. 09. 20. 원사신축 지하 50평 완공

| 1980

- 80. 12. 04. 은광특수학교 설립인가
- 81. 09. 27. 건조실 신축(14평)
- 81. 12. 30. 원사 1층 완공(150평)
- 83. 04. 12. 원사 2층 완공(150평)
- 85. 03. 25. 원사 3층 완공(150평)
- 85. 12. 20. 생활관 3층 준공(20평), 럼프(60평)
- 87. 05. 15. 교명변경(은광특수학교→인천은광학교)
- 88. 02. 22. 자립작입장 준공(100평)

| 1990

- 95. 01. 20. 생활관 2층 숙소 증축(100평)
- 98. 10. 22. 제2대 이수영 대표이사 취임
- 98. 12. 21. 3층 식당, 목욕실, 휴게실 증축(153평)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1980-1998 1대 대표이사 이은수	1973-2004 사회복지법인 은광원	1973-현재 은광원 (장애인생활시설)
1998-현재 2대 대표이사 이수영	2004-현재 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	1980-1989 은광특수학교
	
		1989-현재 인천은광학교

| 2000

| 2010

- 04. 05. 12. 이수영 원장 취임
- 04. 08. 05. 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으로 명칭 변경
- 09. 10. 09. 은광원 개축사업 착공
- 09. 03. 17. 은광원 개축사업 준공(557평)

- 10. 05. 29. 은광원 옥상 녹화사업 준공

대표이사 이력

[1] 1대 대표이사 : 이 은 수, Lee Eun Soo(1923.12.30-현재)



이 수 영
2대 대표이사(1998-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5. 02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 1984. 02 한양대학교 졸업
- 1987. 02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학과수료(석사과정)
- 1998. 02 모스크바국립 대대학원사회학부졸업(박사과정)

경력

- 1984. 03~1993. 02 사회복지법인 은광원 부원장
- 1999. 03~2001. 02 천안대학교/인천대행정대학원 강사
- 2001. 03~2004. 02 천안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정책위원장
- 인천광역시공동모금회 이사, 운영위원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장
- 인천대학교사회복지학과 외래 교수
- 한글극동학술교류협회 이사
- 인천보치아연맹회장
- (現)사회복지법인 은광복지재단 이사장겸 은광원장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은광원(2009)



인천은광학교(2011)

2)법인사업



은광학교 식목행사(1979)



인천은광학교 운동회(1980)



이수영 이사장 취임식(1998)



인천은광학교 준공식(2011)



장애인의날 기념행사(2012)



온광원 옥상녹화사업준공(2010)

목민원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0번길 37-1
홈페이지	cafe.daum.net/mokmindaycare
전화번호	032-462-6845

F A X

032-462-3795



| 1970

- 1974. 만수 부녀회 빌족
- 1975. 질미저축, 논두렁 콩심기, 유휴 항무지 개척 사업, 공동 퇴비장 200톤 건설, 목민 마을금고 창립(회원 400명, 쌀 100가마, 현금 200만원 총 1,917,194원 자본)
- 1977. 목민 새마을 회관 설립
- 1978. 목민어린이 유치원 개원
- 1979. 만수 노인학교 개교(가톨릭사회복지회 후원),

| 1980

- 1982. 목민 새마을 유이원 정식 인가
- 1983. 오효숙 대표이사 대통령 훈장 노력장 수상 및 목민 새마을 금고 장학회 설립(훈장 부상 500만원과 1,000만원 기본금 장학회 창립)
- 1983. 목민 새마을 금고 자산 회원 1,051명, 자산 133,373,935원
- 1984. 오효숙 목민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 및 부녀회 사임(지역사회 후임자 이필재 이사장 위임)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인	시설
1993-현재 1대 대표이사 오효숙	1993-현재 사회복지법인 목민원	1978-1982 목민어린이유치원
		1982-1993 목민새마을유아원

| 1990

- 1993. 제 15회 새마을 유아원 마지막 졸업(60명)
- 1993. 목민원 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목민어린이집 개원

| 2000

- 2015. 22회 졸업생 배출 예정

대표이사 이력



오효숙
1대 대표이사(1993-현재)

■ 1대 대표이사 : 오효숙(吳孝淑), (1935.03.10-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3 인천여자고등학교 졸업(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 1957 서울 문리 사범대학 졸업(중학교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 1983 전국 유아교육 관리직 일반 연수 수료
- 1993 보육시설 시설장 양성교육 과정 수료
- 1995 여성 지도자 연수과정 수료
- 2003 가톨릭 사회복지대학 6개월 수료

경력

- 1957 한국은행 서울 본점 외국부 근무(4년간)
- 1974 인천 남구 만수동 부녀지도자 수임
- 1976 인천 목민 새마을 금고 창립 이사장 취임(10년간)
- 1978 인천 목민 새마을 회관 설립
인천 목민 새마을 유아원 설립(원장 16년간)
인천시 아동 위원 위촉
- 1980 인천 만수 노인학교 설립(3년간)
- 1983 인천 목민 새마을 장학회 창립, 전국 유아교육 관리직 일반 연수 수료
- 1987 새마을 유아원 장학지도 위원 위촉
- 1993 사회복지법인 목민원 설립 및 목민어린이집 설립
보육시설 시설장 양성교육 과정 수료
- 1995 남동구 보육위원회 위원(12년간) 및 여성 지도자 연수과정 수료
- 1996 목민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원아 143명 인가 및 인천 우수어린이집 평가 민간 1등
- 2015 목민어린이집 22회 졸업예정

상훈

- 1975~1981 인천시장상 (4회)
- 1976 경기도 지사장상(3회)
- 1979 농촌 진흥 청장상 (2회)
- 1982 내무부 장관상 (우수유아원)
- 1983 대통령 훈장 노력장 수상
- 2000 보건복지부 장관상수상

주요저서/논문

- 1980 한국지역사회 인맥 대관 등록됨
- 1998 한국 현대 인물열전 등록됨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2)법인사업



목민유치원(1977)



목민회관 준공식(1978)



의료봉사(1980)



마을금고 회원총회(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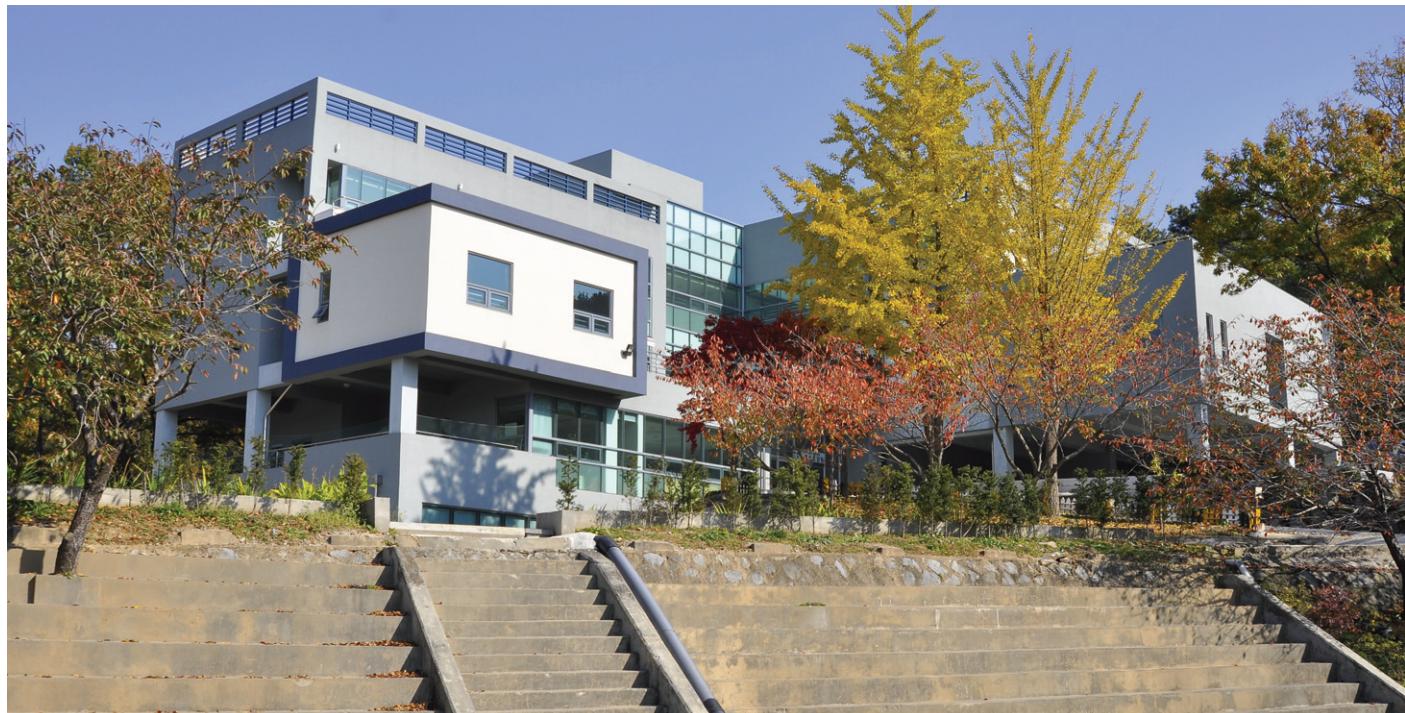
복민유아원(1985)



복민장학금 전달식(1991)

원진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고식이길20번길 19-3		
홈페이지	http://www.kanghwa.or.kr		
전화번호	032-933-4578	F A X	032-933-0031



| 1980

- 84. 01. 27.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설립
- 84. 03. 김원석 1대 대표이사 취임
- 84. 03. 14.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 시설허가

| 1985

- 86.~91.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 시설 증축 및 신축

| 2000

- 01. 12. 19.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 자립생활관 개축
- 02. 12.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 목욕탕 신축
- 04. 01. 김세진 2대 대표이사 취임

법인 계보

법인대표자(대표이사)	법 인	시 설
1984-2003 1대 대표이사 김원석	1984-현재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1984-현재 강화정신요양원
2004-2009 2대 대표이사 김세진		
2009-현재 3대 대표이사 김세영		

| 2005

- 05. 02. 24. 산하시실 강화정신요양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 06. 12. 11. 산하시실 강화정신요양원 인천사회복지상 사회복지부문 수상
- 08. 12. 산하시실 강화정신요양원 전국정신요양시설 평가 4회 연속 우수 시설
- 09. 08. 김세영 3대 대표이사 취임

| 2010

- 11. 06. 22. 산하시실 강화정신요양원 (남녀)생활관 개축공사 준공
- 11. 12. 산하시실 강화정신요양원 전국정신요양시설 평가 최우수시설
- 13. 12. 녹색공원 조성

대표이사 이력



김원석
1대 대표이사(1984-2003)

■ 1대 대표이사 : 김 원 석(金元錫), Kim Won Suk(1926-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1. 0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사과정

경력

- 1971. 02 의학박사 학위취득
- 1964. 10~1971. 11 경기도 강화군[제종병원]운영
- 1971. 12~2005. 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제종의원]운영
- 1984. 01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설립(제1대 대표이사 취임)
- 1984. 03 강화정신요양원 설립(제1대 시설장 취임)
- 2004. 01.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대표이사 사임
- 1972~2002 서울시 의사회 활동



김세진
2대 대표이사(2004-2009)

■ 2대 대표이사 : 김 세 진(金世眞), Kim Se Jin(1947-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4. 02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경력

- 1982~2006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성십자의원] 운영
- 2004. 01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제2대 대표이사 취임
- 2009. 07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제2대 대표이사 사임

■ 3대 대표이사 : 김 세 영(金世英), Kim Se Yeong(195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0. 02 건국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경력

- 1980~1987 호남정유(주) 근무
- 1987. 08~2009. 07 강화정신요양원 입사(시설장 취임)
- 2009. 08~2014~현재 사회복지법인 원진재단 제3대 대표이사 취임

상훈

- 2006. 02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김세영
3대 대표이사(2009-현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원진재단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 기공식(1982)



원진재단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1989)



원진재단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1995)



원진재단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2008)



원진재단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 생활관 개축공사후(2012)



원진재단 산하시설 강화정신요양원(2004)

2)법인사업



가정의 달 행사(2004)



봄맞이 초청공연(2004)



모금회 지원사업(2007)



녹색복지사업(2013)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 503호		
홈페이지	http://www.welpia.or.kr/		
전화번호	032-883-1773	F A X	032-885-7016



1980	1990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 04. 01. 인천지할시사회복지협의회 발족, 1대 정규순 회장 취임• 88. 02. 26. 2대 김득린 회장 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1. 01. 01. 지역복지봉사센터 설치,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로 개칭(1994. 11.), 사회복지정보센터로 개칭(2001)• 91. 02. 11. 3대 김득린 회장 연임• 94. 03. 12. 4대 김득린 회장 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5. 10. 24.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시(현 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96. 01. 01. 사회복지종합전산망사업 실시• 97. 02. 24. 5대 김득린 회장 연임• 98. 07. 28. 푸드뱅크 사업 실시• 98. 12. 29.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 창립총회, 6대 김득린 회장 연임• 99. 01. 13.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독립법인체로 인가 빌족

법인 계보



| 2000

- 00. 07. 01. 사회복지종합전산망(welpia.or.kr) 오픈
- 02. 07. 30. 제7대 유필우 회장 취임
- 02. 10. 01. 지원봉사단체지원사업 실시
- 03. 전문위원회 빌족

| 2005

- 05. 09. 05. 인천사회복지연구원 개소, 인천사회복지연구원으로 개칭(2008. 10. 13.)
- 06. 02. 인천사회복지상 제정
- 08. 01. 13. 제9대 유필우 회장 연임
- 08. 04. 사무실 이전(간식동 인천광역시사회복지회관 503호)
- 08. 11. 17. 사회복지윤리위원회 빌족
- 09. 05. 01. 사회복지지도서관 개관

| 2010

- 11. 01. 13. 제10대 유필우 회장 연임
- 11. 11. 16. 남구, 중구, 동구, 부평구, 연수구, 남동구 지회 등기 완료
- 12. 03. 21. 계양구, 서구 지회 등기 완료

대표이사 이력



정규순
1대 회장(1985-1988)

■ 1대 회장 : 정 규 순(鄭奎淳), Jeong Kyu Sun(1919.05.23~2001.06.24)

학력(졸업년도 기준)

- 평양승인상업학교
- 중앙신학대학교 (사회사업, 석사)

경력

- 성동원 원장
- 인천농화학교 교장

상훈

- 1981.12. 05 교육부분 대통령상 수상
- 1983.04. 20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사회부분)



김득린
2대-6대 회장(1988-2002)

■ 2대 회장 : 김 득 린(金得麟), Kim Deuk Lin(1936.10.16~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4. 02 대광고등학교 졸업
- 1958. 0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6. 02.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 1995. 02 서울장로회신학대학교 성서대학원 수료
- 2007. 10 숭실대학교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경력

- 복지활동

- 1970~현재 사회복지법인 송암복지재단 대표이사
- 1978~1990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회 회장
- 1988~2002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1990~199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 1991~2002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 회장
- 1992~1999 중앙아동복지위원회 위원
- 1993~200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1995~2008 기독교아동복지협회한국연합회 회장
- 1999~2002 인천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 2001~2002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
- 2003 한국사회복지유권자연맹 상임고문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대표
- 2003~20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2011~현재 복지미래포럼 회장

- 사회활동
 - 1960 제7대 국회의원 보좌관
 - 1991~200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1994~2000 보건복지제도 개혁위원회 위원(보건복지부)
 - 2003. 07~2005. 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사회복지위원장) 대통령임명
 - 2003. 10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대통령위촉)
 - 2004. 10 사회복지시설 발전위원회 부위원장(보건복지기획부)
 - 2005. 02~2007. 04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상임대표
 - 2007. 04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명예회장
 - 2014. 04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상훈

- 인천광역시장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법무부장관 표창
- 통일부장관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대통령 표창
- 1986. 05 국민포장
- 2002. 05 국민훈장 목련장
- 사회복지대상(2011 사회복지의날)

주요저서/논문

- 2007 「사랑의 바다로, 복지의 나라로!」
- 2010 사회복지종합가이드북



유필우
7대-10대 회장(2002-2013)

학력(졸업년도 기준) :

- 1967. 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200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

- 1974 제1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1975 상공부 수출진흥과 사무관
- 1979 경제과학심의 회의 경제조사 분석관
- 1985 인천광역시 지역경제국장, 북구청장
- 1988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 199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장
- 1994 노동부 연수원장
- 1995 대전 지방 노동 청장
- 1997 노동부 노동연수원장
- 1997 APEC HRD(인력개발) 장관회의 사무국장
- 1998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199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장
- 1998 인천광역시 실업대책 실무추진위원장
- 2000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상임위원
- 2001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2002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장
- 2002~2013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장
- 2002~2003 대한석탄공사 사장
- 2004~2007 제17대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원
- 2010 민주당 인천광역시 시당위원장
- 2010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사장

상훈

- 1976 상공부장관 표창
- 1982 국무총리 표창
- 1992 녹조근정훈장

주요저서/논문

- 2002 나는 지금도 비가오면 잠을 잘수 없다 (형성사발행)
- 2010 청와대 특명반장 서민 집을 지켜라 (코리아리더스)



한 창 원
11대 회장(2013-현재)

④ 4대 회장 : 한 창 원(韓 昌 願), Han Chang Won(1960-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 1988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 2008 (現)기호일보 대표이사 · 사장
- (現)전국지방신문협의회 부회장
- (現)인천광역시 탁구협회 회장
- (現)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부회장
- (現)공군 정책발전 자문위원
- (現)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 (現)인천광역시 체육회 이사
- (現)향진원 후원회 회장

- (現)예림원 운영위원
- (現)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인천지부 부대표이사
- (現)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
- (現)재능대 대학평의원회 의원
- (現)중구문화원 이사
- (現)청학동 공부방 자문위원
- (現)인천문인협회 이사

상훈

- 2000. 09 사회봉사상 수상(문화복지부장관)
- 2010. 05 사회봉사상 수상(대통령상)

주요저서/논문

- 1989 시집 “강”
- 1993 시집 “내안에 있는 또다른 나에게”
- 1996 시집 “홀로사는 이 세상에”
- 2013 시집 “힙색열차가 지고 간 하루”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1991)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2008)

2) 법인사업



사랑의 바자회(1987)



사랑의 대행진(1988)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2003)



어르신 니들이(2013)



정기총회(1999)



인천사회복지포럼(1999)

나눔의사람들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61번길 28		
홈페이지	http://www.bangsan.or.kr		
전화번호	032-542-0321	F A X	032-543-0322



| 1980

- 85. 09. 14. 사회복지법인 방산복지재단 설립허가(대표이사 김식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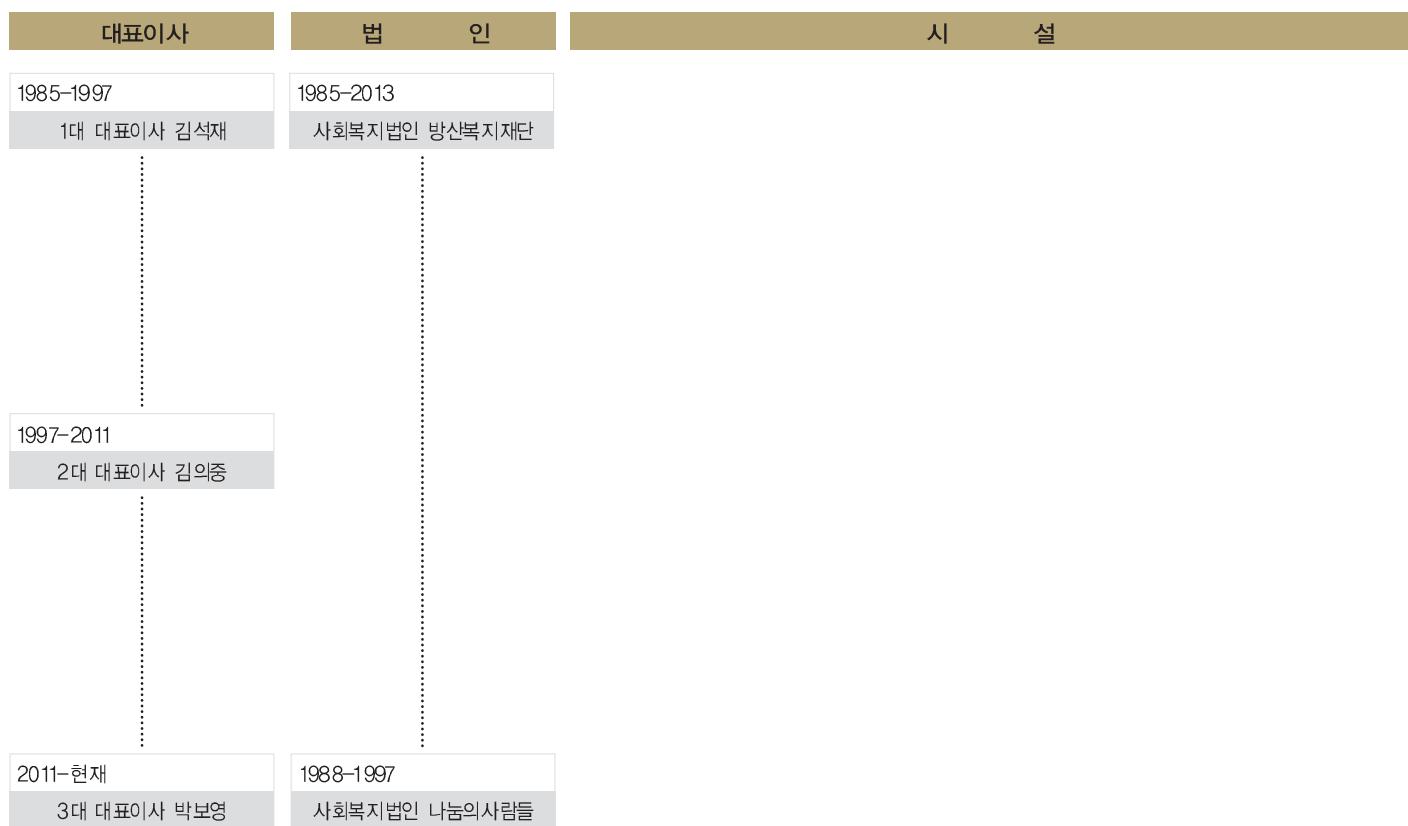
| 1990

- 92. 07. 24. 이만호씨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123대지 1필지 기증, 인천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167 전 1필지 기증
- 97. 02. 12.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1-3 주소변경
- 97. 08. 09. 이사 김의중 대표이사 선임
- 97. 08. 11. 대표이사 김의중, 인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 237 1,000평 기증
- 98. 08. 2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164-14 주소변경

| 2000

- 00. 11. 08. 섬김노인의 집(노인여가시설) 설치 신고
- 01. 03. 01. 무료급식(노인) 사업 실시
- 04. 07. 05. 정관목적 "섬김정신구현"으로, 기본 재산 5억으로 정관변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694-10 주소변경

법인 계보



| 2005

- 05. 12. 09. 전남지부 재가복지센터로 설립허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85-2
- 06. 01. 12. 방산복지재단후원회 창립
- 08. 02. 14. (재)기독교감리회유지재단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694-10 건물기증

| 2010

- 10. 11. 20. 불우한자 백내장 수술비 및 수술지원 사업
- 11. 01. 05. 섬김노인의 집 신고폐지
- 11. 06. 30. 무료급식(노인) 사업종료
- 11. 07. 01. 대표이사 박보영 목사 취임
- 11. 07. 01. 다비다의 집(남자노숙인생활시설) 사업 실시, HNBC(청소년쉼터) 사업 실시
- 11. 11. 01. 무료급식(노숙자) 사업실시
- 12. 01. 03. 하늘정원특수어린이집(인천 서구 월당동 808-2) 건물 준공
- 12. 01. 04. 주사무소 '인천 서구 석남3동 산 16번지' 이전
- 13. 02. 01. 나눔의사람들 법인명 변경 허가

대표이사 이력

[1] 1대 대표이사 : 김 석 재

[2] 2대 대표이사 : 김 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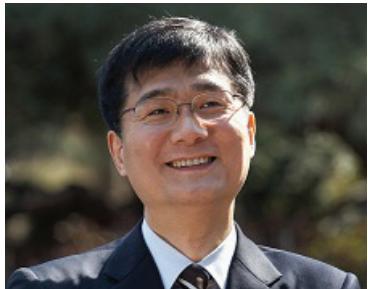
[3] 3대 대표이사 : 박 보 영(朴寶永), Park Bo Young(1952.09.15-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경력

- 현)인천 방주교회 담임목사
- 현)인천 마가의다락방 기도원 원장



박 보 영
3대 대표이사(2011-현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산하기관_하늘정원특수어린이집(2012)

2) 법인사업



노숙인 무료급식(2012)



노숙인을 위한 크리스마스행사(2012)



하늘정원 어린이집 착공식(2012)

백암한마음봉사회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418번길 14-57(학익동)		
홈페이지			
전화번호	032-722-1399	F A X	032-872-6322



| 1980

- 88. 04. 21. 백암한마음봉사회 설립, 1대 윤국진 대표이사 취임

| 1990

- 90. 12. 27. 산하기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초대 윤국진 관장 취임
- 91. 03. 산하기관 백암어린이집 개관, 초대 윤국진 원장 취임
- 92. 01. 03. 인천종합사회복지관 부실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인	시설
1986-현재 1대 대표이사 윤국진	1988-현재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	1990-현재 인천종합사회복지관

1991-현재
백암어린이집

| 2000

- 06. 01. 01. 남구기초푸드뱅크 설치 운영

| 2010

- 10. 05. 12. 남구푸드마켓1호점 개소

대표이사 이력



윤국진
1대 대표이사(1988-현재)

■ 1대 대표이사 : 윤 국 진(尹國鎮), Yun Kook Jin(1945.03.17-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3. 03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수료
- 1983. 08 일본산업능률대학교 QC과정(품질관리) 수료
- 1986. 08 전국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행정) 수료
- 1990. 08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사회복지) 수료
- 1991. 06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

- 1971. 01 육군 만기제대
- 1971. 06. 01~1972. 10. 30 호남정유 대리점 삼경석유Co. 근무
- 1978. 03 동인천라이온스클럽 가입(이사)
- 1980. 07 법무부 간생보호회 수원지부 위원 위촉(인천이사)
- 1983. 01 인천직할시 중구 정화추진협의회 위원 위촉(이사)
- 1984. 07. 01 남인천새마을청소년학교 교장 취임
- 1986. 11. 24 문교부지정 사회교육시설 남인천실업학교 초대교장 취임
- 1988. 04. 21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 설립 대표이사 취임
- 1991. 01. 03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초대관장
- 1991. 03. 07 백암어린이집 초대원장

상훈

- 1984. 05. 25 법무부 장관 표창
- 1986. 11. 21 국무총리(총무처장관) 표창
- 1988. 05. 05 보건사회부 표창
- 1988. 05. 13 내무부 감사패
- 1988. 07. 01 인천시민상(사회봉사)
- 1990. 12. 26 인천교육대상 수상
- 2008. 05. 1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 2014. 10. 17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 수상(특별상)

주요저서/논문

- 1997. 03 향학의 꿈을 펼쳐라(초판)
- 2005. 03 향학의 꿈을 펼쳐라(개정판)
- 2010. 03 향학의 꿈을 펼쳐라(2차 개정판)
- 2014. 10. 17 가난을 유산으로 꿈을 이룬 소년(초판)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1988)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2013)



백암한마음봉사회_인천종합사회복지관(2013)



백암한마음봉사회_백암어린이집(2013)

2)법인사업



백암한마음봉사회 준공식(1990)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1990)



남구기초푸드뱅크 위탁 운영(2006)



1회 백암한마음 합동결혼식(1993)



백암어린이집 준공식(1998)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2007)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점로 3번길 10-11(구월동)		
홈페이지	www.findlife.or.kr		
전화번호	032-469-6671	F A X	032-469-6672



| 1990

- 92. 05. 12.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발기인 모임 – 박종우 인천시장 이길여 대표이사와 9명
- 92. 11. 25. 「새생명소식지」 창간
- 92. 12. 22. 제1회 새생명만남의 밤 개최
- 93. 02. 17. 접수환자1호 진료비지원
- 93. 04. 11. 새생명찾아주기 사랑의콘서트 개최
- 94. 08. 31. 인천지역 9개 종합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 95. 08. 20. 푸른음악회 개최
- 97. 12. 10. 제6회 새생명만남의 밤 개최

| 2000

- 01. 01. 04.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 01. 12. 05. 미스코리아출신 설수진, 설수현 자매 홍보대사 위촉
- 02. 10. 16. 새생명찾아주기 바자회 (롯데백화점 인천점)
- 03. 03. 새생명찾아주기 제8차 지역무료검진(전남, 전북, 충북)
- 03. 10. 백내장 · 녹내장 무료검진
- 03. 12. 27. 새생명과 함께 하는 「조수미 2003 송년콘서트」
- 04. 09. 18. 제1회 새생명찾아주기 토요마라톤대회(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 04. 11. 01. 백내장 · 녹내장 무료검진
- 04. 11. 22.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정재은, 장지원 선수 홍보대사 위촉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2001-현재 1대 대표이사 이길여	2001-현재 사회복지법인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1992-2000 새생명찾아주기 범시민운동본부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 사업부) ... 2001-현재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 2005

- 05. 05. 26. 불우환우돕기자선 파이프오르간연주회
- 05. 09. 03. 제2회 새생명찾아주기 토요마리톤대회 (한강시민공원 여의도지구)
- 06. 05. 18. 불우환우돕기자선음악회-우광혁교수의 세계악기여행
- 06. 09. 16. 제3회 새생명찾아주기 토요마리톤대회 (한강시민공원 국회축구장)
- 07. 09. 08. 제4회 새생명찾아주기 토요마라톤대회 (미사리조정경기장)
- 08. 10. 07. 조용필콘서트(인천문학구장-새생명성금기탁)
- 08. 10. 25. 새생명찾아주기 건강걷기대회(인천월미공원)
- 09. 07. 23. Brett Halvorson(이길우-낸시레이건 초청 심장병수혜자)새생명
홍보대사 위촉

| 2010

- 10. 11. 25. 새생명찾아주기 나눔음악회-인천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 11. 06. 18. 새생명찾아주기 자선음악회(인천내리교회)
- 11. 10. 22. 새생명찾아주기 건강걷기대회(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
- 12. 05. 03. 2012 새생명찾아주기 바자회(길병원 분수광장)
- 12. 07. 02. 2012 새생명도서바자회(길병원 홍보관)
- 13. 04. 15. 2013 새생명찾아주기 바자회(길병원 분수광장)
- 13. 08. 24. 새생명 찾아주기 나눔음악회(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 14. 06. 16. 2013 새생명찾아주기 바자회(길병원 분수광장)
- 14. 12. 05. 복지포럼개최 -사회적협동조합과 복지경영(인천YWCA 강당)
- 14. 12. 12. 2015 회계년도 예산안 심의 이사회
- 14. 12. 후원회원 26,747명, 새생명가족등 4,665명 수술비 지원.

대표이사 이력



이 길 여
1대 대표이사(2001-현재)

■ 1대 대표이사 : 이 길 여(李吉女), Lee Gil Ya(1932.05.09-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7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65 미 Mary Immaculate Hospital 인턴 수료
- 1968 미 Queen's Hospital Center 레지던트 수료
- 1977 일본대학교 의학부 의학박사
- 2003 단국대학교 명예교육학 박사
- 2008 카이스트 명예 이학박사

경력

- 1958 이길여산부인과의원 개원
- 1978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설립
- 1992. 05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설립, 대표이사
- 1994. 12 학교법인 가천학원 대표이사 (가천의과대, 신명여고, 가천인력개발원)
- 1995. 03~2005. 0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5회연임)
- 1999. 08 경인일보사 회장
- 2000. 08 가천대학교 총장
- 2011. 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초대 이사

상훈

- 1985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 2003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 2003 제13회 사랑스런 서울대인상
- 2006 서울대총동창회 유공동문상 수상
- 2006 2006 대한민국 '가장 존경받는 경영인賞' 수상
- 2007 제8회 힘춘대상 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
- 2007 2007 사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 2009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 2009 몽골 최고 훈장 '홍태트 템데그 의료훈장'
- 2009 제3회 성산효행대상 수상
- 2009 제12회 효령상 사회봉사부문 수상
- 2010 제1회 인천사랑대상 수상
- 2011 여성신문 '2010 올해의 인물' 상 수상
- 2012 뉴스위크선정 '2012 Women in the World 150'에 선정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2014)

2)법인사업



새생명찾아주기 범시민운동 출범(1992)



새생명찾은어린이(1993)



새생명찾아주기 기간 강검 기대회(2008)



심장병어린이 완치기념(2008)



새생명찾아주기 무료 검진(1999)



복지법인 출범(2001)



새생명통보대사 위촉 이길우(2009)



인도네시아 심장병어린이 완치 기념(2012)

가산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618		
홈페이지	http://cafe.daum.net/han4rang93 <어플: 한사랑어린이집>		
전화번호	032)562-5221	F A X	032)567-7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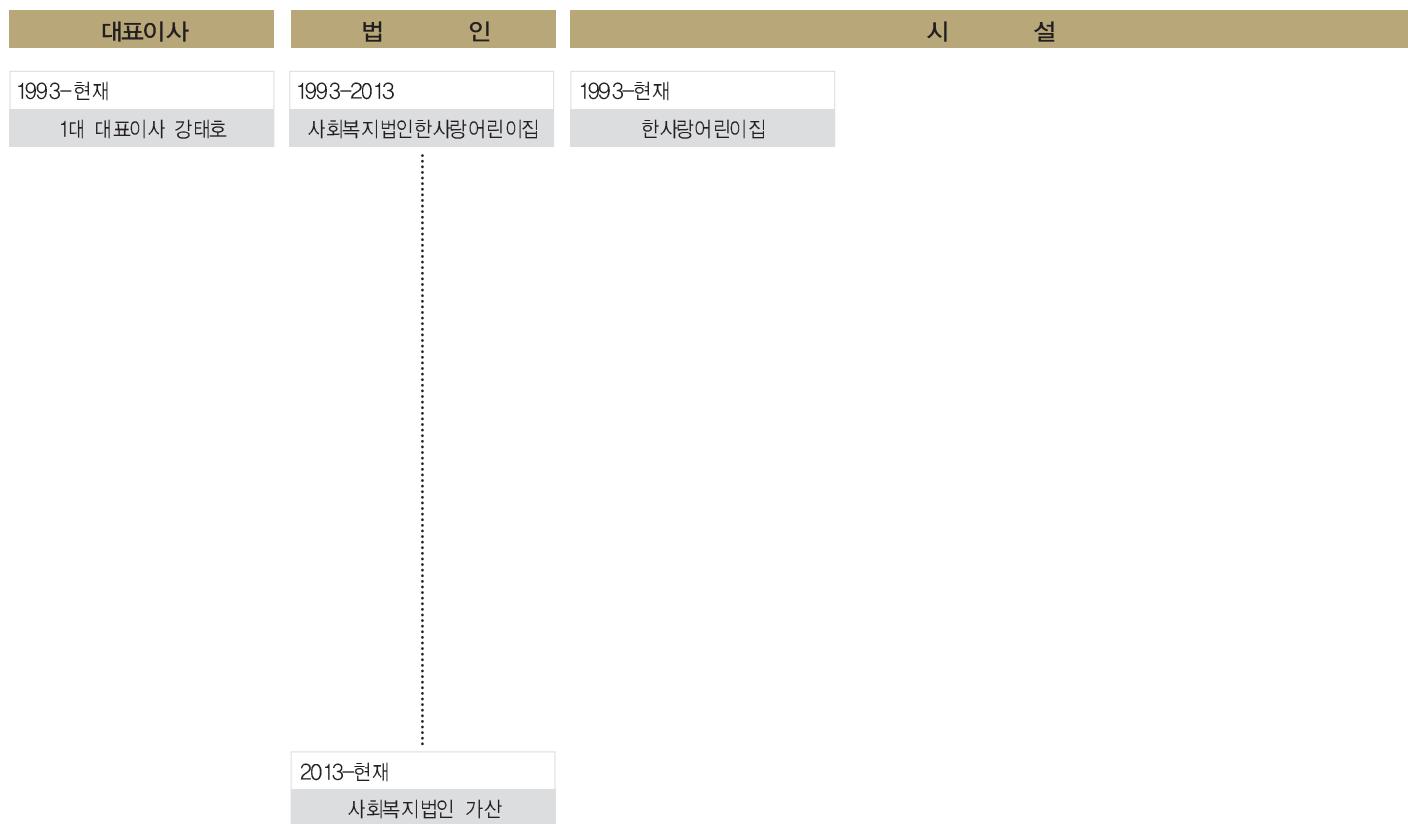
| 1990

- 93. 11. 06.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경기도지사) 설립 강태호 대표이사 및 제1대 시설장
- 94. 10. 01. 보육시설 인가 (보육정원 73명, 김포군수)
- 94. 10. 23.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어린이집 개원
- 95. 05. 01. 인천광역시 서구로 행정 관할구역 변경
- 96. 01. 11. 보육정원 변경 인가 (99명으로 증원)(2세 미만:5명, 2세:14명, 3세 : 80명)

| 2000

- 00. 05. 05. 제1회 서구연합회 어린이날 행사 한마음 큰 대잔치
- 01. 07. 여름캠프 및 부모님참여 캠프파이어
- 02. 05. 제 2회 서구연합회 어린이날 행사 한마당놀이잔치

법인 계보



| 2005

- 05. 01. 06. 작품전시 및 7세 출입발표회
- 05. 09. 서구문화예술제 출전(6,7세)
- 05. 10. 인천광역시국공립그림그리기대회
- 05. 11. 26. 과학워크샵
- 06. 05. 생태체험(인천보육시설연합회)개최
- 06. 12. 23. 여성가족부 보육시설 평가인증 획득
- 07. 03. 총 정원에 의한 반연령편성허가
- 07. 07. 21. 동요동시제 제1부, 2부(아띠마당/시화전·전시)
- 07. 09. 08. 서곶문화예술제(6,7세 출전)
- 08. 06. 13. '한상의 동화나라로' & 한사랑 원내 여름캠프
- 08. 07. 01. 장애아동입소교육
- 08. 11. 04. 6,7세 대상 DAP검사무료실시
- 08. 11. 31. 보호자참여수업/정교육초빙강사-보호자교육실시
- 08. 12. 01.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
- 08. 12. 17. 제1대 강태호 시설장 /2대 윤정숙 시설장 이취임식 (검단농협)
- 09. 10. 23. 제15주 개원기념 다문화체험

| 2010

- 11. 06. 01.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재인증 획득
- 11. 11. 02. 제 17주 개원기념 제2회 한사랑가족의밤 (검단복지회관)
- 12. 04. 27. KBS TV유치원 파니파니 녹화(부모참여수업)
- 12. 06. 09. 제3회 한사랑 가족 운동회(금곡초교 운동장)
- 12. 06. 11. 인천광역시 보육특정감사 표창장 수상
- 14. 06. 01.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재재인증 획득
- 14. 10. 28. 2014년 어린이집 가족참여 프로그램 공모 가작 수상
- 14. 11. 20. 제 20주 개원기념 '이해하고 웃음꽃피는 20주년 한사랑 가족의 밤 (검단복지회관)

대표이사 이력



강태호
1대 대표이사(1993-현재)

■ 1대 대표이사 : 강태호(姜泰浩), Kang Tae Ho(1953-2013)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1. 02 충북 제천고등학교 졸업
- 1981. 02 경희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 (이학학사 학위취득)
- 1991. 08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식품공학과 졸업 (이학석사 학위취득)
- 2001. 02 경희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부 식품공학과 졸업 (이학박사 학위취득)
(생물공학전공)

경력

-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부 식품공학과 박효식품학 외래교수
- 한림정보산업대학 건강식품가공학과 미생물학 강의 및 실험 외래교수
- 한림정보산업대학 건강식품가공학과 전통식품학 외래교수

자격증

- 1981. 03 교원자격증 취득(중등학교2급정교사)
- 1993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법인 시설장 과정수료 시설장 자격취득
- 2002 경기대학교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과정수료 성교육성상담전문가 자격취득

상훈

- 1981. 02 경희대학교 식품공학과 졸업우등상 수상(경희대학교 총장)
- 1981. 02 경희대학교 졸업논문 우수상 수상(경희대학교 총장)
- 1998. 04. 02 표창장(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002. 12. 30 표창장(인천광역시장)

주요저서/논문

- 1991. 08. Jerusalem artichoke를 이용한 sorbitol 생산에 관한 연구 (이학석사 학위논문) (Studies on feasibility of sorbitol production using Jerusalem artichoke as a substrate)
- 2001. 02. 바이오플리머 레반(Levan)의 특성 및 Levanoligosaccharide 생성에 관한 연구(이학박사 학위논문) (Studies on the Properties of Biopolymer Levan and Production of Levanoligosaccharide from Levan)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어린이집(1993)

2) 법인사업



TV유치원(2012)



파니파니 2회(2012)



제20주년 한사랑 가족의 밤 행사(2014)

풍성하게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구월로 24 (주안동)
홈페이지	http://happylog.naver.com/bibletrue.do
전화번호	032)433-0016

F A X

032)432-5786



| 1990

- 96. 11. 27. 법인설립 “사회복지법인 효실천운동본부” 및 김창홍 대표이사 취임
- 97. 05. 27. 충남북도지회 설치
- 98. 06. 25. 재기노인복지사업 실시(무료급식사업 실시)
- 98. 11. 11. 1대 김창홍 대표이사 사임, 2대 김종현 대표이사 취임
- 99. 07. 01. 안산지회설치
- 99. 12. 30. 2대 김종현 대표이사 사임, 3대 권혁선 대표이사 취임

| 2000

- 00. 07. 01. 청소년 장학사업 개시
- 01. 06. 09. 대전유성무료급식소 개설 (동지역 낙원교회와 협력)
- 02. 03. 10. 실버대학 개설 (풍성교회와 협력)
- 01. 11. 04. 남구 주민무료급식소 개설 (풍성교회와 협력)

법인 계보



| 2005

- 05. 11. 03. 남구 학익금식소 개설 (소풍교회와 협력)
- 08. 12. 21. 충남북도지회 폐지
- 08. 12. 31. 3대 권혁선 대표이사 사임, 4대 이형린 대표이사 취임
- 09. 12. 04. 노인요양센터 개소 (방문요양)

| 2010

- 10. 01. 01. 청소년 문화사업 시작
- 10. 03. 17. 법인명 변경 "사회복지법인 풍성하게"
- 10. 06. 19. 풍성다문화지원센터 개소 (효성동)

대표이사 이력

① 1대 대표이사 : 김 창 홍(金昌洪), Kim Chang Hong(1943.05.15-현재)

② 2대 대표이사 : 김 종 현(金鐘賢), Kim Jong Hyun(1957.08.09-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8 대현 전문대학 졸업
- 1982 송실대학교 4년 중퇴
- 1997 방송통신대학 수료

경력

- 1982 (주)희망백화점 입사
- 1998 (주)희망백화점 퇴사
- 1998 사회복지법인 효실천운동본부 대표이사 취임
- 1999 사회복지법인 효실천운동본부 대표이사 사임

③ 3대 대표이사 : 권 혁 선(權赫善), Kwon Hyuk Sun(1952.12.18-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1 서울 경신고등학교 졸업
- 1978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4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경력

- 1983~1985 동산교회 전도사 (서울신림동)
- 1986~1989 평안교회 부목사 (서울 중구)
- 1989~2005 풍성교회 담임목사
- 2005~2008 소풍교회 담임목사
- 2009~ 캄보디아 선교사

④ 4대 대표이사/대표자 : 이 형 린(李炯麟), Lee Hyoung Rin(1964.01.28-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2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1989 총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 1993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2000 미국 LIBERTY BAPTIST TECHNOLOGICAL SEMINARY 교회성장 전공



이 형 린

4대 대표이사(2009-현재)

경력

- 1993~1997 풍성교회 부목사 (인천)
- 2000~2004 동광교회 부목사 (서울)
- 2004 ~2005 풍성교회 동사목사
- 2006~ 풍성교회 담임목사
- 2010~ 기아대책 인천지역 이사
- 2012~ 캄보디아 소금과 빛 국제학교 이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풍성다문화지원센터

2) 법인사업



무료급식소

네트워크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41(부평동 700-27)
홈페이지	www.networks.or.kr
전화번호	032-502-7600

F A X

032-502-7791



| 1990

- 97. 08.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 설립
- 97. 11. 동인천역 무료급식소 개설
- 98. 04. 주안역 무료급식소 개설
- 99. 08.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 부설 자원봉사 전문교육원 개설
- 99. 08. 부평구 무료급식소 개설

| 2000

- 00. 12. 인천기능대학과 자매결연
- 03. 07.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인가
- 04. 02. 대전해피홈 개원
- 04. 03.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1997-2011 1대 대표이사 권태일	1997-2011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	2004-현재 대전해피홈 (공동생활가정)
		2005-현재 인천해피홈 (아동양육시설)
		2005-현재 부산해피홈 (공동생활가정)
		2008-현재 강화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011-현재 2대 대표이사 전명구	2011-현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2011-현재 장애인시설 브솔시내 (중근장애인거주시설)

| 2005

- 05. 08. 인천 해피홈보육원, 부산해피홈 개원
- 06. 06. 법인사무소 이전(부평6동)
- 06. 11. 뉴질랜드 사회복지기관 “크라이스트처치”대표 초청 및 교류협약 체결
- 08. 09. 강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소

| 2010

- 10. 07.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 11. 02. 법인명칭 변경(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 11. 03. CMS 설치운영
- 11. 05. 장애인시설 브솔시내 개원
- 11. 05. 법인 제 2대 대표이사 전명구 취임
- 13. 02. 부천시 오정노인복지관 재 위탁운영
- 14. 12. 전남장흥군청 업무협약 체결

대표이사 이력



권태일
1대 대표이사(1997~2011)

□ 1대 대표이사 : 권태일(權泰一), Kwon Tae Il(1955.09.2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95. 03 총신신학교 목회학과 졸업
- 1999. 02 종회신학연구원 졸업
- 2012. 02 한영신학대학교대학원 신학 명예박사 학위

경력

- 1997. 08~2011. 04 사회복지법인 한국사랑밭회 설립
- 2001. 07~현재 사회복지법인 실버홈이사
- 2001. 11~현재 미래영성복지연구소 소장
- 2001. 09~현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이사

상훈

- 1997. 10 노인복지증진상(인천광역시)
- 2000. 12 모범사회봉사상(인천광역시)
- 2001. 09 사회봉사상 시상(부평구민)
- 2003. 01 밝은사회봉사 대상(인천검찰청/인천광역시)
- 2003. 12 자원봉사상(행정자치부장관)
- 2004. 11 한국기독교성령 100년사각계 협존 100인선정(사회운동, 통일, 봉사부분)
- 2007. 12 감사패(대한노인회 은빛사랑후원회)
- 2009. 08 감사패(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주요저서/논문

- 2004 탈무드 권태일 작은씨앗
- 2005 사랑밭 새벽편지
- 2006 사랑만이 희망입니다
- 2007 딩동, 사랑이 도착했습니다. : 매일 아침 200만 독자의 가슴을 적신 사랑
- 2009 해처럼 살자
- 2012 (어린이를 위한)사랑밭 새벽편지



전 명 구
2대 대표이사(2011-현재)

[2] 2대 대표이사 : 전 명 구(全明求), Jun Myung Ku(1954.08.21-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66. 02 오갑초등학교 졸업
- 1969. 02 감곡중학교 졸업
- 1972 광운 전자고등학교 졸업
- 1980. 02 협성대학교 신학과 졸업
- 1994. 12 감리교 신학대학 선교대학원 졸업
- 2002. 05 미국드북신학대학원 졸업(목회학 박사)

경력

- 1997. 09 중부연회 새인천지방 감리사
- 1998. 03 월드선교회 회장
- 1998. 12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 경목위원장
- 2000. 02 감리교 중부연회 부흥단 단장
- 2000. 12 인천광역시 서구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 2003. 02 감리교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
- 2008. 09 협성대학교 객원교수
- 2008. 11 중부연회 제29대 감독 취임
- 2009. 12 CTS 기독교 TV 인천방송 본부장
- 2010. 04 서구푸드마켓 2호점 대표
- 2011. 01 인천시 서구 교구협의회 회장
- 2011. 05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대표이사
- 2011. 12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
- 2012. 06 러시아 감리교단 감독
- 2012. 12 인천지방 경찰청 경목회장
- 1986. 04~현재 인천대은교회 담임목사

상훈

기독교 감리회 감독 표창(4회)

인천경찰청장 표장

자랑스러운 협성인 수상(3회)–총 협성대학교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대전해피홈(2013)



강화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2013)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2013)



브솔시내

2) 법인사업



저소득층 집수리(2011)



노인 무료급식(2013)



주거환경 개선사업(2014)



전남장흥군청 업무체결(2014)

대한복지협회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28-15
홈페이지	www.sunorh.com
전화번호	032-882-7582

F A X

032-882-7581



| 1990

- 99. 04. 15.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협회 설립/1대 최명선 대표이사 취임
- 99. 04. 28. 한빛의원 개원(남동구)
- 99. 05. 26. 한빛한의원 개원(남동구)
- 99. 09. 28. 한빛의원 및 한빛한의원 개원(서구)
- 99. 11. 06. 한빛의원 및 한빛한의원 개원(부평구)

| 2000

- 00. 10. 20. 현대메디칼의원 및 현대메디칼 한의원 개원(남동구)
- 02. 02. 2대 최명철 대표이사 취임
(나눔과섬김교회 담임목사, 늘행복한집대표, 중국한의사)
- 04. 02. 3대 최명선 대표이사취임
(행정학박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1999-2002 1대 대표이사 최명선	1999-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협회	1999-2006 인천 남동구 한빛의원
		1999-2006 인천 남동구 한빛한의원
		1999-2006 인천 서구 한빛의원 및 한빛한의원
		1999-2006 인천 부평구 한빛의원 및 한빛한의원
2002-2004 2대 대표이사 최명철		2000-2006 현대 메디칼 의원 및 현대 메디칼 한의원
		2007-현재 인천 남구 해오른병원
		2008-2010 인천 남구 해오른노인복지센터
		2008-현재 인천 남구 해오른요양원
2004-현재 3대 대표이사 최명선		2011-현재 인천 남구 해오른재가노인복지센터

| 2010

- 07. 04. 해오른병원 개원/조윤구 병원장 취임
- 08. 07. 03. 해오른요양원 개원, 해오른노인복지센터 개원
- 09. 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병원평가 “1등급” 병원 선정
- 09. 07. 해오른병원 흥보대사 차유람 위촉
(2006 도하아시안게임 포켓볼 국가대표)
- 11. 5. 해오른재가노인복지센터 개원(방문간호 등)
- 12. 5. 해오른병원 양한방협진진료 개설

대표이사 이력



최명선
1·3대 대표이사(1999-2002)

■ 1·3대 대표이사 : 최명선(崔明善), Choi Myoung Sun(1963.02-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행정학 박사

- 2003. 03. 05~2002. 08. 30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03. 03. 05~2006. 02. 21 광운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

- 1999. 04~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협회 대표이사
- 2002. 02~현재 한국정책포럼복지정책위원회 이사
- 2003. 08~현재 인천 민수새마을 금고 이사
- 2004. 02~현재 인천시남동구 새마을 체육회 부회장
- 2005. 05~현재 연세대학교총동문회 이사
- 2005. 09~현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 초빙 교수

주요저서/논문

- 2002. 06 障碍人醫療再活서비스 實態 및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 2005. 12 地方公務員의 組織市民行動이 組織效果性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최명철
2대 대표이사(2002-2004)

■ 2대 대표이사 : 최명철(崔明喆), Choi Myoung Chul(1959.03-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97. 03~2005. 02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목사)
- 2003. 03~2006. 02 한국교육개발원 행정학사(사회복지사)

학력(졸업년도 기준)

- 2002. 02~2004. 02 사회복지법인 대한복지협회 2대 대표이사
- 2007. 04~현재 해오른병원 원목(담임목사)
- 2008. 07~현재 해오른요양원 원장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대한복지협회 / 해오른병원



해오른병원 개원5주년 기념식

2) 법인사업



해오른병원 개원2주년 기념식



해오른병원 개원3주년 기념식



해오른병원 개원 6주년 기념식

모퉁이복지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290(주안동)
홈페이지	http://www.motungee.org
전화번호	032-861-0101

F A X

032-861-6004



| 2000

- 02. 09. 사회복지법인 모퉁이복지재단 설립
- 03. 02. 사회복지법인 모퉁이복지재단 인천재활의원 개원
- 03. 02. 의료기관 개설허가(남구보건소)
- 03. 0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설치신고(남구청)
- 03. 07. 모퉁이복지재단 모퉁이 보호작업장 시설신고
- 03. 0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퉁이보호작업장 설치 허가
- 04. 11. 투식환자 등록 우수 의료기관 선정(대한신장학회)
- 06. 10. 신장장애인 동아리모임을 통한 사회회복, 재활의지향상 프로그램 실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 2011

- 11. 01. 소아재활치료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1. 10.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실시
- 11. 10.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흰 지팡이 날 행사 의료봉사단 지원
- 11. 12.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복지관 활질기 건강관리 및 건강강좌 지원

법인 계보



| 2012

| 2013

- 12. 10. 희귀난치성 질환자(24명)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3. 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2등급' 판정
인천지역 내 신장투석실을 보유한 병·의원급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최고등급 획득
※대학병원 2곳(길병원, 인하대병원) 제외
- 13. 10. 31.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복지지원사업(고효율 조명기기[LED] 교체 사업) 선정

대표이사 이력

[1] 1대 대표이사 : 최 진 호

[2] 2대 대표이사 : 강 성 구

[3] 3대 대표이사 : 백 락 운(白樂運), Beak Nak Woon(1963.03.04~현재)



백 락 운
3대 대표이사(2011~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2. 02 인천고등학교 입학/졸업
- 1989. 02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2010~현재 (주)에코플랜트 이사재직

경력

- 1989~1993 동호건설 입사/퇴사
- 1994~1998 세화엔지니어링 입사/퇴사
- 2002~2010 (주)성일테크놀러지 해외영업이사 입사/퇴사
- 2008~현재 (주)성일테크 이사재직
- 2010~현재 (주)에코플랜트 이사재직
세심 & ENC 이사재직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모통이복지재단 전경

2) 법인사업



나들이 프로그램(2007)



장애인의 날 기념식(2008)



인천재활의원 소이풀리치료 비누 만들기 프로그램(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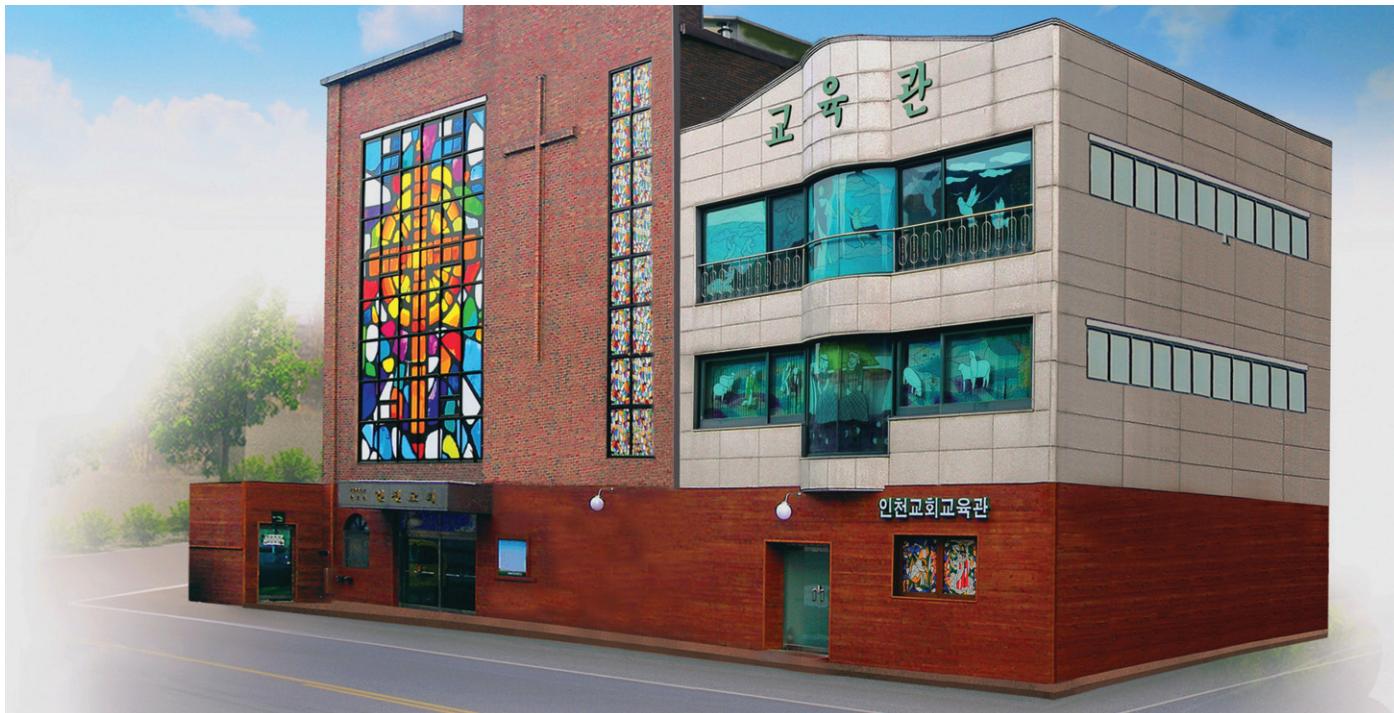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2013)

아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방로 60번길17(만수6동 1100-3)
홈페이지	www.adamwelfare.or.kr
전화번호	032-461-9191

F A X

032-466-9192



| 2007

• 07.10.19.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개관

| 2009

• 09.08.18.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하늘채 개관

| 2010

• 10. 03. 09. 사회복지법인 아담 설립
증증장애인거주시설 하늘채 운영주체 변경(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아담으로 법인 변경)
• 10. 08. 27.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운영주체 변경(대한예수교장로회서울노회 유지재단에서 사회복지법인 아담으로 법인 변경)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2010-현재 1대 대표이사 김진욱	2010-현재 사회복지법인 아담	2007-현재 아담채(부자보호시설)
		2009-현재 하늘채(중증장애인거주시설)
2012		2013

• 12. 10. 19.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개관 5주년 기념식

• 13. 03. 09. 사회복지법인 아담 사외이사 선임(구순례, 류주미)
 • 13. 05. 3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하늘채 자립체험홈 개관식

대표이사 이력



김 진 육
1대 대표이사(2010-현재)

■ 1대 대표이사 : 김 진 육(金鎮郁), Kim Jin Wook (1960-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8. 02 경주고등학교 졸업
- 1982. 02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0. 02 장로회 신학대학원 대학원 졸업 (M.Div)
- 1992. 02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 (Th.M)
- 1996. 02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졸업 (Ph.D)
- 2013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선교학명예박사(M.Miss)

경력

- 1997 인천교회(통합) 담임목사
- 1900 (現)확신 성경 연구원(Assurance Bible Academy) 원장
- 1909 (現)Tanga Christian Bible College 교수
- 1909 (現)드로모스 선교회 대표이사
- 1910 (現)사회복지법인 아담 대표이사
- 1912 (現)Kiev Theological Seminary(은혜와 진리 신학교) 교수
- 1913 (現)OASIS 연구원 대표이사
- 1913 (現)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학 연구교수

상훈

- 2006 장애인복지회 표창패(인천기독교 총연합회)
- 2007 남동구 자원봉사의 날, 감사패(인천광역시 남동구)
- 2008 노인의 날 행사, 표창장(인천광역시)
- 2008 인천사회복지상 사회복지부문 수상(인천사회복지 협의회)
- 2010 제 20회 구민의 날, 사회봉사상 구민상(인천광역시 남동구)
- 2011 한부모가정, 우수상(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2011 가정의 날 행사, 장관상(여성가족부)
- 2011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상(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주요저서/논문

- 논문

- A study on the Righteousness in matthew (Th.M)
- A study on the Righteousness in The New Testament (Ph.D)

- 저서

- 2003 구원의 확신(엔크리스토) / 예수님의 칭호(엔크리스토)
- 2008 요한신학(한국장로교출판사) / 바울과 그의 편지(한국장로교출판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아담(2010)

2)법인사업



아담체 5주년 기념식(2012)



하늘채 체험胡同 개관식(2013)

예닮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864-1		
홈페이지	http://www.yeadam.kr		
전화번호	032-934-0630	F A X	032-710-8039



2000	2010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 11. 07. 사회복지법인 예닮 설립인가• 08. 07. 25.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닮 준공• 08. 08. 28.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닮 개원 및 시설인가• 08. 10. 25. 제1회 가을 전체나들이(대관령 양떼 목장, 실악산, 정동진외)• 09. 04. 거북이 등산프로그램 경주 1박 2일 선정(강화군지원)• 09. 09. 14. 제2회 가을 전체나들이(제주도 섬 지코지, 여미지식물원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03.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닮 자립체험 흡 2개소 개원• 10. 05. 11. 제3회 봄 전체나들이(남해 거제, 통영외)• 10. 09. 14. 제4회 가을 전체나들이(중국 북경, 만리장성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05. 16. 제5회 봄 전체나들이(함평나비축제, 나로우주센터외)• 11. 04. 직원 기숙사 기능보강 선정• 11. 04. 직원 비전트립(안동 애명복지촌, 대전 평강의집)• 11. 10. 24. 제6회 가을 전체나들이(불국사, 포스코, 현대자동차외)• 11. 12. 2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닮 개원 3주년 및 기숙사 준공예배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2007-현재 1대 대표이사 김종호	2007-현재 사회복지법인 예닮	2008-현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닮

| 2012

- 12. 04. 23. 제7회 봄 전체나들이(제주 한라산, 섭지코지, 협재해수욕장외)
- 12. 05. 13. 제4회 예닮 한마음 체육대회
- 12. 07. 16. 여수 엑스포 박람회장 관람
- 12. 10. 16. 제8회 가을 전체나들이(부산명소탐방 · 태종대, 유엔공원, 해운대)

| 2013

- 13. 04. 28. 제5회 예닮 한마음 체육대회
- 13. 05. 13. 제9회 봄 전체나들이(안동하회마을, 한반도지형, 청룡포)

대표이사 이력



김종호
1대 대표이사(2007-현재)

■ 1대 대표이사 : 김종호, Kim Jong Ho(1967.06.19-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90. 02 한세대 신학과 졸업

경력

- 1996. 03~1996. 11 순복음광주중앙교회 재직
- 1997. 03~2004. 04 여의도순복음교회 재직
- 2005. 11~현재 예은순복음교회 창립 및 사회복지 법인 예닮 개원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예닮 전경사진

2) 법인사업



예닮 준공(2008)



사회체험 나들이(2009)



체육 대회(2012)



여수 엑스포 박람회 관람(2012)



자립체험홈 개원(2010)



기을 전제나들이(2011)

색동원

주 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장촌길 31		
홈페이지	www.sdwon.org		
전화번호	032)362-9300, 9400	F A X	032)362-9500



2008	2009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 01. 18.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설립• 08. 11. 17.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행복이 가득한 집' 개원 및 제 1대 원장 김범철 취임• 08. 12. 01. 지역사회 시설개방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9. 03. 05. 지역주민을 위한 물리치료실 개방• 09. 04. 21. 시설명 변경(행복이 가득한 집→색동원)• 09. 05. 02. 결식 가정 점심 도시락 전달 시작 (3가정)• 09. 07. 23. 지역독거노인 집수리 사업 실시(길직리 1개소, 남산리 1개소, 선두리 1개소)• 09. 12. 20. 지역소외계층 사랑의 연탄나눔 (해피빈모금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06. 01 인천광역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을 통한 색동원 옥상 '하늘정원' 준공• 10. 10. 19. 롯데복지재단 지원사업 재활훈련기기 지원(틸팅 테이블)• 10. 12. 12. 지역소외계층 사랑의 연탄나눔 (해피빈모금사업)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2008-현재 1대 대표이사 김범철	2008-현재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2008-2009 행복이 가득한집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2009-현재 색동원 (거주시설)
2011-현재 모아작업시설 (보호작업장)		

| 2011

- 11. 01. 07. 법인 산하기관 '모아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준공 및 인가
- 11. 01. 1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차량 지원(마티즈)
- 11. 02. 2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색동원 4층 건조실 증축 공사 준공
- 11. 03. 02. 법인 산하기관 '모아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개원
- 11. 03. 0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차량 지원(마티즈)
- 11. 12. 03. 지역소외계층 사랑의 연탄나눔(해피 피빈모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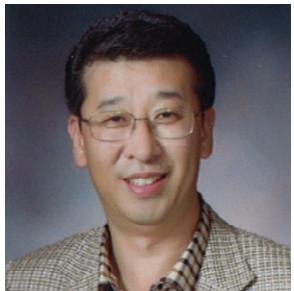
| 2012

- 12. 08. 01. 강화읍 옥림리 자립 체험홈 2가정 설치
- 12. 12. 15. 지역소외계층 사랑의 연탄나눔(해피 빙모금사업)

| 2014

- 14. 12. 01. 제2대 원장 안수일 취임
- 14. 11. 30. 지역소외계층 사랑의 연탄나눔(해피 피빈모금사업)

대표이사 이력



김 범 철
1대 대표이사(2008-현재)

■ 1대 대표이사 : 김 범 철(金凡哲), Kim Bum Chul(1963-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가야대학교

경력

- 국공립 영아전담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색동원(2010)



사회복지법인 색동원(2013)



신하기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2012)



신하기관 모아직업 재활 사설(2013)

2) 법인사업



벽화봉사(2010)



사랑의 약손봉사단(2011)



삼성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2012)



지방선거 사전모의투표(2013)



사회복지연합 세상속으로 go 참여(2014)



네오 맨과 함께하는 연말 사랑의 연탄 나눔(2012)

예원

주 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둑실안길 54
홈페이지	www.yeone.or.kr
전화번호	032-544-5680

F A X

032-544-5687



| 2008

• 08. 02. 11. 사회복지법인 예원 설립

| 2009

• 09. 12. 30. 중증장애인시설 예원 신축

| 2010

• 10. 03. 16.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글로벌 예원 개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글로벌 예원 1
대 원장 방영순 취임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2008-현재 1대 대표이사 방영순	2008-현재 사회복지법인 예원	2010 글로벌예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2011-현재 예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2011

- 11. 09. 01. 체험홈 1호 개소
- 11. 01. 0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예원으로 시설명칭 변경

| 2014

- 14. 09. 01. 체험홈 2호 개소

대표이사 이력



방영순
1대 대표이사(2008~현재)

■ 1대 대표이사 : 방 영 순(房英順), Bang Young Soon(1958. 05. 04~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2003. 08. 14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 석사) 졸업

경력

- 2001. 04. 12~2007. 03. 01 그린코아유치원장/대표이사
- 2008. 02. 11~현재 사회복지법인 예원/대표이사
- 2011. 09. 01~현재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

주요저서/논문

-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만족도 연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법인 및 신하기관 예원(2010)

2) 법인사업



장애인 예술제



탈시설 자립지원 설명회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예원 산하 체험胡同 2개소 개소



1:1 자매결연식



성교육 프로그램



연극치료 프로그램

미션

주 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2리 1116번지		
홈페이지	www.happy-town.kr		
전화번호	032-465-1540	F A X	032-465-1541



2000	2010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 02. 14. 사회복지법인 미션 설립• 09. 01. 12. 해피타운 시설 인가• 09. 04. 09. 주안로타리클럽 협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04. 16. 개원1주년 기념식• 10. 04. 16. 한국남동빌전 영흥화력본부 협약• 10. 06. 01. GM대우 힌마음재단 마티즈 차량지원• 10. 11. 15. 시화병원 진료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01. 03. 해피타운 원장 박혜숙 취임• 11. 06. 13. 영흥 상공인협회 후원 제과제빵기 기 설치• 11. 12. 06. 거주장애인 생활가구 마련을 위한 일일호프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2008-현재 1대 대표이사 박선원	2008-현재 사회복지법인 미선	2009-현재 해피타운

| 2012

- 12. 06. 12. 거주인 중국(청도)여행 [4박 5일간]
- 12. 07. 30. 산림청 지원 녹색복지공간 조성
- 12. 10. 30.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해피장터 실시

| 2013

- 13. 12. 24. 해피타운송년회 및 해피크리마스 실시

| 2014

- 14. 06. 30.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협약

대표이사 이력



박 선 원
1대 대표이사(2008-현재)

□ 1대 대표이사 : 박 선 원(1962.10.18-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동인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정책협동과정 박사과정 졸

경력

- (前)주식회사 선두기업 대표이사
- (前)주식회사 선두종합건설 대표이사
- (現)사회복지법인 미선 대표이사
- (現)재단법인 미선장학회 대표이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2) 법인사업



개원1주년 기념식(2010)



여름캠프(2011)



해피장터(2013)



해피봉사단(2014)



중국여행(2012)



제과제빵 프로그램(2013)

한길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43-67
홈페이지	hangiljaedan.or.kr
전화번호	032-503-0043

F A X

032-503-3390



| 2008

- 08. 03. 12. 사단법인 한길재단 설립(대표이사 정규형)
- 08. 04. 04. 제1기 한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18명)
- 08. 06. 27. 제1차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08. 07. 05. 미추홀오페라단 공연 후원
- 08. 08. 22. 제1회 장학생 격려만찬
- 08. 12. 04. 제2차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08. 12. 22. 시각장애인 초청 송년음악회

| 2009

- 09. 02. 20. 정기 총회 및 제 2회 장학생 격려 만찬
- 09. 04. 03. 제2기 한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13명)
- 09. 08. 07. 정기 총회
- 09. 08. 17. 제3회 장학생 격려만찬 및 GM대우 자동차 공장 견학

| 2011

- 11. 03. 02. 사단법인 한길재단 해산 사원총회 및 사회복지법인 설립 빌기인 총회
- 11. 03. 07. 사단법인 한길재단 해산 허가(인천 시청)
- 11. 07. 20. 사회복지법인 한길재단 설립 허가 (인천시청)
- 11. 08. 17.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기 완료
- 11. 12. 28. 이사회 및 한길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격려만찬

법인 계보



| 2012

- 12. 01. 25. 정관변경등기(기본재산 총7억)
- 12. 07. 제5기 한길장학생 선발 (고교 1년생 11명)

| 2013

- 13. 01. 15. 신임 이사 선임(이도형 · 이광식)
- 13. 03. 02. 감사 2인(민대동 · 송원영) 연임
- 13. 05. 제6기 한길장학생 선발 (고교 1년생 11명)
- 13. 03. 02. 이사 5인(정규형 · 이수호 · 윤장배 · 유대우 · 장현근) 연임

| 2014

- 14. 05. 제7기 한길장학생 선발 (고교 1년생 11명)

대표이사 이력



정 규 형
1대 대표이사(2008-현재)

□ 1대 대표이사 : 정 규 형(鄭圭亨), Chung Kyu Hyung(1951- 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77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88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84 (前)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 2000 (現)의료법인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대표이사
- 2011. (現)대한병원협회 총무이사

상훈

- 2007 제19회 아산상 대상 수상
- 2008 제24회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 2011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상
- 2012 제7회 인천사회복지상 대상 수상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한길재단(2014)

2) 법인사업



제1회 한길장학증서 수여식(2008)



한길재단 제1기장학생 격려만찬(2008)



한길재단 장학증서 수여식(2011)



한길재단 송년의밤(2010)



길재단 장학생 격려만찬(2011)

정도원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58-155
홈페이지	www.familyhyosung.co.kr
전화번호	032-889-3114



| 1980

- 89. 11. 18. 동인천 정도사 점안식

| 1990

- 90. 01. 09. 한국불교법률종 인가
- 90. 12. 14. 정도사 용현동이전 상량식
- 91. 03. 20. 정도사 증불사 점안식
- 93. 02. 18. 주지스님 한국불교법률종 이사 취임
- 93. 03. 03. 영종도 정도사 부지계약
- 99. 09. 01. 영종도 정도사 기공식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인	시설
2008~현재 대표이사 천영순	2008~현재 사회복지법인 정도원	2010~현재 가족같은 효성요양원

| 2000

- 02. 03. 08. 정도사 영종도 이전
- 03. 03. 05. 효성어린이집 개원
- 07. 05. 30. 효성요양원 부지계약
- 07. 08. 15. 사회복지법인 정도원 발기인총회
- 08. 04. 04. 사회복지법인 정도원 설립허가
- 09. 06. 25. 가족같은효성요양원 건축허가

| 2010

- 10. 07. 20. 가족같은효성요양원 사용승인
- 10. 09. 17. 가족같은효성요양원 개원
- 13. 06. 07. 강당증축신고
- 13. 10. 17. 강당사용승인

대표이사 이력



천 영 순
대표이사(2008-현재)

■ 1대 대표이사 : 천 영 순(千榮順), Chun Yeong Sun(1940.12.18-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59. 02. 15 안양미용기술학교 졸업

경력

- 1988. 04. 20~2007. 07. 08 정도사 주지
- 1988. 04. 30~현재 법륜종 이사

상훈

- 2010. 10. 09 인천중구청장 김홍복 감사패
- 2014. 10. 02 (사)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연합회장 김경현 감사패

주요저서/논문

- 정도사 불보살님 귀거래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정도원(2008) · 가족같은효성요양원(2010)

2) 법인사업



효성직원 산악회(2012)



어버이날 행사(2013)



어르신과 가족봉사자, 직원이 함께하는 아라뱃길 봄나들이(2012)



맞춤프로그램 원예치료(2014)



지역특화사업 풍선아트(2014)



인일여고상호협력MOU체결(2012)

더모닝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699(고잔동, 147블럭 8롯트)		
홈페이지	www.themorning.or.kr		
전화번호	032-882-1885	F A X	032-882-1887



| 2000

- 07. 07. 인천 시옹진군증증장애인요양시설 확정
- 08. 04. 해비라기시설 건축허가
- 08. 07. 16. 사회복지법인 더모닝 허가
- 08. 07. 16. 사회복지법인 더모닝 이영자 대표 이사 취임
- 08. 09. 해비라기시설사업 승인
- 08. 11. 01. 해비라기 기공식
- 09. 12. 02. 해비라기 건축 준공

| 2010

- 10. 01. 29. 해비라기 증증장애인요양시설 설치 운영신고
- 10. 01. 29. 해비라기 1대 시설장 한철교 취임
- 10. 11. 15. 사회복지법인 더모닝 이전

| 2011

- 11. 06. 30. 해비라기 1대 시설장 한철교 정년퇴임
- 11. 07. 06. 해비라기 2대 시설장 한미자 취임
- 11. 10. 18. 해비라기 2대 시설장 한미자 퇴임
- 11. 10. 25. 해비라기 3대 시설장 김태환 취임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인	시설
2008-현재 1대 대표이사 이영자	2008-현재 사회복지법인 더모닝	2010-현재 해비라기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2012

| 2013

| 2014

- 12. 04. 09. 응벽보완 및 산책로 설치공사 준공
- 12. 07. 10. 옥외창고 증축
- 12. 08. 04. 냉·난방기 보강공사 준공
- 12. 08. 31. 장애인용 특장버스 구입

- 13. 02. 28. 해비라기 3대 시설장 김태환 퇴임
- 13. 03. 25. 해비라기 4대 시설장 한미자 취임

- 14. 12. 종합활동실 증축

대표이사 이력



이영자
1대 대표이사(2008-현재)

□ 1대 대표이사 : 이 영 자(李榮子), (1953.11.25-현재)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산하기관 해바라기(2014)



산하기관 해바라기(2010)

2) 법인사업



해바라기의 시작(준공식)(2008)



해바라기 가족 첫나들이(2010)



인천장애인시설협회 한마음체육대회(2013)



해바라기 가족 가을 운동회(2011~2014)



해바라기 송년행사(2010~2014)



해바라기 나눔행사(2014)

한원복지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8-11(심곡동)
홈페이지	http://www.hanwon.or.kr
전화번호	070-8633-8246

F A X

070-7500-0601



| 2011

- 11. 09. 16.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발기인 총회
- 11. 11. 07.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설립허가
- 11. 12. 23. 느티나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고

| 2012

- 12. 04. 27.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및 느티나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립기념식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 인	시 설
2011-현재 1대 대표이사 이용달	2011-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2011-현재 느티나무 주간보호시설

2013-현재 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2013

| 2014

- 13. 01. 29. 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신고

- 14. 03. 18. 서울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위탁기관 선정
- 14. 04. 11. 서울 구로구 2014년 어르신일자리사업(시장형사업) 위탁수행기관 선정

대표이사 이력



이 용 달
1대 대표이사(2011-현재)

■ 1대 대표이사 : 이 용 달(李容達), Lee Yong Dal(1927.01.21-현재)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60. 03 동아대학교 법정대학 상학과 상학사
- 1967. 03 동아대학교 대학원 상학과상하석사
- 1976. 01 미국 웨슬리대학 대학원 명예 경제학박사

경력

- 1963. 03~1992. 02 동아대학교 교수
- 1982~1984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
- 1990. 02~현재 이용달세무회계사무소 소장
- 1996. 01~현재 한원장학재단 대표이사
- 1997. 01~현재 학교법인 동아학숙 감사
- 1999. 11~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 대표이사

상훈

- 1958 부홍부장관상
- 1960 동아대 상학과 수석 졸업상
- 1970 동아학숙 10년 근속상
- 1988 문교부장관 표창
- 1989 대통령 표창
- 1990 교육공로 표창(연공상)
- 1990 동아대학교 학술상(사회과학부문)
- 1990 동아대 30년이상 근속상
- 1992 국민포장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 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한원복지재단(2011)



한원 장애인공동생활가정(2013)

2) 법인사업



법인 및 시설 설립기념식(2012)



나눔의숲 체험 캠프(2014)



나눔의숲 체험 캠프(2014)

신성재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로 16번길 15-12
홈페이지	www.seastar.or.kr
전화번호	032-468-4647

F A X

032-468-4648



| 2012

- 12. 08. 27.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12. 10. 07. 사회복지법인 설립총회 개최 (발기인 7명)
- 12. 12. 13. 인천광역시청 법인 인가
- 12. 12. 24.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설립 등기 (대표이사 김남희)

| 2013

- 13. 01. 24. “바다의 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남동구 남촌동)
- 13. 01. 24. “그룹홈안질로1호”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남동구 남촌동)
- 13. 02. 27.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시설 정회원 가입
- 13. 03. 14. 천주교 인천교구 가톨릭사회복지시설협의회 시설 가입
- 13. 04. 01. www.seastar.or.kr 홈페이지 개설
- 13. 07. 29. 사회복지지원봉사관리센터 지정

법인 계보

대표이사	법인	시설
2012-현재 1대 대표이사 김남희	2012-현재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2013-현재 바다의 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13-현재 그룹홈안젤로1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14-현재 그룹홈안젤로2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2014

| 2015

- 14. 03.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위한 LH 매입주택 임대
- 14. 05. 13. “그룹홈안젤로2호”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연수구 청학동)
- 14. 11. 28.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보수 공사 시행(인천공동모금회 지원)
- 14. 12. 28. 지하(35.7m²) 장애인이용자 휴게실 조성(한국가스공사 지원)

- 15. 01. 06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법인 회원 가입

대표이사 이력



김 남 희
1대 대표이사(2012~현재)

□ 1대 대표이사 : 김남희(金男禧), Kim Nam Hee(1973)

학력(졸업년도 기준)

- 1992. 02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2002. 02 인천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무역과 졸업
- 2005. 02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2008. 08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

- 1998~2005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원
- 2005~2008 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자립지원센터 팀장
- 2008~2012 안젤로공동생활가정 시설장
- 2012~현재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 대표이사
- 2013~현재 바다의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원장
- 2013~현재 그룹홈안젤로1호, 2호 원장

상훈

- 2007. 12. 21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 2008. 08. 22 인천대학교총장 표창장

주요저서/논문

- 장애인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2008

사진으로 보는 발자취

1)법인전경



사회복지법인 신성재단(2012)

2)법인사업



남동구청 평생학습 난타 발표회(2013)



천주교 인천교구 카리타스축제 참가(2013)



겨울 체험 캠프(2015)



바다의별 설치 초기 이용자 모습(2013)



국제 꽃 박람회 초청 참석(2014)

일러두기

‘인터뷰: 원로에게 듣다’는 인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신 원로 사회복지사의 가치관, 업적, 당시 사건을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구술 자료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음. 원로 자문위원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사양한 분은 제외 되었으며, 순서는 대상자의 연령순으로 배열함. 향후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자료를 구축할 계획임.

■ 인터뷰 집필

박선홍(1961. 인천. 現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초빙교수. 前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장)

■ 촬영 및 초록

심재홍(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원우(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 학과)

인터뷰 원로에게 듣다

前 신명재단 대표이사	허 돈
성촌재단 대표이사	김영주
前 신명재단 대표이사	김병호
송암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득린
손과손 대표이사	장영순
보라매 대표이사	우원근
	이계순
일현 대표이사	김영길
前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플우
백암한마음봉사회 대표이사	윤국진
성동원 원장	정 현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명선목
명성복지회 대표이사	김광용

비영리 목적 투명한 경영이 우리의 자랑



허돈
前 신명재단 대표이사

“내가 한센병환자였다는 것에도 감사”

신명보육원 이사, 청천농장 회장직을 맡고, 세계를 돌며 선교활동 등 60여년 세월을 고스란히 사회복지에 헌신한 허돈(81) 신명재단 이사장. 그는 노인요양원, 아동보육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신명재단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인천사회복지의 산 역사이다. “시인이자 한센병 환자였던 고 한하운 선생님이 1952년 신명보육원을 세우신거죠. 나야 동료등과 함께 이 사직을 돌아가면서 맡아 한 것뿐이지요.”

허 이사장도 한센병 환자였다. 한센병은 나균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이다.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 또한 아픔

으로 다가오는 병이다. 그럼에도 허 이사장은 ‘모두 고맙다’고 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투병생활하기가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비용을 다 지원해줘 오히려 고마운 마음만 있었다’고 말했다. 완쾌 된 다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나와서 살 수 있었어요. 또 정부가 사람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일반인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정부의 정착장려 정책에 따라 그는 청천농장에서 일할 수 있었다. 신명보육원 운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했



허돈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28년 경기도 평택시 원곡면에서 출생, 평택중학교 1회 졸업, 서울-경기 양계조합 이사, 대한양계협회 이사, 한성장로회 회장, 한성협동회 중앙이사, 예장 한남노회 장로회 회장, 사회복지재단 신명재단 이사장, 농협중앙회 감사패 수상, 대통령 표창 수상.

다. “성계원 문화부에서 선생 노릇을 했어요. 중학교 중퇴할 때쯤이었죠. 그 곳엔 한센병 치료를 받는 젊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애국심이 강한 최창문 원장님이 있었는데, 저를 눈여겨 본거죠. 그 때부터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쳤어요.” 종교도 한몫했다. 한하운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 성계원 치안본부에서 살았던 한하운 선생님은 그 곳에서 요양생활을 하며 종교 생활도 함께 했다. 선생님 옆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했다. 그 당시, 인천미군해병대사령부에서 미군 종국목사인 멜로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었다. 신앙의 영향은 나중에 신명재단이 중시하는 기독교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기독교적 정신, 믿음, 신앙이 그것이지요.’

그가 성계원의 문화부장으로 아이들을 열심히 지도 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성계원 아이들은 국립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하운 선생님이 신명보육원을 설립한 이유다. 신명보육원은 여려

형태로 운영됐다. 처음에는 학부형들과 한하운 선생님이 운영위원 제도로 운영하다, 보건사회부(지금의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협약을 받은 후엔 이사 제도로 바뀌었다. 한하운 선생이 돌아가시자 그가 이사장을 맡게 되었다.

신명재단 시설물 건축에 힘 써

신명재단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다. 인천시가 재단 부지에 주택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다. “신명재단을 운영하면서 노인요양원, 아동보육원, 식당, 신명빌딩 등을 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곳이 정부의 구역사업으로 넘어갔어요. 맹아학교 쪽으로 해서 반대쪽에 빌라 있는 곳이 다 신명보육원 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협소한 아이들의 숙소가 걱정되었다. 앞의 경작지는 재단의 자급자족을 위해 꼭 필요했다. 부단히 인천시장을 쫓아다녔다. 결국 협상이 타결됐다. 양쪽의 땅, 아파트 부지를 받는 대신 구역 정리로 인해 올라간 지



가는 시청에 부담하기로 했다. 다시 협상 데에 신명재단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아동숙소만 남을 뻔 했다.

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마련도 만만치 않았다. 건물 앞쪽에 ‘서울가든’이라는 식당을 임대한 이유다. 이 식당은 세를 주어 10년 동안 이용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10년이 지난 후에 재단은 기부채납을 받고, 그것을 다시 임대했다. 임대료도 받고, 건물도 재단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수익의 일정부분은 재단에 투입된다. 이 때문에 신명재단이 다른 사회복지기관보다 시설이나 환경 면에서 월등하다.

청천농장을 5·16 혁명 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게 된 것도 한하운 선생님의 뜻이 컸다. “역시 한 선생님은 장래를 멀리 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수익으로는 생활유지가 어려웠다. 아이들이 한하운 선생님께 각자 자유롭게 나가서 자활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안성의 부지를 팔고, 각자 80만원씩을 들고 나

갔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신명빌딩, 신명보육원을 짓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그 때 자립을 한 혼돈 이사장은 16년 동안 청천농장 조합장으로 일했다.

사회복지를 위한 그의 열정은 ‘신명’이라는 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뻗어 나갔다. 그는 인도의 IDEA라는 미션스쿨에서 고문역할을 하고 있다. IDEA는 전 세계 불우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IDEA는 초등학교를 지어서 1년에 졸업자 200명씩을 배출하기도 한다. 20년 전, 한국에도 IDEA가 설립됐다. 그는 한국IDEA의 발기인 중 한명이다.

“청렴도 조사하면 우리가 1위할 것”

좋은 일을 한다는 사회복지재단이 경영은 가끔 문제가 되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 일을 하고 지켜보다보니 의도와 상관없이 복지시설의 어두운 면도 보게 되었다. “이사, 감사, 회장, 이사장까지 조직이 전부 가족으로 구성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정과 비리가 만연해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부정비리를 감시하고, 관선이사를 두 사람 이상을 기본적으로 파송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당장 내년부터 관선이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올 예정이다.

반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신명재단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일부러 재단 안에 교회를 짓기도 했다. 신도는 대부분 요양원 할머니들이지만, 상주 목사도 있다. 씨족관계로 연합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3개 농장에 5명씩 참여하는 운영체제를 만들었다. 실제로 신명재단은 인천시로부터 지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가 실시된다면, 신명재단이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자부했다.

사회복지기관이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현 정부가 국가복지지원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보육원에 실질배당 혜택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에 맞게 요양원이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배당되어야 하지만, 사회복지기관에도 정부가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게 작은 바람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역사와 도덕교육”

오랜 시간 동안 사회복지에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를 물었다. 그는 역사교육과 도덕교육을 강조했다. 그는 역사에 대한 식견이 상당하다. 실제로 보육원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종종 역사 강연을 하고 있다. “아이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역사교육입니다. 최근에 역사를 선택과목으로 지정했다는 말이 있는데, 역사는 꼭 필수과목이 되어야 해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보육원 아이들이 생각났는지,

잠깐 침묵이 머물렀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당시 보육원에 속 씩이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는지 물었다. “도망가고 돌아다니면 잡아오고 별 짓 다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지는 않지요.”라고 말하며 그는 얇은 미소를 띠었다. 지금도 자주 연락하는 신명보육원 출신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명문 고등학교 회장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자식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 마음과 꼭 닮은 복지시설 허전 이사장의 말에는 신명재단이 가족 같은 복지시설임을 확신케 하기에 충분했다.





김영주
성촌재단 대표이사

김영주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34년 경기도 양평 출생, 단국대 영문과 중퇴, 현 성촌재단 이사장
평화원 서무, 성린보육원 총무, 성린직업 재활원 원장, 성촌의집 원장 등 역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국장애인직업평가회 회장,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등 역임
한국보이스카우트 인천연맹 제11대 대장, 한국보이스카우트 인천연맹 훈육위원이사, 부평경찰서 동암파출소 명예소장 등 역임
인천시민상,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상, 인천사회복지상 대상 등 수상

“집 한 채 없어도 후회는 없다”

정년을 마쳤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남지 않았다. 사실상 사회복지 실천전문가로는 1세대인 김영주 전 ‘성촌의집’ 원장(현 ‘성촌재단’ 이사장)은 그렇게 실천현장에서의 사회복지인생을 마쳤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선사업이 대부분이었지요. 저같이 처음부터 복지시설을 맡아 이렇게 한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온 삶에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지에 인연을 맺은 것은 한국전쟁이후 국내에 주둔한 미군 1군단에서 군복무를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단국대 영문과를 다니다가 카투사에 지원하여 갔지요. 영문타자도 좀 칠 줄 알고, 영어를 좀 하니까 대민원조사업에 배치 되었어요. 1954, 55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교들이 6.25 때 모두 불에 타 목재가 필요해 각종 시설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아원을 가게 되었지요. 고아원 원장님들이 ‘도와 달라’고 해서 가보니 그분들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오고 갈데없는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의식주 해결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 제대하면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1958년 8월 사회복지시설인 ‘평화원’에서 서무일로 시작해서 ‘성린보육원’ 총무를 거쳐 1965년 ‘성린보육원’(현 성촌의집) 원장을 맡았다. 그의 나이가 30세를 갓 넘은 때이다. 사무직으로 들어와 민주적으로 내부 승진한 첫 사례이다. 대부분 재단 설립자나 자식들이 대

를 이어 사업을 전수하는 관례에 비하면 파격에 가까웠다. “책임자가 인천도시관광공사 전무로 계셨던 김용해 씨였지요. 그분이 지병으로 몸이 불편해지자 제게 부탁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1965년부터 보육원 원장으로 시작하여 2001년부터 대표이사로서 성촌재단을 책임지게 되었지요.”

장애인에게 별을 보게 하는 마음으로

‘성촌’을 한자로 풀면 ‘별의 마을’이다.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는 장애가 아닌 손상일 뿐이므로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자는 뜻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랑과 의지를 담은 말이다. 성촌의집은 육아시설인 성린보육원으로 출발하여 1972년에 아동직업재활원 개원으로 장애인복지분야로 사업목적을 전환하였다. 당시 삼육재활원이 의료재활을 했었는데 의료재활을 끝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자 국가에서 직업재활을 유도하면서 시설이 바뀐 것이다.

“1969년에 십정동으로 이전해 와 성촌의집을 열려고 와 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애인들을 100명 네리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지요. 시급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거였지요. 곧바로 통장들을 전부 모셨어요. 식당에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개인이 하는 자선사업이 아니라 사회가 동참하는 사업입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이후에 통장들과 가깝게 되니까 때마침 개발지구가 선정되자 개발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고 이후엔 정화위원

장, 방범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맡겼어요.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지금 성촌의집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먼저 지었던 거 다 헐고 다시 시설을 개축했는데, 주민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도 전통가옥은 장애인에게는 불편하기 때문에 마루를 뜯어내고 통로를 만들어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 만들었어요. 원생들이 어떻게 하면 불편 없이 잘 지내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뒀지요. 이젠 모든 건물에 편의시설을 다 갖췄지요. 생활하는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 공간, 개인 옷장, 에어컨까지 설치를 해 거주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할 수 있는 직업교육

그는 197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전문직업재활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그 당시 장애인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좋지 않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들은 몸만 불

편한 뿐 집중력은 오히려 뛰어난 점을 강조하며 설득했다. 이렇게 기업을 상대로 설득한 결과 단순 조립작업으로 시작하여 시계 수리와 전기코일을 감는 기술 교육 등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당시 대대적인 경제개발 정책 시행으로 전기코일을 감는 일은 수요가 넘쳤고, 이에 일손이 딸릴 정도로 일감이 밀려들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장애인 기술과정이 손 기술과 감각을 요하는 병풍에 수놓는 기술과 양장기술 분야, 전자장비 생산 등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들의 꿈꿀한 일솜씨가 소문이 나면서 기업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여 장애인들의 수입 또한 크게 늘었다. 이러한 직업교육과 생활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의 모태가 되어, 직업생활을 하며 스스로 번 돈으로 75쌍이 결혼을 하여 사회인으로 출발했고, 자립하는 케이스도 200여명이나 되었다. 이들의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첫 발에 부모의 역할로, 결혼 주례자로, 사업 주관자로 함께 했던 감동들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배려해라”

그에겐 좌우명이 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 하지 말자’ 이다. “원생들이 제 마음과 달리 가슴을 아프게 할 적도 많죠.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리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과정을 쭉 이야기해 주면 그 때는 이해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잘못했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즉각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잘 될 거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에 대처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그의 이상과 꿈을 이루게 한 원천이다. 그는 늘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싶어서 했고 본인의 적성에도 맞았다. 자신이 조금 희생하고 노력하면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는 일하기를 좋아했다.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을 맡으면서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예술제를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 장애를 감춰서는 안되고 당당하게 사회인으로 보여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의도였다. 또한 협회장을 하면서 각 복지시설 파트별로 각종 세미나도 열고 연구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위상을 높였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참석하여 실상을 알게 하고 사회복지 직원 해외연수도 시행했다. 현 종사자수당제도 인 직원들 수당제도도 도입했다. 차근차근 종사자들의 대우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렇듯 장애인 및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온 공로로 그는 인천 시민상 수상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 등 많은 포상을 받았다.





비전을 갖고 마스터플랜으로 차근차근

그의 인천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인천은 저의 제2의 고향입니다.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라고 하듯이 자기가 살고 머무는 곳이 고향인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서울로 직장을 다니니까 인천은 그냥 거주하고 잠자는 데로 인식하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라는 게 없어요. 부모들로부터 애착심을 가져야 자식도 달라집니다. 사람이 오고가는 정도 있고 이웃 간에 친교도 있어야하고 이렇게 했을 적에 화합이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자생단체 여러 개 해봤지만 지역분파가 아주 강해요. 지역에 살면 그게 없어져야 그 지역이 평화롭고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는 사회복지가 제대로 실천되어야 잘 사는 인천이 된다고 믿는다. “자생단체 한 군데가 잘된다고 해서 인천의 사회복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복지의 발전 키포인트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공유해야 합니다. 전문 연구기관들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현장성 있는 발전 대안을 계속 내놔야 합니다.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는 향후 인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당부한다. “사회복지는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삶의 질은 국민의 삶의 질인데, 삶의 질이 향상됐을 때 사회복지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거시적인 생각, 즉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차근차근 너무 욕심을 갖고 하지 말고 실행하면 됩니다. 비전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는 인천에 사회복지의 씨앗과 성장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제 이를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할 후대의 노력만이 남았다. 그는 이후로도 영원한 사회복지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센병환자에서 사회복지 큰 어른으로



김 병 호
前 신명재단 대표이사

한하운 선생의 교육결단이 탄생 배경

김병호 신명재단 대표이사. 그는 인천에서 나고 자란 신명재단의 1세대다. 11살 때 한센병이 발병돼 14살 때 치료하려 동인요양소에 들어간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명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나병환자’라는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자란 그에게는 남다른 아픔이 있었다. 그의 희망은 재단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남다른 흥망성쇠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복지원 하고는 달라요. 다른 곳은 사회복지 사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시작한 것 이지만 신명재단은 처음엔 교회 부설로 요양소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처음 이름이 ‘동인요양소’였다가 ‘성계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한센병을 앓고 있어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중증이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부모들은 ‘나병 환자인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함께 교육 못 시킨다’고 거세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당시 한하운 씨가 아이디어를 냈지요. ‘우리는 분교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땅을 사서 별도의 보육원을 만들어서 분교해서 한센병환자를 내보내지 않고 따로 키워서 일반 사회학교에 동등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였지요. 그래서 보육원이 만들어 졌습니다. 다른 복지시설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이었지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한센병 시달려

요양소에 들어올 때 그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악성 한센병환자였다. 그의 얼굴 등 곳곳에 아직 병의 흔적이 있다. 하지만 병이 신의 도움인지 치유되면서

25살에 부평 성계원에서 결혼해 청천동에 정착했다. 이후 축산업을 40년간 해오다 88년도에 사업을 접었다. 신명재단 대표이사를 한지는 올해로 6년이다.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그의 삶은 우여곡절의 길이었다. “형제가 8남매였는데 흥역으로 제 위로 두 명은 죽고 동생들도 세상을 떠나 4형제가 남았어요. 제가 11살 때인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에 갑자기 한센병에 걸렸고 아버지마저 해수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일본사람 상대로 배를 타며 어업에 종사했어요. 제 학력은 초등학교 4년이 전부예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은 종교의 영향이 커요. 처음에는 주위환경 때문에 우연히 접했는데 나중에는 종교에 귀의하게 됐어요. 또 1961년에 나와서 자활을 시작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축산업으로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산업을 한 것은 제 병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병을 앓고 있을 때 한센병 권위자인 의사가 와서 다른 서울대 의대생들에게 강의 하는 걸 듣게 됐는데 ‘영양이 결핍 되서 병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보리쌀만 먹으면서 지냈으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신경통을 앓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원조가 들어와서 밀가루랑 우유가루가 보급돼 먹으니까 제 건강도 좋아지는 걸 느낀 거죠. 그래서 닭을 한두 마리 키우다가 나중엔 3만 마리까지 키우고, 돼지, 오리, 토끼도 길렀지요. 농사를 하다보면 퇴비가 필요하니까 축산을 하고 또 사료가 필요하니 사료공장을 세웠지요. 하지만 대기업에서 사료와 축산업에 뛰어들어 경쟁이 안 돼 접었지요. 토지를 공장에 임대하니

김병호 신명재단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35년 인천 송림동에서 출생, 한민족사랑 네트워크 이사장, 해피나우 NGO 이사장 역임, 장로신문 사장 역임, 신명재단 이사 및 이사장 역임, 한국어린이 전도협회 인천지회 이사장 역임, 국제기독온협회 북인천캠프 회장 역임



까 힘들이지 않고 수익을 보게 됐어요. 그 수익으로 세계 선교활동도 하고, 신명재단 대표 이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해주고 싶은 생각과 신앙으로 운영

그는 신명재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친인척 등 가족경영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이라고 강조한다. “신명재단의 산파역은 한하운 씨입니다. 그분이 나중에는 사업에 눈을 떴고 성계원 자치회에서 일부, 학부모들의 모금으로 땅을 구입하여 보육원을 설립했고, 후에 십정농장, 청천농장, 부평농장을 대표들이 모여 신명재단을 키운 것이지요. 현재는 2세대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자 가족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신앙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도 짓게 되었어요. 이사가 9명인데 모두 다 자영업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에 참여도 못해요. 반평생을 여기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제가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깊은 애정이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못 한 것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신앙의

힘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제 자랑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재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자체 장학금’과 비영리목적의 운영시스템 때문이다.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장학금을 줘서 원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특히 요양원에는 이윤을 추구하려고 설립된 시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지요. 6년 동안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시설에 필요한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됐다고 자부합니다. 신명보육원이 한국 최초로 아동복지분야 ISO 9001인증을 받았습니다.”

정서 안정위해 오케스트라 추진

전쟁고아가 많았던 50, 60년대와 달리 현재 복지시설 있는 아이들은 90% 이상이 가정이 있지만 부모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이 해체돼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정서안정을 위한 음악치료와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한다. “아곳 아이들



은 부모에게 소외받고 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감정조절을 못하거나 자기표현을 못하고 또래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해요. 늘 정서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잊은 싸움 등 갈등 상황이 쉽게 일어나고, 선생들과 갈등이 생기면 분노조절 장애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야, 너희들이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냐?’고 한다는 겁니다. 참 참담하지요.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음악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제3회 오케스트라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악기를 하나씩 구입했고 자원봉사자들도 주 2회 와서 교습을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숙소나 먹는 것, 입는 것 등 환경이 웬만한 중산층 가정보다 좋습니다. 해외를 가는 기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 그쪽 아이들의 빈곤함을 이야기하면 처음엔 아이들이 듣지도 않고 이해를 못 하더군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한 게 오케스트라 구성입니다.

이젠 많이 달라졌어요. 오케스트라 연주가서 구경도 하고, 연주도 하고, 연습도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변하더군요.”

그는 직원 채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신명보육원은 꿈이 있는 꿈나무들이 자라는 곳으로 요양원은 흔히 제2의 고려장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돌봐 주기를 부탁 합니다. 오고 싶어 하는 복지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직무를 했느냐 보다는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원생들에게 당부한다. ‘참 되게 살아라’고. “거짓되게 사는 사람들의 끝은 반드시 자기가 살아온 데로 결과가 맺어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복음을 기억하고 진실 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는 신명재단이 사회복지 사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본연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가 성장한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인천을 사회복지의 명품도시로



김득린
송암복지재단 대표이사

김득린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36년 평안북도 정주군 출생, 6.25때 월남, 태광고등학교 졸업, 숭실대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졸업, 숭실대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취득, 숭실대 총동문회장(7~8, 11, 22대), 숭실대 장학재단 이사, 평북 중앙도민회 상임부회장, 사회복지법인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한국아동복지협회 회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한국사회복지유권자연맹 상임고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운영위원, 정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상임 보건복지부장관상, 법무부장관상, 통일원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국민포장, 국민훈장 목련장, 대한민국사회복지대상 수상.
저서로는 「사랑의 바다로 복지의 나라로」, 「사회복지종합가이드북」 등이 있음.

어머니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

김득린 송암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법학을 전공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총학생회장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졸업했다. 법대를 나왔음에도 훈한 사법고시도 보지 않고, 공무원 생활도 하지 않고 사회복지에 선택했다. 그 이유부터 물었다.

“법과 관련된 일 보다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돋고, 불우한 사람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습니다. 15, 16살 때쯤 한국전쟁 통에 피난을 갔던 어머니께서 전북 군산 시청에서 부녀과장으로 하시면서 고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지요. 거리에서 해매며 죽어가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만드신 거지요. 고아 10명을 키우신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1953년 9월에 군산에서 고아원을 설립했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1958년 인천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인천에 와서 터를 잡고 고아원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고아들하고 성장 한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고아들하고 먹고 자고 함께 친구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머니의 유업을 받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요. 대통령의 꿈도 갖고 있었지만 ‘불쌍한 사람, 아이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커 법 공부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사회복지로 오늘 까지 일평생 한 길을 걸어온 겁니다.”

군산에서 인천으로 면 길을 떠나왔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동복지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 김전 회장 또한 아동복지를 하나님께 준 본인의 사명이라 여기며 어머니의 유업을 받들었다.

“어머님이 교회 권사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일을 하나님께 준 텔런트(재능)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어려운 사람들과 아동, 고아들, 또 장애인들을 위해 요양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복지복권 발행 고려해볼만하다

13, 200m²의 넓은 부지에 복지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보조가 필요했다. 사회복지법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부가 있었다. 당시 인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도움으로 인천에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생길 수 있었다. 하지만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그는 사회복지시설의 전국 평준화를 강조한다. “인천에 사회복지시설이 다 몰려있어요.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주면 지자체에서 50%를 줘야하는데 문제는 50%를 댈 만한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재정에 압박이 됩니다. 이걸 분산시켜야 한다는 거지요. 직원들의 급료도 수당 같은 건 지자체에서 보전해줘야 되는데 부담이 가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직원의 급여에서 차등이 발생합니다. 즉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원은 급여를 많이 받고, 지방에 있으면 적게 받는 이런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것을 평준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그는 시설 평준화와 더불어 공동모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한다. “내가 전국 대표로 있을 때는 지방도 독립법인이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모금한 것은 각 지방에서 쓰게 만들었는데, 이것

을 모두 모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원으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공동모금액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배분과 모금의 문제가 생기고 모금을 해도 모이지도 않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인천은 1억 이상의 기부자들도 꽤 있으며 비교적 모금이 잘되지만, 모금액이 모두 중앙으로 올라가 재배분되는 현행 공동모금의 구조로는 인천이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국민 행복’입니다. 이를 위해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행복을 주어야 합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시민행복’이었잖아요. 시민행복은 소외계층, 불우계층, 장애인계층, 노인계층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안으로 나는 복지복권 봉행을 제안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사회복지에 충당하고 일거리를 창출하여 소상인들이 살 방도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아무튼 돈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부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공동모금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적은 임금을 늘 그는 걱정한다. 사회복지사들끼리 연애해 결혼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정도로 어렵다는 현실이지만 사회복지사로서 생명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회복지사한테 특강을 할 때 늘 강조합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가난하지만 봉사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어려운 걸 참는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안 하느니 만 못하니 열심히 가는 길만 가다보면 인도를 받을 것이고, 당대에 축복을 못 받으면, 자식이 축복을 받을 것 아니냐? 희망과 꿈을 가지





고 열심히 하자'고 말합니다. 웃음을 주고 나눠줄 때 행복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며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쉬워지면서 생기는 업무나 태도의 질적 저하를 지적한다. 더불어 상담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배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설에 들어오는 애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입니다. 며칠 고 입히는 문제가 아니라 치유하는 상담요원이 필요하지요. 전문 상담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급여가 워낙 적어 버티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늘 직원들을 만나면 미안합니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심장과 같아

1957년 평안북도에서 월남하여 50년을 넘게 인천에서 보낸 김 대표이사가 느끼는 '인천사랑'은 무엇일까. 그의 인천관을 물었다. "인천이 잘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째, 인천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둘째는 인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의 상징입니다. 반면 인천은 우리나라의 심장입니다. 중국에 가면 북경은 상징적인 수도이지만 상해가 심장이듯이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하늘로 뻗혀가는 게 인천입니다. 인천이 살아야만 동북아가 사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인천을 아껴야합니다. 인천에 사는 자체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인천에 사는 것에 큰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인천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는 복지인으로서 희망도 비쳤다 "인천은 장애인의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의 천국이 인천이 되면 좋겠고요. 인천을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명품'이 뭐냐고 할 때 사회복지사와 불우한 사람들, 소외계층들이 잘 사는 행복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인천의 명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젊

은이들이 앞날의 큰 포부를 가지고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사회복지하는 하나님 준 재능

그는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14년 했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3선에 걸쳐 8년간 역임한 사회복지의 산증인이다.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빼놓지 않았다. "인천 사회복지하는 분들은 축복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텔런트입니다. 자기가 평생 가야할 목적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은 필요 없지요.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데 같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인들이 단결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자기를 버리고 하나가 되어 정말 인천을 위한 것, 인천의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것. 이 일에만 우리가 전심해 나가면 큰 복과 기쁨이 올 것입니다. 스스로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서



장영순
손과손 대표이사

새로운 도전

장영순 대표이사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82년 2월에 사회복지법인 손과손(前 사회복지법인 우리보육원) 제2대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 당시 법인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폐쇄 직전의 사고 시설로, 중증장애인 60여명이 대부분 영양실조와 피부병 등 여러 질병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상태의 장애인들은 2월의 찬바람에 악취와 함께 뼈 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그대로 던져져 있었다. “시설 안의 모습은 악취와 배고픔·병마와 추위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는데, 밖에 저 사

람들은 유유히 자기들의 길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타기도 하고 또 걸어도 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안과 저 밖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만 하게 느껴졌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다른 곳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43세 2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가련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 소리가 되기를 자처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명

당시 너무도 두렵고 떨렸으나, ‘내게 능력



장영순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38년 부산 출생, 1982년 제2대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대표이사 취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부회장, 대한정신지체인애호협회 인천지부장, 한국장애인시설협회 인천지부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장애인거주시설 예림원 원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핸인핸 원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라는 말씀이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떨림에서 자신감으로 지켜주었다고 한다. "때론 힘들고 지쳐서 되돌아 볼 때도 있었지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앞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나침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한 길 장애인들의 복지 실현을 위한 목표의 방향으로만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은 부끄럽지 않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었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기를 소원하면서 부족하지만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만이 세상에서 제가 받은 것 중 가장 큰 축복이라 확신하며,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은 오직 한 길 중증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

하여 나를 겸손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소명은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만들어 가는 세상 그것 뿐이었습니다."

변화 도약의 시기

1981년에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1982년 2월에 시행령의 재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1982년 2월 장애인복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저는 몰랐지만 무질서하고 암울한 시기는 조금씩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원에만 의존하던 복지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으나, 획기적인 변화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환경적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되면서 서서히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1989년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고, 생활시설 안에 속해 있던 자립작업장을 직업재활시설로 분리하여 직업재활의 중요



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1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 직업재활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직업재활시설을 5단계로 유형 개편을 단행했고, 법인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근로시설인 핸인핸과 보호작업장인 예림일터를 설치·운영하며 직업 재활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변모하여, 생활시설(예림원)과 교육시설(인천예림학교)을 기반으로 삼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중심기업 핸인핸, 예림일터로 성장하여 사회통합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사회복지현장은 학문과는 다르게 급박한 현실과 부닥쳐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양분된 생각으로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본 법인은 내 일을 향한 미래 지향적 사업의 모델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이를 위해 국내외의 연수를 통해

일본에서는 인격적인 인간존중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미국에서는 그룹홈·개별화 프로그램과 직업 재활 교육을 배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을 통한 현장교육은 어떤 재활교육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 존중이란,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그 지역 사회 일원으로 존중 받을 때 삶의 가치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소모적인 존재에서 생산적인 존재로 변화해 가는 도전은 감동과 희열이었습니다.”

생산적복지로 가는 길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의 슬로건이 장 대표이사를 더 큰 결단으로 이끌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필요했다. “장애인들의 고



용도 늘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적합한 아이템을 찾아내는 것이야 말로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꼭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끝없이 도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1999년 핸인핸은 첫 솔 제조 사업을 출발하게 된다. “부모의 가슴에 한으로 남아있는 장애인들에게 일하는 기쁨이란 저의 기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월급을 지불하게 되었을 때의 그 벽찬 기쁨, 장애인들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게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가슴 벽찬 일이었습니다. 장애인에게의 사회복귀와 사회통합이란,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통한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인권존중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일이 있어야 사람대접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란 신념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직업재활에 온 힘을 모았습니다. 일이 있어야 삶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생활훈련과 교육,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사회통합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중증장애인의 One 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암울의 시기에는 ‘범사에 감사하자’로, 태동의 시기에는 ‘서로 사랑하자’로, 도약의 시기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로 정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장 대표이사는 암울했던 터널을 지나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한 사람이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으며, 직업재활에 초점을 맞춰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중심 기업으로 소외된 장애인들의 일자

리를 만드는 일에 기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내일을 바라보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를 때때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열심히 싫증도 내지 않고 꾸준하고 묵묵히 일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태도에서 내일을 포기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어떤 선택이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향기라는 것을.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뿐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음은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라는 절박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사와 희생으로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같은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걸어 왔던 모든 동료 여러분께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꿈을 생각하고, 내일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하는 게 꿈



우 원 근
보라매 명예대표이사

선교활동하다가 인연 맺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눠야 했던 빼아픈 한국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대. 부모를 잃어버려도 살아남은 아이들은 먹어야 했고 잘곳이 필요했다. 인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같은 곳 앓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 그들을 보호하고 탄생한 곳이 ‘보라매고아원(초대 원장: 김보경)’이다.

1951년 당시엔 경기도 부천군에 속해 있던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위치한 고아원은 이후 1967년 인천 동구 화수동으로 옮긴다. 전쟁 통에 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만들었지만 기껏해야 정부가 지원해주는 쌀과 원조

밀가루가 전부였다. 밥은 7할이 보리였다. 직원들 급료 같은 건 기대도 못했다. 그래도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우원근(2대 원장) 목사가 이곳과 인연을 맺은 건 1963년이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엔 섬이던 영종도로 1주일에 한 번씩 선교하러 갔다가 공부도 가르친 게 복지사업에 뛰어든 계기가 되었다.

우 목사는 김보경 초대 원장을 이렇게 기억한다. “6.25 전쟁 이후에 아동 수용 시설이 많이 생겼어요. 주로 미군부대를 중심으로 생겼지요. 부평, 송탄, 수원, 의정부, 그리고 영종도에. 김보경 초대 원장님은 아이들을 너무 좋아



우원근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42년 황해도 평산 출생, 1.4후퇴때 월남, 대한신학 대학교 졸업. 대한신학 대학원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육군 군목제대, 성서드라마사 대표, 월문교회 당회장, 진광전원교회 원로목사, 보라매보육원 원장, 사회복지법인 보라매 대표이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종회 종회장, 대신 증경종회장, 예수교장로회 종회 군선교후원회 회장, 기독교 TV CTS이사,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이계순
보라매 대표이사

하셔서 고아들을 모아 사무실 주택을 개조해서 보라매고아원을 설립하신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교육시키기가 불편하니까 인천 화수동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외국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선교사가 필요했어요. 제가 때마침 신학교를 나왔고 일찍이 복지에 관심이 있던 걸 친구가 알고 추천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매개 역할을 한 5년 하다가 군복무 후 전역해 와보니 고아원에 대한 지원도 끊기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상태였죠. 제가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저한테 경영을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처음에는 목회중이라 거절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과로로 쓰러지면서 더욱 힘들게 되어 그때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목사는 이후 <사회복지법인 보라매보육원>으로 만들고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를 수료하여 전문인으로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15년 교직 접고 아이들 위해 헌신

우 목사의 아내 이계순 3대 이사장은 교육대학을 나와 15년간 재직했던 초등학교 교직 생활을 접고 남편을 따른다.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남의 자식만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자식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 우 목사님이 교회에 새마을유아원을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없다. 돈 안 받고 운영할 사람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제가 사표를 내자마자 그걸 맡게 됐어요. 1, 2년 있다가 관둬야지 한 게 8년을 했지요. 그러다가 동구에서 <법인 보라매>에 화도어린이집을 위탁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7년 운영하다가 <보라매보육원>을 제가 맡게 되었지요. 보육원을 맡아보니 초등학교 교육보다는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들을

돌보는 것이 참 새로운 경험이었죠.

이계순 이사장은 보육원에 부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보육원을 ‘개인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일대일의 조직을 생각하게 된다. 단체 배식에서 뷔페 방식으로의 전환, 일대일 자원봉사자를 통한 스터디, 각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인일기 예체능, 눈높이학습, 개인지도 체제 등을 도입하여 대학교 진학을 위한 학구의지를 북돋은 결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동들은 직장을 구하려는 것보다 대학생이 되려는 아동이 늘게 되었다.

이후 인천시 아동일시보호시설인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2007년 4월에 개원하여 인천에서 발생된 학대아동, 방임아동, 해체가정아동, 기아, 미아 등의 24개월부터 중3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3~6개월까지 일시보호하며, 연고자 상담을 통해 가정 복귀 또는 시설 전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이사장의 교육 열정은 대단하다. “일시보호하는 기간에는 아동을 학교에 못 보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학교에 안 보내느냐고 그려는데 여기 오는 아이들은 오늘 왔다가 내일 갈 수도 있고 2개월에서 6개월이 될 때도 있거든요. 부모가 언제 데려갈지도 모르구요. 아이들 교육기관을 옮기면 부모들이 경황이 없고 행정절차도 시간이 요구되고, 갑자기 전학을 해도 적응이 잘 안된 상태에서 또 전학을 하니 아동들에게 혼란만 야기되는데 그렇다고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애들 공부 좀 가르쳐주십시오. 한글 아시지 않습니까? 구구단 아시지 않습니까? 덧셈 아시지 않습니까?’ 라며 사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통해 아이들과 1대1로 공부를 시켰죠. 덕분에 2010년도에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았지요. 물론 관할 교육청에서 인건비 같은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하는 부분은 ‘출석이 인정되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여기

이계순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47년 황해도 사리원 출생, 춘천교육대학 졸업. 대룡, 양평, 부천동, 회접초등학교 교사, 진광 새마을 유아원 원감. 서울 성동구 평화통일 자문위원, 서울 성동구 아동위원, 서울 성동구경찰청 청소년 선도 위원, 인천화도어린이집 원장, 보라매 보육원 부원장, 인천보라매 아동센터장, 인천 보라매대안학교 대표, 인천 중구 사회복지 대표위원, 인천 사회복지시설 대표 회장, 사회복지법인 보라매 대표 이사, 모범지도 교사 표창, 경기도 관내 학창지도자 표창, 인천광역시장 표창, 대통령 표창, 인천사회복지상 수상

오면 결석도 되지 않고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교육과정을 다 거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취’

인천보라매아동센터가 대안학교로 인기를 받게 된 데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던 덕이 크다.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교육 의지가 없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취’의 의미였다.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성취의 경험을 안겨 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했다. 보라매 이계순 대표이사는 그 해답을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한다’예요. 너 어제 기어 다녔잖아. 오늘은 걸어 다녀야 돼. 내일은 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무언가를 해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되는 걸

알면서 공부를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애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면 그때부터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일반학교에서 안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죠. 이동네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거죠. 제가 용유도까지 다니면서 도자기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골프회사를 노크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시간씩 골프를 가서 배우고. 입장비까지 생각하는 역할극 배우도 섭외하고, 성품퍼즐이며 보드 게임, 방송댄스, 색종이 접기, 태권도, 여러나라 어학, 기타 체육활동 등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어하죠. 음악도 국악부터 시작해서 클래식 뿐만 아니라, 오카리나, 핸드벨, 난타, 우쿨렐레연주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 철학을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문제는 재정 문제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으레 직면하는 고민이다. 문제는 지역별로 다른 복지 때문이다. 중앙에서 일괄





적으로 지원되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와 달리 아동복지 시스템은 지자체 소관이다. 때문에 충청도 지원 규모와 서울 지원 규모가 다르다. 지원이 표준화되지 않다 보니, 보육사들의 이동 문제도 잦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라매는 눈을 돌렸다. 후원금 말고 재능 후원으로 전환했다. 돈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지역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저마다의 재능과 장소는 어디든 아동복지시설의 놀이터고 학습 장소였다. 후원자는 즐겁고 보람 있게, 아이들은 넓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뛰놀게. 네트워크의 힘은 실로 컸다. 후원자, 아이들 모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커졌고 연대와 관심이 짹텄다.

보라매보육원은 ‘보라매아파트’

이 대표이사는 보라매보육원을 <보라매아파트>라고 불러지길 원한다. “보육원 중에서 우리 보육원이 제일 작아요. 그런데 크기는 작아도 우리가 제일 부자랍니다. 저는 시설 안에 수영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다고 시설 안에서 아이들을 가둬놓고 키우는것보다 지역사회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육원 옆에 화도진도서관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 겁니다. 화도진공원도 있어요. 우리 거죠. 자유공원, 월미도공원...등등 모두 우리 겁니다. 이 지역사회를 마음껏 뛰어다니며 사용하는 만큼 아이들것이지요. 아이들은 폐쇄공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사고도 열리고 관계도 확대되고 의식도 바뀌는 거죠.”

우원근 대표이사와 이계순 대표이사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고민했다. 우 대표이사는 “복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조건 크게 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한 30명 단위로 작게 잘라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질이 좋아지는 거죠.

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 학교 제도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필드 중심의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대표이사는 “사회복지 시설에 일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아동심리를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곳은 돈과는 너무 멀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요새 인천에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급여 때문에 서울로 옮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준을 올려주면 직원들도 그렇게 이동이 잦지 않겠죠. 직원이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걸돌아요.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더 자주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선생님들 스스로도 의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변화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사회복지사는 의미가 없어요. 사회복지사들로 인해서 주위의 아동들이 행복해지고 복지시설 때문에 사람사는 맛나는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세상으로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들 부부가 꿈꾸는 것은 ‘한국형 복지 모델’이다. 그 꿈이 차근차근 실현되어 가고 있다.

아동복지의 핵심은 소통... 그들과 함께 하라



김영길
일현 대표이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이 조성되기를....

“보육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모와 가정의 이탈로 인해 정서가 불안정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디딤돌을 이곳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일현 김영길 대표이사는 20대 중반 이후의 일생을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결손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혼 때문에 자식들을 키우지 못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육원에 맡겨놓고 테려가는 비율도 20%에 미치지 못한다.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의 학대나 가정해체,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곳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도 예년보다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부모들은 자신들의 문제요인을 제거하여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이 문제가 단순히 부모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특히 방임이나 학대가정의 경우 원래의 가족기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정복귀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성장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이들이 저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만큼이라도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나 지자체가 함께 하여야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 자리를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주민들이 채우고 있다.

“이곳을 후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제가 1984년에 처음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국가의 지원이 미비하던 시절이었지요. 그동안 저나 우리 아이들과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대략 2,000여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금은 물론 물품지원, 재능기부, 체험활동 지원, 놀이지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회성 이벤트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후원이 아닌 작은 손길이라도 늘 꾸준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나 후원자분들의 마음을 더욱 더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가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7남매 중 셋째 형인 현 성춘재단 김영주 대표이사의 영향이 크다. 1968년 25세가 되던 해, ‘성춘의 집’ 원장으로 전쟁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김영주 원장의 열정과 희생정신에 자신도 고향인 경기도 양평을 떠나 당시 동구 송림동에 있던 ‘계명원’에서 처음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했다. 1980년도가 저물어 갈 무렵 당시 인천보

김영길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43년 경기도 양평 출생, 계명원 총무, 인천보육원 원장, 학액동 주민자치위원장, 인천아동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상임이사, 한국아동복지협회 정책위원장, 한국아동복지협회 수석부회장,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 설립, 사회복지법인 일현 대표이사, 국무총리상 수상, 국민포장 수상.

육원을 운영하시던 이종만 목사께서 해외 목회로 인해 더 이상 인천보육원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후임을 물색하게 되었고 그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주변으로부터 추천받아 인천보육원의 운영을 제의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복지사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은 우선 자기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또 유년시절을 어떻게 살았냐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막내였기에 형님들의 도움으로 나를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통했다고나 할까요? 비록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유년시절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준 것이겠죠. 저에게..... 이 일은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 가지 분명했던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소통하는 것이라는군요.”

사회복지법인 ‘일현’의 ‘일현’은 그의 아버지 존함이다. 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읜 그가 어쩌면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일현’은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신(新)을 현(賢)으로 바꿔 나날이 지혜로워지라는 뜻으로 그의 운영철학인 지혜롭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성장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집은(그는 보육원이 아니라 ‘집’이라고 부른다.) 간판도 없고 정문도 없고 담도 없습니다. 어느 집들처럼 아이들이 보육원을 자신들의 집이라 여기고 이곳에서 생활했던 기억들을 자신들의 인생에서 감추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이 아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독특한 운영철학

김영길 이사장은 유독 아동, 지역, 후원, 투명, 효율 등의 표현을 많이 한다.

“제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배고픔이었어요. 당시에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충분히 먹일 수가 없었죠. 그러다보니 배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이건 아니다 싶어 인천보육원에 와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자유배식을 했어요. 먹고 싶은 만큼 아이들이 먹는 거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게 시작이었어요.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그의 운영 철학 중 하나는 투명성과 효율성이다.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시설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고히 해야하고 비용 대비 프로그램 효과성의 극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2년도에 아동관리, 인사관리,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관리 및 후원금과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무행정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인천 지역내 타 아동양육시설에 업무전산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2002년도부터는 발달장애 및 학교부적응아동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 이를 토대로 2005년도에 지역 아동 및 주민을 위한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를 개소하였다. 아동종합센터는 상담치료사업, 방과후 보육, 가족지원사업, 놀이문화지원사업, 학교지원사업 및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기관이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

“진정한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 예산 등 외부요인의 한계를 평계로 안주하지 말고 자신의 업무, 대상자,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반성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을 숨겨야 합니다. 자신은 뒤에 있고 앞에는 더 큰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눈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측하여 대비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이라는 긴 여정에서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고 멈추어 선다면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로서의 이런 생각과 태도가 사회복지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는 작지만 큰 꿈이 있다.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이웃과 함께 자신들이 사는 곳을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려는 마음들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이다. 인천이라는 지역이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닌 인천에 정착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고장이란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위를 돌 아보지 않게 됩니다. 내 이웃, 내 동네, 내 고

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 누군가는 같이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세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세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가 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웃만이라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늘 ‘복지는 아주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 속에서 있어야 그들을 알고 가까이 지내야 함께 나갈 길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영원히 복지인으로 남기를 원한다. 현장을 지키는 복지인으로...



사회복지는 말보다 가슴으로 하는 것



유필우
前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유필우 前 회장이 걸어온 길

1945년 황해도 연백 출생, 6.25때 피난을 나와 강화도 교동을 거쳐 인천 송림초등학교,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경영대학원, 워싱턴대학교 행정대학원 등에서 공부했고, 해군 중위로 제대한 후 15회 행정고시 합격, 상공부, 대통령직속 경제과학핵심의회의,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국장-북구청장, 청와대민정수석실 국장, 노동부 국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17대 국회의원,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이사.

천사같은 사회복지사들 보고 큰 감동

“사회복지가 과거엔 고아원, 양로원 등 시설에서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의 개념이 보다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즉, 사회의 어두운 곳과 모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을 푸는 것도 그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의 경우 요양시설을 통해 보호하거나 집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보호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의 만족을 높여드릴 수 있는지 등도 생각하는 광의의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필우 전 인천사회복지협의회 회장(2002년 7월 30일~2013년 2월 2일: 7~10대 회장 역임)의 복지를 보는 입장은 이렇듯 뚜렷하다. 그는 행정관료, 정치인, 공기업 사장, 사기업 CEO을 역임했다. 유 전 회장은 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나의 스승이다’ 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만나고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게 된 것은 운명’이라고 말한다. 그가 인천 북구(현재 부평-계양구)청장으로 일할 때인 1988년, 고향에서 일한다는 기쁨으로 열정과 의욕이 넘칠 때 우연히 정신장애인 시설을 격려 방문한다. 당시에 북구관내에는 복지시설들이 많았다. “어려서부터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아와서 복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항상 위를 보지 않고 아래를 보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다짐하였는데,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복지사들

의 근무환경은 열악했지요. 그럼에도 장애우들을 내 식구, 형제처럼 닦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모습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사회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늘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헌신적인 모습에서 공직자의 자세도 배웠다.

사회복지회관 건립, 전문성 키우기에 최우선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인 2002년, 당시 김득린 인천사회복지협의회장이 몇 번이나 찾아와 회장직을 제의했고 사양을 거듭하다 회장직을 수락하면서 다시 사회복지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는다. 이후 10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이제와 생각하면 협의회장을 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요 배움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회장직을 맡으면서 협의회의 변화를 꾀했다. “평소 사회복지는 이상과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며 전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직 및 운영시스템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호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 오래되고 낡은 사회복지회관을 이전시켰다. 숭의동 운동장 근처에 있던 3층짜리 회관은 접근성도 안 좋고 시설도 낙후된 건물이었다. 어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지원하였다가 사무시설을 보고 그냥 간 경우도 있었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자 당시엔 남들이 잘 안 가던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였고 정부 예산을 끌어온다. 그래서 인천시의 예산을 합쳐 마련한 건물이 현재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7층짜리 인천사

회복지회관이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모두 들어와 있고 대규모 세미나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둘째,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국회에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의원 발의로 제안하고 통과시켜 제도화했다. 손도 안 댄 남은 음식이나 통조림, 남은 빵 등을 기증받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인천 시내 각 군구에 푸드뱅크를 설치했다. 푸드마켓도 만들어 소중한 음식품 등을 이웃과 나누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2005년 인천사회복지연구센터를 개원하고 2008년 사회복지연구원으로 개칭해 연구원을 상주시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했다. 사회복지야말로 연구와 분석과 제대로 된 대안

이 필요한 분야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인천사회복지상을 제정하였고 사회복지윤리위원회도 만들어 사회복지인들의 권익 향상과 시설 운영자들의 경영 투명성, 도덕성 확보에도 힘썼으며 2009년에는 사회복지도서관도 만들었다. 현재 많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유전 회장의 임기 10여년은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높인 기간이라고 평가된다.

사회복지는 말보다 가슴으로 하는 것

그는 무엇보다 사회복지 인들에게는 남다른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를 담당한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자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비난 받는 이유가 머리와 입 위주로만 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함께 필요합니다. 뭘 하든지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머리와 입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과 남을 배려하고 역지 사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자기를 발견하면서 봉사와 배려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넷째, 사회복지자를 말할 때 그는 늘 ‘민간의 자원봉사’를 강조한다. “사회복지 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민간차원의 자원봉사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 그 틈새를 자원봉사, 민간기능이 보완해주면 전체적인 사회복지 수준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정부에만 의존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도 운영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같은 차원에서 종교기관의 시설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교회, 성당, 절이 많잖아요? 종교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부분 예배 때를 빼고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좋은 유형 시설을 그 지역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이나 불편한 어르신들, 결식아동 등을 위한 복지 용도로도 활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천에만 교회가 3,000개가 넘어요. 정부차원에서 조금만 지원하고 체계화하면 더 효율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도 종교가 민간사회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신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화한다면 그 의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인으로 자긍심 가져야

유 전 회장의 인생철학은 긍정의 마음이다. “살아보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We seldom think of what we have. We always think of what we lack(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없는 것만 생각한다)’입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있는 것을 가만히 해아려보면 우리가 참 큰 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는 긍정과 자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당당한 요즘 젊은이들이 좋습니다. 위축되지 않는 자신감과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는 인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시했다. “저는 황해도에서 일곱 살 때 피난 나와 출곧 인천에서 살았습니다. 인천 사람입니다. 흔히들 인천을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만 그건 서울이 가깝다는 등 지정학적인 이유 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라는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크고 21세기 우리나라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는 말보다 가슴으로 하는 것



윤국진
백암한마음봉사회 대표이사

윤국진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45년 충청북도 괴산 출생, 신포동시장에서 청룡상회 운영, 현대의류백화점 운영, 남인천새마을실업학교 설립,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장,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 설립 대표이사,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설립 운영, 백암어린이집 설립 운영, 한마음청소년상담실 설치 운영, 남구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설치 운영. '향학의 꿈을 펼쳐라' – '가난을 유산으로 꿈을 이룬 소년' 집필.

13살 때 동인천역전에서 꾸었던 꿈

가난을 유산으로 꿈을 이룬 소년이 있다. 충북 괴산에서 태어난 소년은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러나 6.25 전쟁이 일어났다. 아버지는 전쟁 통에 돌아가셨다. 전쟁이 끝난 후 제대한 형은 집과 밭 등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떠났다. 남은 식구는 시골에서 살 길이 막막했다. 소년은 솔방울을 따서 보리쌀과 바꾸며 살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고향을 떠났다. 도회지를 향했다. 고향을 떠난 12살 소년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과자공장, 국밥집에서 일을 했다. 기술을 배우고 싶었다. 손과 발이 터지도록 일을 하면서도 공부도 하고 싶었다. 13살이 되면 해 홀로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에 몸을 싣는다. 영등포에서 내리려 했지만 기차를 처음 타본 아이는 동인천역에서 내린다. 그것도 무임승차였다. 덜미를 잡힌 철도공무원은 오히려 밥을 먹여줬다. 그렇게 소년은 인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닥치는 대로 벌었고 열심히 공부했다. 소년은 어느새 성장해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윤국진 백암한마음봉사회 대표이사이자 남인천중고교 설립자이다.

윤 대표이사는 누구보다도 힘들고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냈다. "동인천 역전이 바닥이자 방이고 하늘이 이불이었습니다. 신문배달도 하고 구두닦이도 했지만 별이가 시원찮아 영양부족으로 쓰러지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닦는 윤 대표이사를 야학봉사를 하던 유흥수 선생님이 눈여

겨보고 공부를 권유했다. 그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다. "그때 다짐했죠.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고요. 성공을 하면 반드시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없는 사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입니다."

과자공장, 도넛집 종업원에서 신문 배달, 구두닦이, 우유장수, 쇼빵(일본식 식빵)장수, 책장수 등 돈을 버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지만 향학의 끈만은 놓지 않았다. 영양실조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주경야독으로 야학을 다니던 윤 대표이사는 학생회장을 했다. 이 때부터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자신도 끼니를 못 때우는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을 설득해 1월, 2월 모아서 학교를 그만 두게 된 학생을 도와주었다. 신문에서도 주목해 기사를 써줘 각계 지원을 받았다. 그 당시는 가난 때문에 못 배우는 학생이 많았다. 고등학교 때는 파주에 한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입학을 못한다는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 모아둔 돈을 보내준 적도 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는 법이다. 그는 그때를 잊지 않고 성장한 후 끝내 학교를 설립한다.

사업 승승장구... 7명으로 학교 시작

결혼을 하고 속옷 등을 파는 청룡상회를 창업해 하루 두 끼를 라면과 국수로 해결하면서 현대의류백화점으로 성장시키며 돈을 벌었다. 그는 꿈을 실현했다. 1984년 학생 7명을 데리고 남인천실업학교를 설립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없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6.25가 나면서 참 힘들었잖아요. 옛날엔 여자라고 해



서 안 가르쳤어요. 또 남자들은 배우고 싶어도 가난했고요. 그래서 못 배웠어요. 지금 내 나이 비슷한 분들 중에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어른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의 아들, 딸을 대학 교수, 고위공무원으로 키운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들이에요. 지금 이런 분들이 인천에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7만여 명이 됩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줘야지요.” 그는 중고등 학교를 뜯나온 서민들은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만든 장본인들이지요. 우리 모두 이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들은 존경받아 마땅하지요.” 현재 이 학교는 40학급 1,7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라서 정부나 자체의 지원이 거의 없고 선생님들만 1인당 70만원만을 지원 받고 있어요. 우리학교는 특수학교에요.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한테 수업료를 받아서 선생들을 주는 거지요. 인천시민이 300만이니까 거의 12%에 해당하는 배움을 갈구하는 서민들이 있어요. 또 청소년 3~4% 부적응 학생들이 우리학교에 옵니다. 졸업 때보면 4년제 대학에 연간 44명씩 가고, 3년제 대학에도 230여명 갑니다. 진학률이 100%에 가까워요. 진학 비결은 애들 끼를 살려주는 거죠. 끼를 살려줘 애들이 멋지게 취미를 갖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조리과학과가 있는데 이걸 배우려고 전국 각지에서 와요. 미용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우리학교 아이들이 KBS TV 프로에서 1등하고, 작년에는 미용과 학생이 2~4등을 했거든요. 또, 올해 7월에는 KBS 도전 골든벨에 출연하여 47번 문제까지 풀어냈습니다. 최후의 1인 학생은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2인 학생은 7박8일 유럽 여행을 다녀왔죠.” 그의 사랑은 끝날 줄을 몰랐다. 그는 칭찬을 강조한다. “애들에게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야단은 절대 안치고 인성교육과 자신감을 가르칩니다.” 이 같은 성과를 얻는 모든 것이 내가 인천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환원한 겁니다. 수백억 상당의 공익법인이지만 후회 없어요. 제가 피땀 흘려서 변 것이지만 후회가 없습니다.” 그는 1988년에 사회복지법인 ‘백암한마음봉사회’를 설립해 지역사회 영세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활동도 펼치고 있다. 1990년 12월 27일에는 인천 최초 개인 출연 재산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인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의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사회복지를 정착시키고 있다.

“나는 인천사람, 받은 것 돌려드리는 것”

윤 대표이사는 인천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인천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여기에 와서 57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

천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그냥 학교만 하면 되지만 내가 사회에 환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특히 백암한마음봉사회는 윤 대표이사의 철학이 반영되어 다른 복지법인과는 다르다. ‘내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수용복지는 없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어려운 사람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자립할 수 있는 복지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용시설복지는 기술교육, 자기가 잘하는 취미교실 등을 더 보완해서, 나가서 취미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남에게 봉사할 수 있고, 노래잘하는 사람은 노래교실 같은 것이나 노래봉사를 해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보람을 찾는 복지.’ 그런 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는 이용복지시설이 각 분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



는 것이다.

“늦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영웅”

윤 대표이사는 몇 가지를 사례를 들며 평생 교육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여기 다니는 어른들에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격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 가족을 위해서 젊은 청춘을 다 보낸 분들입니다. 여기 입학하려고 학교 주변을 몇 바퀴를 도는 분들도 있어요. 창피하기 때문이지요.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야기입니다. 자기 엄마가 매일같이 버스를 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산을 가더랍니다. 이 학생이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엄마가 이 학교 근처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지요. 이튿날에도 또 여기서 내리고... 따라와서 올라와보니 학교였던 거지요. 집에 가서 엄마 가방을 보니까 교과서가 있고요. 그걸 보고 그 학생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지 몰랐다. 난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공부는 소홀하고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는데,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숨기고 다니는 엄마들이 있어요. 모 대학교 교수의 부인도 있는데 남편에게 알리니까 ‘정말 멋지다’고 했답니다. 장애인 부부 학생도 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늦은 공부는 죄도, 창피한 것도 아닙니다.” 윤국진 대표이사는 이제 꿈꾸던 작은 소년이 아닌 교육으로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큰 어른이다.



받는 복지재단에서 행복 주는 재단으로



정현
성동원 원장

어린 시절 고아들과 함께 생활

정현 장애인생활시설 성동원 원장에게 복지는 숙명이다. 유년시절부터 고아들과 함께 지냈다. 처음엔 반발도 했다. 아버지 정규순 초대 이사장은 1953년 성동원을 만들면서 줄곧 전쟁 고아들과 자식들을 함께 키웠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정현 원장은 자연스럽게 대학도 사회사업과에 진학한다. 졸업 후 대학원을 진학해 석사학위까지 땄다. 하지만 그는 사회복지사업도 경제적 자립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계에 투신한다. 돈은 별만큼 벌었다. 다시 사회복지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1988년 11월 가업을 이어 성동원 2대 원장에 취임

한다.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으로 뛰어든 것이다.

“고향은 황해도입니다. 아버님은 인천시 옹진군을 오가며 토목공사 일을 하셨어요. 저수지 등을 만드는 수리조합일을 하셨는데 돈을 제법 벌으셨어요. 당시께서 6.25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3년 인천에서 제재소를 하면서 고아원을 만들었지요.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다가 이후 직접 뛰어들으셨지요. 당시엔 전쟁 직후이니까 국가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님이 전 재산을 털어 설립한 것이지요. 대충 원생 100여명과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이 매일 밤 걱정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



정현 원장이 걸어온 길

1946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생, 신흥초-동인천중-수산고 졸업, 중앙대 사회사업과 졸업,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졸업,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종양이사,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사회복지협의회 인천지부 회장, 신용협동조합연합 인천연합회 회장,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부평구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장애인생활시설 성동원 원장, 대통령 표창 수상.



용된 아동들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수업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지요. 저도 형제들과 함께 똑같이 시설에서 밥을 먹고, 옷도 같은 것 똑같이 입었어요. 사춘기 때에도 다른 학교 친구들은 색깔 있는 운동화를 신는데 저만 까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는 아버지가 좋아서 이 일을 하지만 나는 뭐냐? 내가 고아냐고 한 적도 있었죠. 절이 들어 대학을 가고서야 아버님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지요. 가끔 아버님 대신 심부름을 하면서 차츰 동화되었습니다."

성동원은 처음엔 전쟁고아를 돌보던 시설이었다. 고아 중에 한 명이 청각장애인이 있었는데 교육을 위해 서울에서 전문교사를 영입해 가르치던 것이 인연이 되어 장애인 자립을 돋는 복지기관으로 탈바꿈했다. 인천 남구 도원동에 있다가 부평으로 옮겼다. 성동원은 61년 전통을 가진 인천 사회복지사업의 뿌리이다. 한국 전쟁 직후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부터 성동원은 복지사업을 한 것이다.

경제자립 없으면 복지사업 말아야

정 원장은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을 이룬 후 가업을 이었다. 경제적인 자립을 강조한 정 원장의 신념은 장애인 자활사업에도 잘 드러난다. 직업보도소 양화부를 차려 장애인의 자립을 시도했다. 단순하게 장애인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립심도 함께 키우기 위한 시도였다. “1970년대 ‘케리브룩’이라는 제화회사가 있었지요. 제가 우리 시설의 장소를 제공해줄 테니까 아이들에게 제화기술을 가르쳐주고 취업을 시켜 달라는 조건을 붙여 협상을 했지요. 적중했습니다. 원원(win-win)한 것이지요. 케리브룩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취업의 성공사례로 전국을 돌며 발표를 했었죠. 자부심 갖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오래 가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목



적과는 다르게 복지관련 예산을 썼다는 지적이나왔다. 장애인을 위한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비장애인인 사업을 하냐는 식이었다. 장애인들이 자립해 사회에 참여하는 게 사업목적이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사업을 접었다.

그 후에도 정 원장은 몇 차례 사업을 시도했다. 사업했던 경험을 살려 인쇄소를 차렸지만 판로를 찾기 힘들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줘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시에 납품할 수도 없었다. 시에는 이미 거래처가 있었고, 공무원들은 복지재단 운영이나 실적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제가 일본을 간 적이 있어요. 장애인들이 슬리퍼를 만들었는데 일반기술자가 만든 것하고 차이가 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사줘요.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정 원장은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보면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것도 가르치고 끈기 있게 사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장애인의 자활을 돋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다 큰 관심을 보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복지 통합예산 유연성있는 집행을

복지정책에 대한 불편함도 토로했다. “복지관련 통합예산이란 것이 있어요. 예산이 배정되면 원생들 피복비, 의료비 등 지목해서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필요에 따라 간식비를 덜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따금 교회나 사회단체에서 빵도 사다주고, 떡도 사다주고 하면 간식비는 여유가 있는데 그 돈을 다른 용처로 활용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항목에 맞게 비용을 처리해야 하지요. 복지시설에게 유통성 있는 예





산 집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요.”

정 원장은 최근 복지재단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위해 작은 사업 하나를 시작했다. 받기만 하는 복지재단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업이다. 봉사자, 후원자들에게 식사대접도 하고 장애인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여주는 방식이다. 내년부턴 한국지엠한마음 재단 후원을 받아 더욱 크게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복지사업이라는 게 어찌됐든 국민들이 다 도와주고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고 배푸는 입장에서 보다 더 감동을 받으면서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 원장은 복지시설이 사회의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봉사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중소기업 사장이고 벌만 큼 벌었고 갖출 것을 다 갖췄는데, 정작 본인은 하루도 즐겁게 지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이 곳에 와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사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꿨답니다. 애들을 위로하려 와서 자기가 위로 받고 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지시설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행복과 가치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사회복지의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조언한다. 내가 투자한 걸 계산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 원장은 젊은이들에게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하는 일의 가치를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은 열악합니다. 그 열악함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으면 보람을 느낄 겁니다. 여기 있는 저희 직원들은 만족해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는 거지요.”

욕심 없는 복지사업이 내 철학

그에게 사회복지라는 어떤 의미일까? 그의 답변은 간단했다. “삶의 전부입니다.” 젊은 시절에 가진 것 모두를 투자했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은 일이기에 그렇다. “복지의 길에 뛰어든 초기에는 후회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고맙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조금이든 많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여건을 만들어줬잖아요.”

성공한 사업가로서, 또 장애인 자활사업에 헌신한 활동가로서 정 원장이 걸어온 삶은 풍성했다. 그에게 삶의 철학을 물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 평범하게 살라고 해요. 제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저는 신협 회장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도 굉장히 크지요. 자리에 오르면 좋은 대접을 다 받습니다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정 원장은 성공의 정의를 물었다. “꼭 올라가야만 성공을 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되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어딘가를 올라가려고 할 때는 남하고 경쟁하고 시기해야 하잖아요.” 정 원장의 욕심 없는 복지사업의 철학이다.

교육은 희망이고 장애를 극복할 대안입니다



명선목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보면대 없는 무대위에 안내를 받으며 각자 자기의 파트자리에 앉은 연주자들....!

2014년 11월 11일, 침묵 속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렀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연주를 하려면 모든 악보를 듣고 외우며, 연습해야 한다. 이들이 뿜어내는 환상의 음률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인천혜광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의 모습이다.

무대의 시각장애인 단원과 객석의 비장애인 이 음악을 통하여 공감의 무대를 선보인 이번 공연은 올해로 네 번째이다. 객석에는 그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연주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그는 바로 명선목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인천혜광학교장)이다.

명선목 대표이사는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내어주었다.

황무지에 피어난 장미꽃

명선목 대표이사는 1947년 함경남도 평양에서 감리교단 목회를 하시던 명관조 목사와 고아, 병든 사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사이에서 와아들로 태어났다. 한국전쟁 중 1·4후퇴 당시 그의 부친은 기적적으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월남에 성공하였다.

어릴 적부터 명선목 대표이사에게는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많았고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하여 어떡해서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식을 줄 몰랐다. 어

느세 그의 작은 가슴에 자신은 자기자신보다 이웃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짹트기 시작하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한때 심한 방황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모태신앙인으로서 항상 내면 깊숙히 자리잡고 있었던 신앙적 신념으로 어둡고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다. 청년시절을 맞이한 명선목은 부친의 뒤를 따라 신학의 길을 걸으려 하였지만 타고난 목소리와 예술가적 기질은 그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로 진로를 결정하게 하였다. 음대를 다니는 동안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인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다.

새로운 도약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신앙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난 청년 명선목은 그가 살아오면서 꿈꾸어 왔던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펼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아내인 임남숙(인천광평원) 원장을 만나면서 장인인 임경삼 목사의 뒤를 이어 광명복지재단의 설립자로 취임하였다.

1983년 시각장애인 교육과 사회복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명선목 이사장은 광명복지재단의 제2의 중흥기를 마련하고자 산하기관 별로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

명선목 이사장은 대전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인천혜광학교의 교장으로서 경영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및 이료재활반과 이료전공과를 설치하여 명실상부한 경인 지역의 시각장애

명선목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47년 출생, 연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대전중·경일실업고·영진상고 교사, 전국사립특수학교협의회 회장,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인천장애인체육회 이사,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인천특수교육연합회 회장,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천혜광학교 교장, 인천교육대상(유아특수)수상, 교육경영 대상 수상(서울신문)

인재 육성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1956년에 설립한 시각장애 거주시설인 인천광명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거주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부모에게 버림받은 시각장애인들, 중도 중복 장애로 어느 누구도 보살피기 어려운 이들, 집이 멀어서 학교 공부를 할 수 없는 이들 등 가정 환경이 어려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삶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고 절망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사하였다.

명선목 대표이사는 현재까지의 재임 기간동안 광명복지재단 산하 기관인 광명원의 신축과 직업 재활시설인 아이드림의 신축, 인천혜광학교의 직업특별관 신축, 인천혜광학교 본관 리모델링, 인천혜광학교 다목적실인 삼애관 신축 등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 드는 사업을 10여년 사이에 이루어내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해내었다.

이것은 모두 그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보다 남을 위해 살고자 했던 결손과 한번 하고자 하는 일이면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남다른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들..

명선목 대표이사는 인재 육성을 위한 남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 교장으로 부임한 후 그는 시각장애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우선 중도실명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이료 재활과정을 2001년에 설치하였고, 이료심화 교육과정인 이료전공과를 2008년에 설치함으로써 능력 있는 이료인을 양성하여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중도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중복장애학급을 운영하였고, 그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 후 기본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그는 2011년 인천혜광시각장애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음악적 재능을 가진 시각장애인을 발굴하여 그들에게 음악을 통한 삶의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고 있다.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는 음악을 전공하는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생활 현장에서 음악을 즐기며 비장애인들과 음악을 매개로하여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교육가 명선목 대표이사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 중심의 내실화된 교육” 이것은 인천혜광학교의 교육목표로 학교 뿐만 아니라 재단 산하기관에 대한 명선목 대표이사의 경영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은 단지 조력자로서의 입장에서 중간 관리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교사들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프로그램을 학생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평가해주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국토순례나 스키캠프, 체험활동, 아침 경건회, 조회 등 교내·외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명선목 대표이사는 어린 시절부터 몸소 실천해온 나눔의 정신을 시각장애학생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995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안마 봉사활동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소록도 한센병 환우들을 위하여 안마와 청소 및 말벗되어드리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했던 졸업생들은 지금도



그 때에 참여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때가 학창시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미래를 향한 지침줄 모르는 도전

명선목 대표이사가 제시하는 광명복지재단의 미래 비전은 시각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에 맞추어져 있다. “인천해광시각장애인에 오케스트라가 전 세계적으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나아가 그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메신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단지 음악 전공자로서가 아닌 진정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또한 그는 아직까지 시각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들이 헬스키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에 관공서에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한 명씩만 취업을 시켜도 안마 교육을 받은 시각장애인들이 모두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는 것

이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뿐리 깊게 자리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항상 시각장애인 취업을 걱정하는 그는 국가와 사회가 좀 더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끊임없는 모색을 하고 있다.

“광명복지재단은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재활을 돋는 기관으로 다시 거듭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광명복지재단에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 그들 스스로가 희망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게 저의 꿈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이 저와 우리 범인에게 맡겨준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목, 선한 목자(good sheferd). 그의 이름처럼 그는 한 평생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의 진정한 리더로서 그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들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선대에 이은 끝없는 사회복지



김 광 용
명성복지회 대표이사

김광용 대표이사가 걸어온 길

1949년 인천 출생, 인천고 졸업, 국민대 목축학과·인하대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인하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명성직업훈련원 원장, 명성복지회 이사장, 인천북공업고등학교 교장, 계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인천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인천아이낳기좋은세상본부 운영위원, 인천계양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 인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인천 유일 전쟁 혼혈아 보호시설

그에게 사회복지는 천직이다. 복지관의 역사가 가족의 역사를 대신한다. 선대에 이어 명성복지회 계양종합복지관을 운영중인 김광용 대표이사이다. 복지관의 역사는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 김진원(1924~2014) 응과 어머니 이순옥(세례명: 말가리다)(1930~1997) 전 대표이사에 이어 장남인 그가 1992년 4대 대표이사를 맡는다. 부친은 1963년까지 20년여 동안 인천에서 공직 생활을 했다. 이후 부친은 '삼영제과'를 운영하였고 모친도 목욕탕 사업을 시작한다. 당시 인천에서 가장 큰 신흥동 '처녀목욕탕'이 그것이다. 이것이 추후 복지관을 인수하는 종자돈이 됐다. 아버지는 1964년 혼혈아 육아시설인 '명성원'을 만든다. 1958년부터 다른 분이 운영하던 곳을 1964년 12월 5일에 정식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계양종합복지관의 전신인 명성원은 전쟁고아 중에서도 혼혈아를 육아하는 시설이었다. 설립될 당시부터 혼혈아가 많이 들어왔다. 1970년대에는 해외입양이 많았다. 원생들은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1948년 생부터, 1962~63년생 까지 다양했다. 초등학교를 들어간 원생들도 제법 많았다.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꼽슬머리에 까만 피부의 외국인 같은 모습을 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당시 부평에 있는 728현병대를 자주 갔는데 그곳에 미군현병대가 있었고 청천동에는 미군구치소가 있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우유와 정부에서 준 원조 쌀로 아이들을 먹였다. 부모는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 기술교육에 힘을 썼다. 그땐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여서 형편상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없어 시설에 있는 고아들을 자동차 정비부터, 중장비 정비, 선반 등을 교육시켰다. 모친 이씨는 원생을 대상으로 고전무용을 가르치며 한국전통무용단(Korean Folk Dancing Group)을 만들었다. Korean Folk Dancing Group은 한국에 있는 미군부대를 돌며 공연을 했고 이러한 인연으로 미군들은 시설 고아들을 입양했다. 김 관장도 1968년부터 부모를 도우며 이곳에 몸을 담았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일단 직업교육을 하려면 여러 시설이 필요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선반이나 용접교육을 위한 시설을 세웠다. 기술을 익혀 사회로 내보내 당당하게 살길을 찾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직업훈련을 통해 배출한 아이들만 500명이 넘는다. 매년 많을 땐 60명도 수료하고, 여자원생들은 자수까지 가르쳐 삶의 방편을 마련해줬다.

자립할 수 있는 직업복지시설로

하지만 이 직업훈련은 1980년대에 들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사회분위기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직업훈련시설을 없애고 고등학교로 전환했고 보유하던 기계 선반부터 금속 가공시설까지 그대로 유지해 활용했다. 학교는 재학생이 1,000명이 넘을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 가지 않았다. 1997년 폐교했다. 사회분위기가 실업계 보다는 인문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운영하다 중단했다.

영아원도 있었다. 1980년대 초이다. 당시 인천도 산업화가 진행되자 전쟁고아가 아닌 미혼모가 많이 생겼다. 미혼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게 되자 버려진 아이들이 많이 생겼다. 인천에 혜성영아원이 있었지만 수용시설이 부족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받기 시작했다. 명성원에서 유아원도 세우고 상담소도 만들었는데 원생의 20%만 국내에 입양되었고 나머지 80%는 해외입양을 가게 되었다. 때문에 유아시설이 아이들을 ‘수출’ 한다는 오해를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당시 혼혈아를 기르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곳으로 모두 왔어요. 입양은 입양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설은 보호시설입니다. 보호하는 시설을 편웨하는 분위기가 있었지요” 라며 안타까워했다.

아이들 가르치려 직접 정비 배워

그는 1997년 인천 계양구 서운동으로 복지

관을 옮겨 본격적으로 복지와 사회교육 사업을 시작했다.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이 됐다. 사회적인 요구에 맞춰 노인복지센터도 새로 만들었다. 현재 노인센터, 요양원, 푸른솔아동센터 등을 운영한다. 이런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는데 반세기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반세기의 복지관 역사는 그의 역사다. 김 대표이사는 인천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부모가 하는 복지사업을 도왔다. 그만큼 복지관은 그에게 삶의 터전이었다. 1972년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직장을 잡았지만 1년 만에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왔다. 3대 대표이사인 어머니 혼자 복지관을 꾸려나가기엔 역부족이었다. 어머니를 도우려 복지사업에 뛰어든 그는 1984년 명성직업훈련원 원장을 맡는다. 각 복지관 대표회의를 나가기도 했다. 김 대표이사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1997년까지 사실상 경영실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90년에 명성복지회 대표이사를 시작했





다. 그전까지는 시설장과 직업훈련원장을 맡았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독립시킨 장본인이다. 직접 자동차 정비를 배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내가 경영학과를 갈 게 아니라, 다른 과를 갔어야 했었어요”라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는 경영대학원을 진학한 이유가 사회복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 국가의 열악한 지원 때문에 사업이라도 하며 복지사업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8년엔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뒤늦은 공부지만 필요해서 하는 것이라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사관리와 조직관리 하는 데 경영학 석사학위 취득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기억한다. 복지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다.

살기 좋은 동네 조성이 최고복지

그의 아들도 그를 도와 복지법인에서 일한다.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던 첫째를 한국으로

로 불러들였다. 복지관 관장의 정년이 65세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식에게 복지관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아프리카에서 조달사업을 하던 첫째를 불러 학부 편입부터 시켜 사회복지사 1급을 따게 하였다. 그의 둘째 아들도 곧 이곳을 도울 예정이다. 3대의 일생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복지관인 셈이다.

그는 인천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나서 66년을 인천에서 살았으니까. 인천은 자랑스러운 내 고향입니다. 쓴 소리를 하나 하자면, 지난 인천아시안게임은 2조원 넘는 빚을 남겼습니다. 그 돈은 인천 복지 쪽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건설 쪽에 모든 것을 거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김 관장은 인천의 복지 방향을 제시한다. “제가 ‘인천아이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입니다. 보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줘야합니다. 지원은 없고 출산만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아이들이 많



아지는 것이 복지의 척도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복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천을 아기 자기하게 좋은 동네로,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대통령까지도 클라이언트할 자세로

그의 복지철학도 확고하다. “사람이 사는 데는 끝이 없다. 복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뭐든지 욕심을 내면 끝이 없어요. 저는 늘 기대치나 희망을 적게 잡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생활하려합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그는 후대 사회복지사들에게 당부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복지를 공부하면 어렵고,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가가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을 해서 권리를 찾고, 큰 뜻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까지도 클라이언트(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로 되어 내가 그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말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6.25동란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고아원을 중심으로 60여년 유구한 세월이 흘러 오늘날 사회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선대의 1세대 선배님들은 작고하셨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계십니다.

내가 고아들을 돋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비를 맞는 것이요,

이 어둠이 다할 때까지 스스로를 다하여 타오르는 촛불이 되겠다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고된 역경을 우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해 오셨습니다.

이에 협의회에서는 인천의 사회복지의 뿌리와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으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후배들의 도리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협의회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계 원로 어르신들의 회고의 말씀과 인천시 기록물을 확인하여 법인 시설 중심으로 역사와 인물자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인천사회복지 발자취 결과물이 책자와 웹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신 원로자문위원님! 법인역사 사료를 제공해주신 법인 대표이사님! 인터뷰와 영상촬영을 해주신 인하대 박선흥 교수님! 출판홍보위원회와 편집자문위원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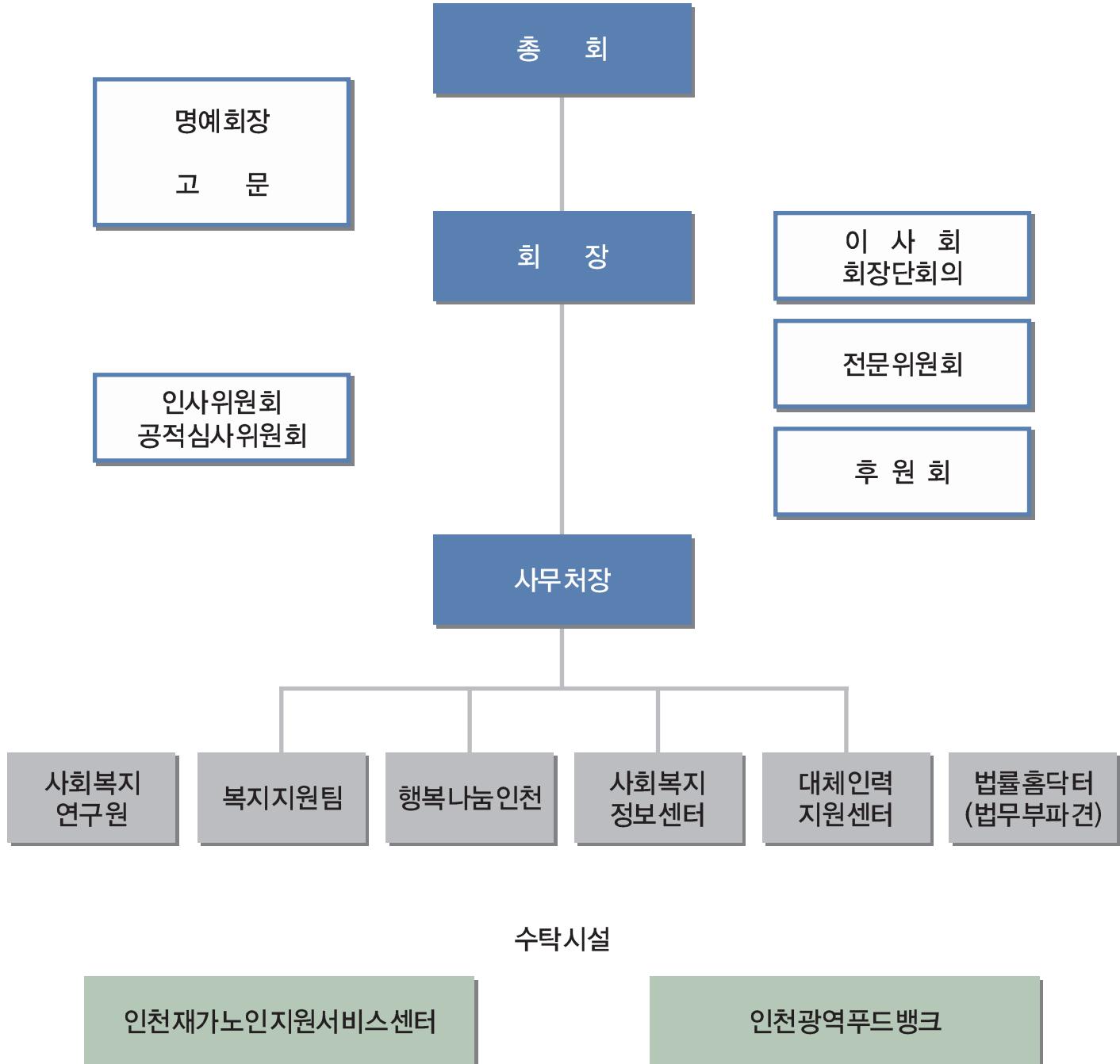
또한 2년여 동안 자료를 정리하고 기록해 온 이종아 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회복지 역사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주인이 되도록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현황



■ 명예회장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명예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득린	송암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영주	성촌재단 대표이사
	최성규	순복음인천교회 담임목사

■ 고문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고문	유필우	前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장영순	사회복지법인 순과순 대표이사
	김민기	사단법인새생명장기기증운동본부 대표이사
	김영길	사회복지법인 일현 대표이사
	정대은	용천사 주지스님
	이창운	인천YMCA 회장
	정 헌	성동원 원장
	송상균	대원복지재단 대표이사
	양재덕	실업극복인천본부 본부장
	고정심	前 인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 임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회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부회장	김근영	인천플러스 대표이사
	김광용	명성복지회 대표이사
	명선목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순용	인천폐차사업소 회장
	이명숙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이정희	IS한림병원 대표이사
	정병일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황규철	대한적십자사인천광역지지사 회장
	김동철	인천장애인직업자활시설협회 회장
	김영수	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이사	김성철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김현상	(주)콤솔 대표이사
	박은성	인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서현정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신선아	인천장애인복지협회 회장
	신준범	인천광역시지역아동센터대표자협의회 회장
	우치호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회장
	이영희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이상구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재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태훈	더불어사는집 원장
	정영기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용충	복지지원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진모	인천노인복지협회 회장
	조병호	장애인생활신문 대표
	조석현	인천시약사회 회장
	최윤형	인천노인복지관협회 회장,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한명섭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감사	정해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호연	법무사

■ 인사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김근영	인천플러스 대표이사
	서현정	남동장애인복지관 관장
	김도진	동구푸드뱅크 대표
	박태성	장애인부모회 회장
	최상희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공적심사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조홍식	남구장애인복지관 관장
	홍연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위원	김근영	인천플러스 대표이사
	이용우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이은구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사무국장
	정용중	복지기원개발위원회 위원장
	전홍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 연구원 운영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신순호	인천광역시보육정책보육기반팀 팀장
	안은주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 관장
	윤정혜	재능대학교 교수
	이재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최상희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 전문위원회

1) 정책기획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이재선	신안산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성수	노후희망유니온 인천본부장
위원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명희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국장
	김석겸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김성욱	인천광역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김승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김정태	인천광역시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남정태	복지콜노인복지센터 대표
	박영숙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주임교수
	박은성	인천광역시한부모가족복지시설연합회 회장
	신선아	인천광역시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이상민	예림원 사무국장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단 단장
	이한형	장봉혜림원 원장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	임수철	인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정의용	미래성폭력상담소 소장
	횡철환	인천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

2)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최윤형	서구노인복지관 관장
부위원장	고광명	前 성동보호작업장 원장
위원	김승진	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국장
	김영수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희남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김호일	인천광역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백길자	충효노인복지센터 사무장
	김금자	인천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송윤옥	오!! 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신현환	송의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이남훈	前 (주)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회협력팀장
	최장열	前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 단장
	안은주	푸른마을아동복지종합센터 관장
	곽종형	성산효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은영	비전상담복지센터 대표
	강경숙	동구노인복지관 부장
	김재웅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

3) 복지자원개발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정용충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부위원장	강대봉	동심원 원장
위원	길옥연	남구신나는그룹홈 원장
	김명동	서천재단 은혜의집 사무국장
	김수진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김애란	석남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김화자	부평구청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팀장
	류호인	계양구종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박경남	남동하나센터북부지부 사무국장
	박성식	호서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손소희	예림원 원장
	양미희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석주	파인트리홈 사무국장
	이도형	미추홀오페라단 단장
	이범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팀장
	이은구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사무국장
	이은주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원장
	전선영	인천자애인종합복지관 팀장
	조현순	경인여대 사회복지과 교수
	지주현	인천소기업소상공인협회 사무처장

4) 출판홍보위원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장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강화사무소 소장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위원	홍연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동희	부평아트센터 관장
	구자길	남인천방송국 보도팀장
	김광배	예진원 원장
	김주리	파인트리홀 원장
	신순호	인천광역시보육정책보육기반팀 팀장
	유승희	인천신문 부장
	이근화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이용우	인천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
	이은구	한국지엠한마음재단 사무국장
장세호		티브로드 광고팀장
	조홍식	남구장애인복지관 관장

■ 지회장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지회장	권기학	부평구지회 회장
	김경복	계양구지회 회장
	김상유	연수구지회 회장
	이관형	중구지회 회장
	이상구	남동구지회 회장
	이용민	동구지회 회장
	이종원	남구지회 회장
	정진모	서구지회 회장

■ 직원

구분	성명	소속 및 직함
사무처	최상희	사무처장
	나유선	팀장
	노승환	대리
	진창태	대리
복지지원팀	김선재	주임
	윤현성	팀장
	조의현	대리
	윤이슬	사회복지사
	이정민	사회복지사
행복나눔인천	정경희	사회복지사
	이미영	주임
	김은주	주임
사회복지정보센터	이지혜	사회복지사
	이종아	연구원
	조하나	대리
법률홍닥터	양영화	변호사
인천광역푸드뱅크	김태호	팀장
	유요한	대리
재가노인복지센터	김병수	원장
	박보람	주임
	김소연	사무원
	김민금	사회복지사
	김신웅	사회복지사
	용희정	사회복지사

추진경과 및 도움을 주신 분들

■추진경과

- 2013. 03. 15. 제1차 추진위원회
- 2013. 08. 28. 제2차 추진위원회
- 2013. 10. 18. 제1차 원로 자문위원회
- 2014. 04. 21. 제2차 원로 자문위원회
- 2014. 12. 29. 제1차 책자 및 웹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 2015. 01. 13. 제2차 책자 및 웹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 출판 및 웹 개발과 관련하여 출판홍보위원회와 연구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음

•추진위원회

- 김광용(現 명성복지회 대표이사)
- 김영길(現 일현 대표이사)
- 김은중(現 신명보육원 원장)
- 명선복(現 광명복지재단 대표이사)
- 윤옥선(現 인천다비다원 대표이사)
- 이재만(現 인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정 현(現 성동원 원장)
- 조홍식(現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원로 자문위원회

- 김광용(現 명성복지회 대표이사)
- 김영길(現 일현 대표이사)
- 김영주(現 성촌재단 대표이사)
- 김지영(前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 실장)
- 서창원(前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상담실 실장)
- 정돈희(前 해성보육원 총무)
- 정 현(現 성동원 원장)

•책자 및 웹개발 관련 자문위원회

- 고동희(現 부평아트센터 관장)
- 김광배(現 예진원 원장)
- 김재식(現 인천상공회의소 강화사업소 소장)
- 김주리(現 파인트리홀원 원장)
- 이용우(現 인천지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홍연표(現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책 엮은이

- 이종아(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인천사회복지

인천시
사회복지
국립현대미술관
2015년 2월

인쇄일 2015년 2월

발행일 2015년 2월

발행인 한창원

발행처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503(간석동)
032)883-1773

인쇄/디자인 도서출판 유림

